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국가의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에 대한 변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임재영

2023년 2월



국가의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에 대한 변천 연구






지도교수 오상학

임재영

이 논문을 지리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임재영의 지리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손명철	
위원	정광중	
위원	남윤섭	
위원	현상천	
위원	오상학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12월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State's Perception and Management of Halla Mountain

Jae-Young Im
(Supervised by professor Sang-Hak Oh)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octor of Geography

2022.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

.....
.....
.....
.....
.....

(Name and signature)

.....

Date

Faculty of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차

국문초록	vii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2. 연구방법 및 범위	5
1) 연구방법	5
2) 연구범위	7
3. 선행 연구 검토 및 논문 구성	13
1) 선행 연구	13
2) 논문 구성	17
II. 탐라-고려시대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	19
1. 고대 국가의 산 인식	19
1) 산 인식	19
2) 인식의 표현: 제사의례	20
2. 탐라시대 한라산 인식	24
1) 탐라의 성립과 전개	24
2) 한라산 인식	28
3) 인식의 표현: 제사의례	33
3. 고려시대 한라산 인식	39
1) 산 인식	39
2) 인식의 표현: 제사의례	40
3) 한라산 인식과 표현	41
4. 한라산 이용·관리	44

1) 목마장	44
2) 사냥	49
3) 목재	51
III. 조선시대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	55
1. 한라산 인식	55
1) 진산	55
2) 삼신산	59
2. 인식의 표현: 산신제	62
1) 제사의례 변화	62
2) 한라산 산신제	65
3. 한라산 이용·관리	77
1) 국영 목마장	77
2) 사냥	86
3) 목재	91
4) 화전	93
IV. 일제강점기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	96
1. 한라산 인식	96
1) 산 인식	96
2) 인식의 표현: 소유권 강화.....	98
2. 한라산 이용·관리	109
1) 자원남벌과 조림갱신	109
2) 인위적 개발, 표고버섯	120
3) 국영 목마장의 쇠퇴	123
V. 해방이후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	128
1. 한라산 인식	128

1) 산 인식	128
2) 인식의 표현: 보호구역 지정	129
2. 한라산 이용·관리	141
1) 자연경관의 상품화	141
2) 국토 및 통일의 상징이미지	145
3) 관리의 체계화, 세계화	149
VI. 결론 및 제언	155
1. 요약 및 결론	155
2. 제언	159
참고문헌	160
Abstract	170
감사의 글	174

표 목차

<표 I -1> 주요 답사 장소와 내용	7
<표 II -1> 신라 사건의 주요 제사	23
<표 II -2> 고려 사건의 주요 제사	40
<표 III -1> 조선 국조오례의 사전 주요 내용	63
<표 III -2>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마필규모와 마정인원	83
<표 IV -1> 1922년 제주도 국유림과 민유림 현황	102
<표 IV -2> 1922년 한라산 국유림 지적대장	106
<표 IV -3> 일제강점기 한라산 임산물 허가건수	114
<표 IV -4> 일제강점기 한라산 관련 주요 자료	126
<표 V -1>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현황	130
<표 V -2> 제주4·3사건 당시 한라산 지역 교전사항	134
<표 V -3> 한라산국립공원 주요 일지	150
<표 V -4> 유네스코(UNESCO) 등재현황	152

그림 목차

<그림 I -1> 해발 200·400·600m를 구분해서 표시한 제주도 지도·····	11
<그림 I -2> 국가의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 관계도 ·····	12
<그림 I -3>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좌)와 서벽 정상외 삼각점(우) ·····	14
<그림 II-1> 용담동 철기부장묘의 철제 장검 ·····	25
<그림 II-2> 말 그림이 그려진 토기 ·····	34
<그림 II-3> 광양사가 보이는 18세기 여지도 ·····	37
<그림 II-4> 고구려 무용총 벽화 중 사냥모습 모사도 ·····	50
<그림 II-5> 진목악(지금의 천아오름) ·····	53
<그림 III-1> 한라산 기록이 실린 태종실록 ·····	66
<그림 III-2> 존자암의 국성재 기록 ·····	68
<그림 III-3> 한라산 불래오름의 존자암 ·····	69
<그림 III-4> 한라산 백록담분화구 북벽 기우제 추정지(점선) ·····	70
<그림 III-5> 제주시 산천단 ·····	73
<그림 III-6> 한라산 목장축조를 기록한 세종실록 ·····	78
<그림 III-7>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에 표시한 10소장 ·····	80
<그림 III-8>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 ·····	82
<그림 III-9>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 ·····	84
<그림 III-10> 탐라지도병서(좌)와 제주삼읍도총지도(우) ·····	85
<그림 III-11> 제주삼읍도총지도에 표시된 국마장 시설 ·····	85
<그림 III-12> 탐라순력도의 교래대렵 ·····	87
<그림 III-13> 노루손이오름과 아흔아홉골 ·····	90
<그림 III-14> 탐라순력도의 고원방고 ·····	93
<그림 IV-1> 조선임야분포도 ·····	100
<그림 IV-2> 조선임야분포도의 제주도 ·····	101
<그림 IV-3> 제주시 오등동 산 182번지 토지대장 ·····	103

<그림Ⅳ-4> 1916년 한라산 국유림 구분조사 문서	104
<그림Ⅳ-5> 국유임야지적대장 표지(좌)와 지적대장 속지(우)	105
<그림Ⅳ-6>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의 19018년 제주도 지도	107
<그림Ⅳ-7> 한라산 백록담(점선) 정상과 주변에 부여한 지번	108
<그림Ⅳ-8> 原口九萬이 그린 제주도 지질 구조단면	110
<그림Ⅳ-9> 조선지질광상분포도(좌)와 제주도(우)	111
<그림Ⅳ-10> 한라산 남·북구 사업안 문서	112
<그림Ⅳ-11> 한라산국유임상도	115
<그림Ⅳ-12> 한라산 국유림을 구분한 임반	116
<그림Ⅳ-13> 제주 서귀포지역 국유임반	116
<그림Ⅳ-14> 5·16도로가 표시된 1933년 조선특산물지도의 제주도	117
<그림Ⅳ-15> 1937년 도로개발 10개년 계획도의 환상선	118
<그림Ⅳ-16> 제주도의 조림 갱신대장 표지(좌)와 내지(우)	119
<그림Ⅳ-17> 1918년 제작된 지도의 한라산 표고버섯 재배지	121
<그림Ⅳ-18> 한라산 국유림 대부 문서	122
<그림Ⅳ-19> 조선시대 3소장 위치로 추정되는 제주시 마방목지	123
<그림Ⅳ-20> 조선총독부 국유임야 대부 문서	125
<그림Ⅴ-1> 한라산에서 토벌작전을 벌이는 군경(좌)과 관음사 주변 군경 토벌대 주둔소 터(우)	133
<그림Ⅴ-2>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좌)와 기념비 위치(우)	135
<그림Ⅴ-3> 1972년 한라산국립공원 조례의 한라산국립공원 약도	138
<그림Ⅴ-4> 관음사의 한라산 영산대재	140
<그림Ⅴ-5> 한라산 인식과 그 표현의 변천 흐름도.....	141
<그림Ⅴ-6> 한라산국립공원 구역과 탐방로	151
<그림Ⅴ-7> 한라산 이용·관리 흐름도	154

국문초록

한라산은 명산(名山)이자 영산(靈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가치를 규명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 활동은 부족했다. 특히 그동안 한라산 연구가 조선시대에 편중되면서 탐라시대, 일제강점기 등 다른 시기의 한라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드물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탐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점에서 한라산 인식, 그리고 이용·관리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한라산 가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라산과 국가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 연구이기도 하다.

연구 결과 한라산 ‘인식’에 대한 변천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탐라시대는 신비스럽고 경외한 산 자체를 신격화한,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자연신으로 한라산을 숭배했다. 중요한 삶의 거점으로서 생존에 필요한 일체의 것을 제공받았다. 또한 농경, 선박운항에 가장 중요한 비바람 등을 관장한다고 여기는 한라산의 산신, 천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다.

한라산은 고려시대부터 진산(鎭山)의 의미가 싹트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적 제례를 통해 진산으로서의 성격이 굳어졌다. 진산은 제사의 대상이자 장소로서의 기능, 방어기지로서의 기능, 그리고 풍수지리설에서 나오는 주산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정에서는 홍수와 가뭄, 전염병 등의 재앙을 막거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진산에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에 한라산은 진산의 역할과 더불어 전설 속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조정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제례에 반영될 만큼 특징적인 요소가 됐다.

이러한 제사가 조선 초기에는 드문드문 거행되다가 중기를 지나서야 한라산 산신제가 보다 비중 있고 정기적으로 치러졌다. 이는 지역을 진호하는 진산에서 명산, 삼신산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한라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점차 증대된 것과 맥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라산의 신적 표상이 소거되고 자원의 개발과 독점적 이용, 국유권의 강화와 통제 등을 통한 이익추구 대상으로 객체화(客體化)했다. 식민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한라산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소유권이 공고하게 정립되었다.

해방이후 한라산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수익과 편의성 차원의 케이블카건설, 도로개설 등의 개발 압력이 높아졌다. 하지만 한라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생태계 등을 인정받아 보호구역 지정이 먼저 이뤄졌는데 일제강점기 한라산에 대한 인식이 ‘사물적 대상’에서 해방이후 ‘보호와 보전의 대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표현됐다.

국가의 한라산 ‘이용·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대 흐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탐라시대 전통적인 수렵채취의 공간이었던 한라산은 중국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목장 제도가 도입됐으며 선박건조 등을 위해 산림이 대대적으로 벌채됐다.

조선시대에는 한라산 공간구조에 커다란 변동이 발생했다. 국영 목마장의 경계에 석축을 함으로써 보편적인 공간이 특수한 장소로 변했다. 시각적인 경계인 돌담이 생성되면서 국가 소유 영역이라는 인식도 동반해서 발생했다. 목장 축조는 또한 이동, 출입의 자유가 통제되고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같은 구획화는 일제강점기로 이어져 한라산 국유지를 확정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조선시대 한라산은 공물 진상을 위한 사냥터이기도 했는데, 이는 군사훈련을 겸한 성격이었다. 고정적인 사냥터를 운영함으로써 공간을 점유하고 자원을 획득하는 형태를 동시에 보여줬다. 한라산에서 희귀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 구역을 통제했으며 화전을 일부 허용해 세수의 수단으로 삼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국유림 사업계획을 세워서 산림 자원을 독점적으로 확보했다. 한라산 국유림 보호라는 명목아래 도민들의 산림이용을 통제했으며, 이는 국유림 자체의 보호보다는 독점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하고 관리한 것을 의미했다. 한라산 희귀수목 채취는 물론이고 남측 원시림 지대에 대해 버섯채배를 집중적으로 허용해 임대수익을 얻었다.

해방이후 한라산 이용·관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해 관광, 휴양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자연경관의 상품화를 지향했다. 또한 한라산이 백두산과 더불어 국토 통일의 상징 이미지로 확산된 것은 국가의 이용·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양상이다. 남·북 정상에 한라산과 백두산의 물과 흙을 하나로 합치는 정치이벤트는 한라산을 국토 강역의 대표적인 이미지이자 통일의 상징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한라산 인식은 토착신, 자연신에서 출발해 진산, 삼신산의 의미가 더해졌으며 일제강점기를 맞아서는 신(神)격이 제거되고 사물적 대상으로 인식됐으며 해방이후에는 보호, 보존적 대상이 됐다. 인식의 표현방식으로는 한라산이 국가 제사로 모셔지다가 개발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유화 정립을 거쳐 해방이후 보호구역으로 전개됐다. 한라산 이용·관리는 국가 운용을 위한 자원채취, 개발에서 통일의 상징적 대표 장소로 변모했다.

이 연구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한라산을 수동적, 피동적인 타자(他者)적 존재로 고찰했다. 시대별 흐름을 보면 한라산 위상이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기에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향후 한라산 자체가 주체적 존재로서 분석하는 연구와 정책이 진행돼야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한라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보다 다양해지고 ‘산 연구’ 지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한라산, 국가 인식, 이용·관리, 진산, 삼신산, 산신제, 국마장, 국유화, 국립공원, 통일 상징, 자연관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제주도민들은 매일 한라산을 보고 자라며 생활하고, 죽으면 산허리에 있는 묘지나 납골당에 묻힌다. 생사의 터전인 한라산은 해안가 마을이나 산간 목장, 어디서든 정상이 보이지만 각각 서로 다른 표정을 한다. 북쪽인 제주시내에서는 격하게 요동치는 계곡과 날카로운 능선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남쪽인 서귀포시내에서 바라보면 중절모를 씌운 듯 봉긋 솟은 모양이다. 제주도민들은 어릴 때부터 본 한라산 정상 모습에 익숙한 때문인지 자신의 고향에서 본 정상 경관이 최고라고 여긴다.

또한 한라산의 구름을 보면서 날씨를 예상하기도 하고, 한라산을 오르고 비경을 감상하면서 휴양을 한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근원이자 공급처이고, 천연의 숲을 간직하고 있다. 다양한 모습을 하는 한라산은 제주도민에게 제주도의 상징이자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원시의 생명력을 가진 채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한라산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한라산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연구의 시작이다. 한라산을 주제로 대화를 할 때면 통상적으로 “정상에 가봤느냐”, “지금까지 몇 번 갔느냐”는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서구식 알피니즘(alpinism)¹⁾의 시선이 깔려 있다. 언제, 어떻게 정상을 밟았는지를 가리는 등산 또는 ‘정복’의 관점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한라산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할 때 ‘등산의 역사’로 인식하는 일도 있

1) 알피니즘은 새로운 산, 험난한 산에 오른다든지, 기술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식을 기르며, 강렬한 정열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산에 도전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1786년 스위스의 학자 H.B.소쉬르가 몽블랑을 등정한 무렵부터 사용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일반화된 것은 19세기 후반경 부터이며 한국에서는 1920년경에 비로소 이와 같은 풍조가 일어났다.

지만, 이는 100년도 안된 것으로 장구한 한라산 역사에서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사람이 제주에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라산에 대한 인식, 상호작용이 생길 만큼 훨씬 더 오래고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한라산의 정체성을 거론할 때 “한라산은 명산(名山)이다”는 말에 의미를 제기할 이는 드물 것이다. 이 명산을 직접 보고, 디더보기 위해 전국에서 등산객이 계절마다 몰린다. 넘쳐나는 등산객으로 인한 훼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탐방예약제’²⁾를 실시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런데 “왜 명산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는 “남한 최고봉”, “수려하고 독특한 자연경관” 등 두 세 가지를 말하고 나면 말문이 막힌다.

이는 한라산이 품고 있는 가치를 규명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 활동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한라산은 신선(神仙)의 거처이자 산악승배의 대상이고, 제주를 지키고 수호하는 진산(鎭山)이다. 또한 전설적인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자 제주의 무속 신앙에서 각 마을마다 좌정한 신(神)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여기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다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가 2006년 펴낸 『한라산총서』가 한라산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면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 자연과학분야는 물론이고 인문분야까지 총망라하면서 한라산을 집대성했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주제별로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라산총서』가 본격적인 산(山) 연구에 불을 지핀 것에 이어 영·호남 지역인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과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은 지리산권문화연구단을 결성해 2007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인문한국(HK) 지원을 받아 ‘지리산권 문화연구’를 10년 동안 진행한 결과 연구논문 300편, 자료총서 33권, 연구총서 11권, 번역총서 8권, 교양총서 7권, 마을총서 1권을 발간하는 성과를 냈다(강정화, 2016).

『한라산총서』과 함께 지리산권문화연구단의 연구 활동으로 산 연구에 괄목

2)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21년 1월1일부터 한라산의 자연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적정 수의 탐방객 수용으로 지속가능한 탐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백록담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성관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에서 탐방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루 탐방객 수는 성관악 코스는 1000명, 관음사 코스는 500명이다.

할 만한 진전을 가져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중국의 오악(五嶽)³⁾을 기반으로 한 명산연구, 일본의 후지산(富士山)을 내세운 명산연구와 더불어 동아시아 명산연구의 한 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릴 만하다.

하지만 이들 한라산과 지리산 연구이후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 미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지속성, 확장성에서 담보상태를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한라산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학술적인 접근보다 고담(古談)이나 보고서, 신변잡기(身邊雜記) 수준의 내용 정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라산의 유산(遊山)문화 연구는 다소 진척이 있지만, 이 역시 조선시대 한라산 정체성의 일부를 고찰한 것이다. 한라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하고,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대별로 한라산에 대한 인식과 이용이 전개된 양상을 우선 고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그동안 한라산 연구가 조선시대에 편중되면서 탐라시대, 일제강점기 등 다른 시기의 한라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드물었다. 탐라시대는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유적이 절대적으로 빈약하고, 일제강점기는 자료 발굴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심역시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라산의 정체성을 위해 시대별 연구가 진행되어야하는 것은 숙명적 과제이다. 이에 부응해 주제 의식을 갖고 한라산에 대한 통시적(通時的)인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 연구목적

산을 떠올리면 울창한 숲, 신선한 공기, 물이 흐르는 계곡, 다양한 동·식물, 정상에서의 탁 트인 전망 등 자연환경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이런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간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유·무형의 가치는 더욱 포괄적이고 광대할 것이다.

인문적인 면에서 산은 인물, 사건을 비롯한 과거 관련성이나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역사적 가치, 영감과 심미감을 주는 문화·예술적 가치, 수양과 명상의 정신적 가치,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휴양의 가치, 신성성의 종교적 가치, 자연에 대

3) 중국 전국시대 이후 오행(五行)사상의 영향을 받아 오악의 관념이 생겼는데 동쪽의 태산(泰山), 서쪽의 화산(華山), 남쪽의 형산(衡山), 북쪽의 항산(恒山), 중부의 숭산(嵩山)이다. 중국의 산 신앙에서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류제현, 2022).

산의 가치가 다층적으로 배열이 되지만 자연관에 따라서 동양과 서양이 다소 다른 면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산은 인간을 압도하거나, 반대로 인간이 산을 정복했다. 그래서 서양의 공간 관계는 하늘에서 산을 거치지 않고 땅으로 바로 연결된다. 반면 우리는 하늘과 땅이 융화할 수 있는 산으로 이어져 마을로, 그리고 인간으로 맥을 이룬다. 하늘과 땅은 사람과 더불어 내재적 전체이자 상호적 관계인 것이다(최원석, 2014a).

서양에서 산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지만 과학혁명⁴⁾ 이후 기계론적 자연관, 기독교적 자연관은 자연을 타자화한 이분법적 사고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서구식 자연과학 교육으로 이런 구조가 유입된 이후 전통적 천(天)-지(地)-인(人) 합일의 자연관과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관점에서 한라산이 간직한 수많은 이야기, 가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먼저 ‘관점(觀點)’이 필요하다.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한라산을 달리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관점을 ‘국가’로 정했다. 국가가 한라산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 공간에 대한 점유와 이용·관리 양상이 달라지고, 이는 곧 지역공동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는 탐라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라산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이용·관리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라산을 조명하고 국가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와의 관계에서 수동적, 피동적인 타자(他者)적 존재로 여겨지는 한라산이 그 자체가 주체적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연구과정으로 이해되길 바라는 점도 있다.

4) 16-17세기 유럽에서 과학의 여러 분야들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진행했다. 문헌조사는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나 서적, 즉 정사(正史)를 기본으로 했으며 공인이 쓰거나 밝힌 내용을 부대 자료로 했다. 논의의 전개와 논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이 발행한 고문헌도 참조했다.

탐라시대는 문헌자료가 영성(零星)하기 때문에 산에 대한 국가의 관리나 역할을 밝히기 위해 유물유적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탐라 지배층의 파편적인 정보를 분석했다. 탐라에 대한 문헌상 기록, 동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를 기본으로 해서 『고려사(高麗史)』, 중국 고문헌 등을 참조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기본으로 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 등을 고찰했다. 부족한 국가기록을 보완하기 위해 조선시대 제주목사(牧使)를 지낸 인물의 기록도 함께 살펴면서 분석을 이어갔다. 공인이 남긴 문헌이기에 일정 부분 국가의 관점이 담겼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관보와 문서를 기본으로 했으며, 일제강점기 제주도청이 발행한 책자 또는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학자의 연구 자료도 검토했다. 해방이후에는 정부와 제주도에서 발행한 서적, 보고서 등의 자료를 기본으로 했으며 제주도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확인했다.

국내외 고문헌인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서 주요 자료를 확인하고 확보했으며 조선총독부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국가기록원 등에서 연구 자료를 취합했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삼국사기』, 『고려사』와 중국 문헌 가운데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 중국정사의 조선전, 중국사서 고려·발해유민 분야에서 간편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서 연구에 도움이 됐다. 한국고전번역DB의 자료인 경우 간행된 서적과 비교분석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과 국가와의 관계를 파악했으며, 국가가 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고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산 일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뒤 한라산에 투영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찰했다.

또한 산, 한라산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표출됐는지를 분석했다. 탐라에서 조선에 이르는 시기에서 표현양상은 제사의례에 중점을 뒀다. 산에 대한 인식·표현과 더불어 국가가 한라산을 이용·관리한 양상과 유형에 대한 고찰을 진행했다. 산발적이고 조각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국가의 관점에 맞춰서 정리하고 연결하는 연구 작업을 수행했다. 이런 연구의 흐름을 통해서 국가가 한라산을 어떻게 인식, 이용·관리했는지를 규명하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답사는 국가가 개입한 장소이거나 연구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실행했다. 한라산 백록담 정상, 제주4·3사건 군경주둔소 등을 비롯해 조선시대 국영 목마장과 사냥 및 군사훈련장, 국유림지역 표고버섯 재배현장, 사찰 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영상 기록으로는 사진촬영을 위주로 했으며 한라산국립공원 지역 특성상 통제구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했다. 드론 촬영을 위해 사전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았다. 드론으로 촬영한 부감(俯瞰) 장면은 한라산의 지리적·지형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순식간에 구름이 짙게 끼거나 비가 쏟아지는 한라산 고산지대의 기상 특성으로 인해 지상 또는 드론 영상촬영이 실패한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또한 차량 접근이 힘든 지역은 대부분 걸어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관음사, 성판악, 영실, 어리목, 어승생, 석굴암 등 7개 탐방로를 모두 이용했으며 국유림 지대는 한라산 둘레길을 주로 활용했다. 주요 현장 답사는 아래 <표 I-1>과 같이 정리했다.

<표 I -1> 주요 답사장소와 내용

날짜	장소	답사내용	비고
2020. 05. 07.	한라산 백록담 정상	백록담 북벽 한라산평화개방비 확인 및 영상촬영(지상)	
2020. 05. 09.	한라산 관음사	군경토벌대 주둔소 흔적 확인 및 영상촬영(지상)	
2020. 05. 13.	한라산 5·16도로 성판악 휴게소	5·16도로와 국유림 임반(2,3,4임반) 실태확인 및 영상촬영	드론
2020. 06. 05.	한라산 백록담 정상	서벽 한라산 최고높이 지점 관측 및 영상촬영	드론
2020. 07. 11.	한라산 영실 존자암	조선시대 국성재 제사장소인 존자암 현지 확인 및 영상촬영	드론
2020. 09. 08.	한라산 백록담 정상	조선시대 기우제, 산신제 제사 장소인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북벽 정상 관측 확인 및 영상촬영(지상)	
2020. 09. 20.	한라산 백록담 정상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그림자 형성 모습 영상촬영	드론
2020. 10. 02.	한라산 둘레길 돌오름 일대	한라산 국유림내 버섯재배 현장 확인 및 영상촬영(지상)	
2020. 10. 29.	한라산 제주마방목지	조선시대 국마장 흔적인 제주마방목지 마사육현장 확인 및 영상촬영	드론
2020. 12. 01.	제주시 노루손이오름	조선시대 사냥터로 추정되는 노루손이오름과 아흔아홉골 일대 확인 및 영상촬영	드론
2021. 09. 18.	한라산 백록담 서벽정상	한라산 백록담 서벽정상의 삼각점 확인	
2022. 09. 07	한라산 백록담 동릉 정상	한라산 백록담 만수상황과 동릉에서 바라 본 북벽 확인	

출처: 연구자 작성.

2) 연구범위

(1) 시간적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탐라, 조선, 일제강점기, 해방이후로 나누어 전개하고자 한다. 탐라국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통합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시 용담동 고분⁵⁾을 철기소유집단의 소국(小國)단계로 보는 관점이 있고 제주시

산지향 화폐유물을 근거로 1세기부터 백제 문주왕 2년(476)까지를 마한 78소국의 위상과 버금가는 수장사회 즉 원초적 국(國) 단계로 보기도 한다(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탐라가 언제 군장국가(君長國家)⁶⁾의 형태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백제 문주왕 2년(476)에 이미 국가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때 정치지배체제의 확립,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존재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실제 탐라국이 문헌에 등장한 백제 문주왕 시기부터 국가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탐라국이 언제까지 국가로 존속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고 고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율적인 지배체제가 이어졌다는 분석(김일우, 2000)이 있어서 고려시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탐라시대에서 함께 논의를 하겠다. 탐라시대 이후는 국가 운영주체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이후로 나눠 각각에서 한라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해방이후에는 한라산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는 2010년대까지를 주로 살펴보겠으며 주제와 사건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범위를 확장한다.

(2) 공간적 범위

타원형의 섬, 제주에서 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보면 분명 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디까지 한라산의 범위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 주거지가 밀집된 해안가를 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은 분명하지만 어디부터 산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불분명하다.

풍수에서 산의 기준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척(尺)만 높아도 산이요, 일척만 낮

5) 제주시 용담동 속칭 월성 마을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해발 40m 내외의 완만한 평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1984년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발굴 조사 결과 출토유물은 토기·철제유물·유리구슬 제품 등이 있으며 3-4세기로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

6) 삼국 시대 이전에, 씨족 사회가 붕괴하면서 세력이 강한 부족장이 여러 읍락(邑落)을 통일하고 점차 그의 권력을 강화하여 이룬 국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국가 형태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국가 형태를 이르는 학술 용어로 이전에 역사학계에서는 최초의 국가를 일반적으로 '부족국가'라 했고,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성읍국가'로 고쳐 부르자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1987년 문교부(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사교육심의회에서 확정된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에서는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국가 형태를 군장국가로 통일하도록 하였다.

아도 수(水)로 보게 되기도 한다(최창조, 1984). 이처럼 산의 정의는 자연지형적 조건, 산을 바라보는 주체의 관점, 분야별 접근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최원석, 2014b).

한라산은 화산으로 형성된 산이다. 지질학적으로는 제주도를 형성시킨 화산활동은 크게 3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초기(100만년-40만년)는 남부-서부지역에서부터 화산지형이 형성됐으며 동부지역은 60만-40만년 사이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기(40만년-10만년)는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로 제주도 기반 화산지형 대부분 완성된 단계이다. 말기(10만년-홀로세)는 화산활동 쇠퇴기로 한라산 정상지역과 대부분의 오름⁷⁾이 형성됐으며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지표를 피복했다(고기원 외, 2021). 지질적으로는 용암이 흘러내린 시기와 구역이 불분명하고 한라산 정상보다 다른 지역이 먼저 형성됐기 때문에 산지를 정의하기가 힘들다.

정광중(2006)은 한라산의 범위를 ‘한라산국립공원’, ‘해발 500m이상’, ‘한라산=제주도’ 등 3가지로 구분해 논의를 전개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한라산으로 보는 것은 가장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고, 해발 500m이상은 조선시대 조성된 목마장의 상жат성⁸⁾을 쌓았던 지점이면서 산림청의 요존국유림⁹⁾의 경계지점이라는 배경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현원학, 2004). ‘한라산=제주도’의 인식은 지형적, 지질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한라산체가 해안까지 뻗어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하겠다,

강만익(2013)은 해발 200m이상을 한라산지의 출발점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했다. 조선시대 국영 목마장이 설치되면서 목마장의 하한선에 해당하는 경계돌담인 하жат성이 설치되어 있어 이 돌담을 한라산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

여러 견해가 상존하는 가운데 한라산의 범위에 대해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한라산의 범위를 정의하려면 고도, 경사, 산림 등의 자연환경적

7) 한라산 백록담을 제외한 작은 화산체로 제주 섬에 360여개가 산재해 있다.

8) 상жат성은 말들이 한라산 고지대 산림지대로 들어갔다 동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발 450-600m에 만든 돌담으로 상жат담으로도 불린다. 이에 비해 하жат성은 말들이 농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발 150-250m에 만든 목장 경계돌담이다.

9) 보존국유림으로 세부 분류는 임업생산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과 사적·성지·기념물·유형문화재 보호·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등이 있다.

측면과 함께 취락, 1차 산업, 인공시설물, 개발행위, 역사성 등 인문환경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제주지역은 해안 용천수가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으며, 이들 주거지를 산악지대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주거지와 산과는 명백한 분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의 범위를 상정할 때 취락의 형성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만 취락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에 대한 기준은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지 분포상황 역시 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한라산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주도민들이 해발 200-600m를 중산간지대로 오랫동안 인식해온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중산간 지대는 조선시대 국영 목마장인 지역으로 마방목을 위해 초지가 우점(優占)했으며 일제강점기에 국유에서 마을 공동소유 목장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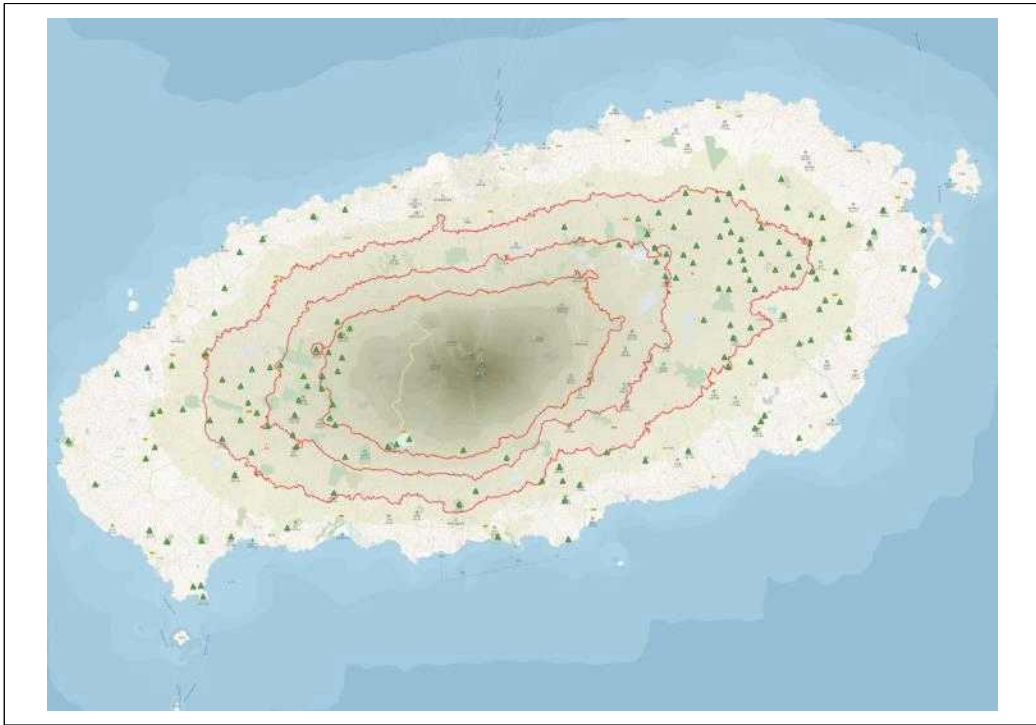
중산간지대에 지금도 상당한 면적이 목장 또는 초지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2000년을 전후해 개발 바람이 불면서 골프장이나 리조트단지 등이 고지대로 올라가면서 산으로 인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한라산 남북으로 산록도로 개설과 교통량 증가 등으로 과거의 산촌마을 규모가 커지면서 산지로 판단하기 어려워진 점도 있다.

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보면 한라산 정상을 기준으로 북쪽 해발 350m(제주시 해안동 주택단지, 제주대학교), 남쪽 350m(돈내코 마을회관), 서쪽 350m(애월읍 유수암리, 안덕면 비오토피아), 동쪽 400m(조천읍 교래리) 등이다.

연구자는 이처럼 자연환경과 주거지 등 인문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한라산의 공간적 범위를 해발 200m이상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분하도록 하겠다. 핵심지역은 해발 400m이상 한라산국립공원과 국유림지역이고, 주변지역은 완충 및 교란지대로서 해발 200-400m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다.

해발 400m 지점은 북쪽으로는 오라골프장 남쪽, 동쪽으로는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육성마목장 산굼부리, 남쪽으로는 한남시험림 치유의숲 솔오름전망대 탐라전과천문대, 서쪽으로는 본태박물관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지경이다.¹⁰⁾

10) 구글어스의 지도를 활용, 해발고도를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I -1> 해발 200·400·600m를 구분해서 표시한 제주도 지도
출처: 연구자 작성.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라산 공간범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는 해발 200m 이상을 산의 범위로 고찰하고 일제강점기부터는 해발 400m 이상 국유림지대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는 조선시대 국영 마목장인 국마장(國馬場)이 해발 200m 이상 중산간지대에 위치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국마장이 민간에 대부되거나 임대돼 국가 관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내용적 범위

탐라시대부터 해방이후에 이르는 장대한 시간 동안 한라산의 모든 것을 담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 자연, 환경, 문화 등에서 주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관점을 국가로 정했는데 한라산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상정했다.

국가가 한라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전체 흐름으로 잡고 이용·관리한 영역으

로 연구를 확대했다. 인식에는 인식의 표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한라산을 이용하고 관리한 부분을 하나의 핵심 틀로 묶어서 분석했다. 연구의 효율과 효과를 위해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를 나누어서 고찰했지만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자명하다. 인식이 이용·관리에 영향을 주고, 이용·관리가 인식에 투영되는 상호작용이 이뤄지면서 한라산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봤다. 이런 관계를 <그림 I-2>와 같은 흐름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I-2> 국가의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 관계도

출처: 연구자 작성

국가의 관점에서 한라산 인식의 내용을 가려내기 위해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자연관, 신앙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한라산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인식의 표현양상으로는 제사의례에 주목했다. 고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제사의례는 산 인식의 대표적인 표현양상이고 국가가 직접 주도하고 개입한 부분으로 판단했다. 일제강점기부터는 산 인식과 표현양상의 변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해방이후 산에 대한 인식과 그 표현양상은 세대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분출되는데 국가적 관점에서는 국립공원을 핵심사항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모든 산이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한라산인 경우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한 국립공원 지정을 국가 인식의 중요한 표현양상으로 해석했다.

한라산 이용·관리에 대해서는 공간점유의 전개과정과 자원채취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국가의 한라산 이용·관리는 경제와 생활적인 측면을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적 범위를 기본으로 아래와 같이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국가가 한라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고찰한다.

둘째, 한라산에 대한 국가의 인식을 어떻게 표현, 표출했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국가는 한라산을 어떻게 이용·관리했는가를 규명한다.

넷째, 국가의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가 시대별로 진행된 과정과 변화를 고찰한다.

3. 선행 연구 검토 및 논문 구성

1) 선행 연구

지리적으로 제주도는 신생대 제3기 플라이오세 말부터 역사시대에 걸쳐 화산 분출물로 형성된 섬이다. 북쪽으로는 한반도, 서쪽으로는 중국대륙, 동쪽으로는 일본열도로 이어지는 중간지점의 대륙붕상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서 약 450km, 목포에서 약 145km, 부산에서 약 268km 떨어진 우리나라 최남단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 동서길이가 73km, 남북길이가 33km로 가운데 한라산(해발 1947m¹¹⁾)을 중심으로 타원형을 하고 있다(고기원 외, 2017).

<그림 I-3>은 좌측이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이고 우측은 백록담 분화구 서벽 정상에 국토지리정보원이 2008년 설치한 삼각점이다. 한라산 해발 높이는 국내에

11) 한라산 높이는 1845년 사마랑호를 이끌고 동아시아 해상을 탐험한 영국인 Edward Belcher가 선상에서 1955m로 측정했으며 1901년 독일인 지리학자이자 언론인인 Sigfried Genthe는 직접 한라산 정상에서 기압계를 이용해 1,950m로 밝혔다. 1910년대의 일제강점기 5만분의 1지도에도 1,950m로 적혔으며 1966년 건설부에서 한라산 높이를 삼각 측량해 1,950m로 재확인했는데 2008년 국토지리정보원이 한라산 백록담 서쪽 정상에 삼각점을 설치해 측량한 높이는 1,947m로 측정됐다.

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천만 해수면이 아니라 제주항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한라산에 삼각점을 설치함으로써 해발 고도의 정확성을 보다 높였다.



<그림 I -3>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좌)와 서벽 정상 삼각점(우)
출처: 연구자 촬영.

한라산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 中井猛之進의 「제주도 및 완도 식물조사보고서」(1914), 일본인 지질학자 原口九萬의 「제주도의 지질」(1931)이 식물연구와 지질연구의 시초로 볼 수 있다(임재영, 2020).

한국인에 의한 한라산 연구는 해방이후 식물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높은 해발고도와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난대상록활엽수림, 온대낙엽활엽수림, 한대침엽수림 등이 뚜렷한 수직적 식물분포와 함께 고산지대에 다양한 희귀, 특산식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18).

식물분야를 시작으로 지형·지질 분야에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내면서 연구가 진행된 반면 인문분야에서는 좀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발행한 자료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1985, 2006),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보고서(1992, 2002, 2012),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2019) 등 보고서 형태가 주를 이뤘다.

이 연구는 한라산에 대한 인문적 접근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주로 검토하겠다. 인문분야를 포괄하는 단행본으로는 제주도(1994)가 발행한 『한국의 영산,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종합보고서 형태로 한라산의 지질 지형, 동·식물상과 함께 관광·위락자원의 유형, 문화재와 사찰, 전설, 민요, 한라산과 문학, 한라산과 4:3 등 인문분야 내용을 담았다. 한라산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종합 서적으로서는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2006)의 『한라산총서』인데 11권을 한질로 하는 총서로 자연경관분야에 치중됐던 한라산 연구가 역사·유적, 인문지리, 구비전승·풍수 등 인문분야로 확장됐다(임재영, 2020).

『한라산총서』 발간은 한라일보사의 장기 기획시리즈인 「한라산학술대탐사」에 참여했던 구성원을 중심으로 연구·집필 작업이 이뤄졌는데 한라산 연구에 분수령이 되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연과학과 인문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작업이었으며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를 날줄과 씨줄로 엮으면서 시·공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 초석으로 여겨진다.

2021년에는 개정·증보판인 『한라산총서』가 발간됐는데¹²⁾ 우리나라 사서(史書)와 개인문집에 등장하는 한라산 용례를 정리한 『한라산의 문헌사료집』, 제주특유의 산림지대인 꽃자왈의 특성과 인문공간 성격을 조명한 『한라산과 꽃자왈』, 조선시대 고문헌의 기상과 급변하는 한라산 기후 변화양상을 담은 『한라산의 기후와 기후변화』, 한라산 산림관리와 이용정책을 수록한 『한라산의 산림』,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람사르습지·국립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보호지역으로서의 한라산』 등 5개 분야가 새롭게 포함됐다. 한라산 연구의 폭이 확장된 결과가 개정·증보판에 담겼지만 역사·유적, 산림 등의 주제별 내용에서 한라산의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하게 전개되면서 제주 전역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초판에 이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한라산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기 힘든 사항이지만 집필자들이 일정 부분 통일된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라산 연구에 대한 학술적 접근에 대해서는 ‘인식(認識)’, ‘유산(遊山)’, ‘명산문화’, ‘경관 및 관광’ 등의 주제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식 부

12) 발간시점은 2021년 12월이지만 인쇄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배포가 이뤄진 것은 2022년 12월이다.

문에서 오상학(2006)은 조선시대에 발행된 지도에 담긴 한라산 경관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백록담 상봉과 주변으로 이어진 오름의 자연경관을 비롯해 동서 사면으로 이어진 숲지대, 목마장 구역과 시설, 사찰 등이 한라산을 인식한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밝혔다. 홍기표(2021)는 우리나라 고서 21종에서 154회의 한라산 용례를 수집한 뒤 한라산제(祭), 노인성, 목장 등이 주요 관련 기록이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한라산이 명산, 지리적 표지지점, 중요 경관 조망지점 등으로 인식됐다는 점을 주장했다. 강정화(2014)는 조선조 지식인에게 한라산은 중국 삼신산의 신선사상과 연계한 신비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리산처럼 언제든 자유롭게 유람이 가능한 곳이 아니어서 소수의 인원만이 기록을 남겼다고 밝혔다.

유산 부문에서 손오규(2015)는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존자암은 초월적이고 원초적인 공간으로 묘사됐으며 백록담은 신선과 백록(白鹿)의 설화를 통해 신성성과 초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고윤정·오상학(2021)은 조선시대 한라산을 올랐던 제주목사와 관리 및 유생들의 유산 기록 13편을 고찰한 결과 산수유람 성격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한라산 산신제 제관으로서 산행과 자연풍물에 대한 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윤미란(2008)은 조선시대 유산 기록 8편에서 각각 유산동기, 사상적 배경 등을 살펴봤으며 영실기암, 백록신선, 노인성, 존자암 등이 중요하게 등장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명산문화 부문에서 정광중 외(2004)는 한라산이 주민생활에 투영된 역사적 부분을 산악승배, 산신제, 목장, 유산기, 등산 등으로 구분해 고찰했으며 심미적, 경관적 가치 등으로 영산(靈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밝혔다. 최원석(2014b)은 지리산과 한라산의 명산요소를 이루는 요소를 산천제, 명산, 여신설화, 풍수문화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리산과 한라산을 비교 분석했으며 지리산에 비해 한라산이 사전(祀典)등재, 삼신산 인지 등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경관 및 관광 부문에서 김상우(2000)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존지향형 개발, 자연학습시설 설치, 이용객 분산, 미래 수요에 대비한 관광시설 확대 등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강정호(2008)는 한라산국립공원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세계자연유산의 핵심인 한라산에서 보전을 전제로 한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고지희(2017)는 한라산 영실탐방로의

자연 및 문화자원 50개를 기본으로 해서 연령대별 해설 프로그램을 구성, 적극적인 환경교육 활동으로 거듭나길 희망했으며 임재영(2020)은 한라산의 인문경관을 종교·제사, 방어유적, 기념물, 풍수지리형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자연경관과 인문 분야가 어우러진 복합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타진했다.

이상과 같이 한라산에 대한 인문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200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한라산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가 횡단면적인 단편 영역에 한정돼 있으며 한라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주제의 다양성 면에서 풀어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확장성 면에서도 상당히 미흡하고 더구나 학술논문은 조선시대의 한라산 연구에 치중한 상태로, 통시적인 관점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라산을 바라보는 인식의 관점 역시 조선 사대부에 한정된 채 다양한 관점을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한라산에 대한 학위논문은 국립공원과 경관연구에 치우친 상태로 전문적이고 치밀한 연구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한라산에 대한 단편적이고 조각적인 분석을 극복하고자 통시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고대 탐라에서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 해방이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한라산에 대한 인식과 표현, 이용·관리의 변천 과정을 추적했다. 주제의 지속성과 시간의 확장성을 통해 한라산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라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과 고찰은 이 연구가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국가의 관점에서 한라산을 해석하고 분석한 이 연구가 향후 한라산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2) 논문 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고대 국가의 산 인식과 표현양상인 산악송배, 제사의례에 대해 살필 것이다. 이를 토대로 탐라의 한라산 인식과 표현양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고찰한다. 탐라의 자율성이 대폭 제한을 받는 고려시대 한라산 인식과 제사의례의 유형을 분석한다. 그리고 탐라시기에 한라산 이용·관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조선 조정의 한라산 인식의 핵심으로 진산 및 삼신산을 상정하고, 인식의 표현양상으로 제사의례 변화과정과 배경에 대해 추적할 것이다. 조선 조

정의 한라산 인식을 확인하는 핵심사항으로 한라산 산신제의 제문을 분석하고, 이용양상·관리에서는 한라산 공간구조에 변혁을 가져오는 국영 목마장인 국마장(國馬場)을 비롯해 사냥, 목재, 화전에 대해 고찰한다.

IV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시선을 중심으로 한라산 인식과 인식의 표현, 이용·관리 양상을 고찰한다. 한라산을 단순한 사물적 존재로 보는 자연관의 변화를 먼저 검토한 후 공식적인 문건으로 국유화를 공고하게 확립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한라산 이용·관리에서는 자원수탈과 개발양상에 대해 분석한다.

V장에서는 해방이후 한라산 인식에 대한 분석은 국립공원 도입과 지정을 중심으로 됐다. 개발과 보호적 시각이 공존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요소로 국립공원을 상정했다. 한라산 이용·관리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달리 자연경관이 상품화되고 상징이미지로 전화되는 내용을 주로 고찰한다.

Ⅱ. 탐라-고려시대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

1. 고대 국가의 산 인식

1) 산 인식

탐라의 지배층, 지배체제가 한라산을 인식한 방식과 표현에 대한 자료는 지극히 한정적이다. 다만 탐라가 대외교류를 활발히 진행한 점은 확인이 되는 만큼 무역품은 물론이고 문화양식 역시 다른 지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은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탐라의 지배층이 한라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불투명하다면 문물을 교류했던 동시대 다른 국가의 산 인식과 표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을 숭배하고 신앙한 것은 오랜 옛적 이래의 일이었다. 옛 사람들은 높이 솟은 산을 통하여, 인간이 하늘 즉 신(神)의 세계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높은 산을 매개삼아 인간이 신의 세계로 접근할 수가 있으며, 또한 신들이 인간의 세계로 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산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했다(변동명, 2020).

이 같은 사고 구조는 이미 단군 신화에 잘 나타나 있다. 천제인 환인의 서자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神壇樹) 아래 내려와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또 단군은 나중에 다시 아사달(阿斯達)의 산신(山神)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고대인들은 하느님이 이 세상에 강림했다고 믿었으며 강림한 하늘의 신이 곧 산신이라고 믿었던 것이다(김갑동, 2008).

고대에서는 신비스럽고 경외한 산 자체를 신격화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자연신을 형성하는데(김영진, 1987) 건국신화 시조들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강림 시 주로 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산신신앙의 연원을 살펴보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고대인의 정신세계에서 산은 단지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만 생각되었던 것이 아니라, 시조(始祖)가 강림한 곳으로서 외경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 성산(聖山) 관념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산은 천신신

양이나 조상숭배와도 연관된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산은 고대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거점으로서 생존에 필요한 일체의 것을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인식되어 그 자체로 자연 숭배적인 요소를 지닌 것이기도 하였다(박호원, 2013).

이처럼 산에 대한 숭배 내지 신앙은 천신이 산으로 내려와 인간과 교통한다는 믿음으로 발현되는가 하면 산 자체를 비와 바람을 관장하거나, 사람과 마을 수호하는 신으로 믿기도 했다. 동시대에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이 산신 또는 신선(神仙)이 되어 산에 거처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단을 쌓거나 사당을 지어서 그 산신을 모셔왔던 것이다.

2) 인식의 표현: 제사의례

산에 대한 숭배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산신 또는 산에 대한 제사이다. 제사란 본래 원시적인 문명 단계에서 귀신에 대한 숭배 행위에서 출발한 종교적 행위의 하나이다. 이것이 문명이 발전하고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정치권력과 제사행위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봉건사회 통치 질서의 기반이 되는 관념과 결부된다. 봉건사회의 역대 왕조는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제사를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인식하였다(박호원, 2013).

고대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크게 하늘, 산천, 시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산천에 대한 제사는 자연신 자체에서 명산대천(名山大川)의 신에 대한 숭배로 전개된다. 산 또는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는 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제사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대상이 임의적인 산천에서 특정 산으로 점차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산천에 대한 제사는 당시 농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농경에 필요한 기상의 변화가 하늘의 조화에 달려있고 산천의 신을 통해 하늘과 통한다고 믿었던 것이다(김갑동, 2008).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는 대상이 명산대천이거나, 제사는 지내는 장소가 산이었던 것이다.

고대 국가의 산악숭배 제사는 『삼국사기』, 중국 고문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자료가 제한적이다. 먼저 『삼국사기』 잡지(雜誌) 제사(祭祀)조의 기록이 참조된다.

“후한서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귀신·사직·영성에 제사지내길 좋아한다. 10월에는 하늘에 제사지내면서 크게 모이니, 그 이름을 동맹이라 한다. 그 나라 동쪽에는 대혈이 있어 수신이라 부르는데, 역시 10월에 맞이하여 제사지낸다고 하였다.”¹³⁾

『삼국사기』 권45, 열전 온달(溫達)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고구려에서는 매년 봄 3월 3일마다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하였는데,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¹⁴⁾

중국 『구당서(舊唐書)』동이열전 신라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짝막한 문구가 확인된다.

“산신에게 제사하기를 좋아한다.”¹⁵⁾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에서 제사가 나오는 용례는 주로 하늘과 시조에 대한 내용이고 산천 제사는 아래처럼 드문드문 보인다.

8대 고이왕 10년(238) 1월, “큰 단을 세우고 천지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¹⁶⁾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는 백제본기보다 산천에 대한 제사 내용이 좀 더 보인다.

산상왕 7년(203) 3월, “왕이 자식이 없어 산천에 기도를 했다.”¹⁷⁾

첨해왕 7년(253), “5월부터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조묘 및 명산에 기도하였다

13) 『三國史記』 卷32, 雜志1, 祭祀, “後漢書云 高句麗好祠鬼神·社稷·零星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號綏神 亦以十月迎而祭之.”

14) 『三國史記』 卷45, 列傳, 溫達, “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

15) 『舊唐書』, 東夷列傳. 新羅, “好祭山神.”

16)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設大壇 祀天地山川.”

17) 『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 4, “王以無子 禱於山川.”

니 비가 내렸다.”¹⁸⁾

평원왕 5년(563), “크게 가뭄어 왕이 평소의 음식을 줄이고 산천에 기도하였다.”¹⁹⁾

이처럼 풍년, 기원, 기우 등을 위해 산천에 제사를 지내던 양상이 통일신라에 들어온 이후 변화를 맞는다. 사전(祀典)의 성립이다. 사전이란 국가의 공식적인 제사 대상을 수렴하여 의례화한 규범으로서, 그 비중에 따라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등차를 둔 제사체계를 말한다. 그뿐 아니라 이런 사전의 성립에는 각 등급의 차이에 따라 세부적인 의례 절차도 갖추어지게 마련이다. 즉 제단의 규모라든가 제물의 진설, 제의 진행 방식, 제기의 종류, 희생(犧牲)의 사용, 축문과 같은 예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박호원, 2013).

신라의 제사는 『삼국사기』 권32, 잡지에 다소 상세하게 실렸다. 먼저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제사를 구분한 점은 제사 규범과 절차, 양식이 상당히 진전됐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천자는 하늘과 땅·천하의 명산과 대천에 제사지내며 제후는 사직과 자기 땅에 있는 명산과 대천에 제사지낸다”²⁰⁾고 하였다.

신라에서 이처럼 산에 대한 숭배가 소위 삼사(三祀)라는 제전으로 나타나는데 대사는 삼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제사로 삼산신(三山神)이라 하는 호국신에 지내는 제사이다. 이 삼산신은 신라 건국시기의 시조 탄강지(誕降地)라고 여겨진다. 중사는 오악(五岳)·사진(四鎭)·사해(四海)·사독(四瀆)과 표제가 없는 산(山), 성(城), 진(鎭)에 지내는 제사다. 그 중에서 오악의 숭배가 기본이었다. 소사는 전국의 신령스러운 명산 24개소에 지내는 제사였다(문경현 등, 1991).

18)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 2, “自五月至七月不雨 禱祀祖廟及名山 乃雨.”

19)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夏大旱 王減常膳 祈禱山川.”

20) 『三國史記』 卷32, 雜志, 祭祀, “又曰天子祭天地天下名山大川 諸侯祭社稷名山大川之在其地者.”

<표Ⅱ-1> 신라 사전의 주요 제사

大祀(三山)	奈歷, 骨火, 穴禮
中祀(五岳)	吐舍山, 地理山, 雞龍山, 太伯山, 父岳
小祀	霜岳, 雪岳, 花岳, 鉗岳, 負兒岳, 月奈岳, 武珍岳, 西多山, 月見山, 道西城, 冬老岳, 竹旨, 熊只, 岳髮, 于火, 三岐, 卉黃, 高墟, 嘉阿岳, 波只谷原岳, 非藥岳, 加林城, 加良岳

출처: 삼국사기 권 32, 잡지에서 발췌해서 연구자 작성.

신라의 삼산신·오악 신앙은 통일에 따라 확대된 영토에 대한 관심이 반영됐으며, 게다가 전국에 걸친 여러 산이 통일신라의 사전에 등재되어 국가 제사의 대상이 된 것은 기존 전통적인 산신신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화된 의례 대상으로 수용된 사실을 가리킨다(박호원, 2013).

이런 신라의 산천제사에서 중국의 오악 개념을 받아들인 것 같다. 중국 당나라와 교류를 통해 통치권 상징으로서 오악 숭배의 의미를 인지한 신라에 쉽게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유서 깊은 명산인 태산(泰山), 화산(華山), 형산(衡山), 항산(恒山), 숭산(嵩山)을 말한다. 오악은 중국 고대 산악숭배로부터 시작된 숭배의 중심에 있다. 특히 진(秦)·한(漢) 이래 거행한 영토의 상징으로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었고, 유가 사상 그리고 도교 및 민간신앙의 요람이자 종교적 성산으로 인식되었다(오수경, 2013).

이처럼 고대 국가에서는 산을 기반으로 한 개국신화, 탄생설화가 내려오고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를 중시 여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사를 통해 나라의 안위, 비, 풍요를 기원했으며 제사를 수시로 지냈다. 삼한을 비롯해 신라, 백제와 활발히 교류를 한 탐라와 그 지배층에서도 이 같은 산 숭배 사상과 제사의식을 수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2. 탐라시대 한라산 인식

1) 탐라의 성립과 전개

탐라 최고 지배자에 대해 국주(國主), 왕(王) 이라 칭한 기록을 통해 당시 탐라에 정치적 지배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왕 밑에는 왕자(王子)²¹⁾가 있어 왕을 대신해 외교사절로 해외에 파견되었다. 이러한 호칭은 적어도 탐라 내부에 위계체계를 갖춘 지배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탐라 사회는 계층화된 사회였으며 외부와의 교류를 함으로써 초기 형태의 국가를 이루었을 것이다(국립제주박물관, 2018).

고고학계에서는 탐라에서 지배적인 정치체 출현을 용담동 고분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적의 철기부장묘(鐵器副葬墓)는 적석묘역을 구획하고 목관을 안치한 적석목관묘(積石木棺墓)로 상정되었다. 묘광 내부와 주변에는 철검과 주조철부(鑄造鐵斧), 철모(鐵矛), 철촉(鐵鏃), 꺾수문(蕨手文·고사리문양)철기 등 무기와 공구류를 부장하였다. 영남지방 철기류와의 비교 검토 결과 대략 3세기 전반-중반경에 적석목관묘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꺾수문 장식의 철제장검은 철을 매개로 한 유통과정에서 진한(辰韓), 변한(弁韓) 세력과의 교류를 통해 수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읍락(邑落)수준의 취락을 통제하고 대외교류의 권한을 장악한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해석됐다(김경주, 2012; 국립제주박물관, 2018).

강창화(2014)는 용담동 철기부장묘를 근거로 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수장층이 성장하고 거점취락이 확장하는 위계화 초기사회를 설정했다. 고수미(2021)는 용담동 철기부장묘에서 보이는 철기 부장품들이 철 생산이 불가능했던 탐라가 변·진한 지역에서 철을 수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탐라인들이 해양교류에 필요한 선박제조기술과 항해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과 경제력을 소유한 집단이 도내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봤다.

탐라의 정치세력은 한(漢)-낙랑(樂浪)-삼한(三韓)-왜(倭)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21) 왕의 아들이 아니라 지배계층의 호칭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역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진문물을 도입하고 지역 내 수장층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김정주(2013)는 그러한 최고 수장층의 무덤이 바로 용담동 철기부장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무덤에 부장된 다양한 철제무기(그림Ⅱ-1)와 공구류 및 중국제 유리구슬은 권력의 상징이며 상위 지배계층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Ⅱ-1> 용담동 철기부장묘의 철제 장검
출처: 국립제주박물관, 2018.

김정주(2013)는 또한 한식 거울과 본뜬거울, 철제 무기류 등은 변·진한 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또한 마한(馬韓)과 변·진한 지역의 토기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삼한지역과의 지속적인 대외교역 결과로 해석하고 고대 탐라사회 수장층은 낙랑은 물론 삼한의 정치세력과도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진영일(1994)은 탐라의 대외교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론했다. 제주시 산지항에서 출토된 다량의 중국 한대 화폐 등의 유물²²⁾을 바탕으로 탐라국은 백제, 신라에 종속되어 움직인 수동적인 나라였던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해역권에서 무역에 적극적이고 기동성 있게 참여하여 재부(財富)를 축적했으며 이것을 통하여 나라의 위계용 문물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무역국으로 상정했다.

고고학적 유물 외에 탐라의 용례가 문헌상으로 공식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

22) 1928년 제주시 산지항 부두 공사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로 중국제 화폐와 거울, 일본계 동경, 한국제 동검 부속구 등이 한 지점에서 나온 것은 당시 제주도의 원거리 무역을 실상을 보여주는 해석이다.

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백제본기 문주왕 2년(476) 4월에 탐라의 기록이 있다.

“탐라국이 토산물을 바치므로 왕은 기뻐하여 그 사자에게 은술의 벼슬을 주었다.”²³⁾

탐라 사자가 백제 관위인 ‘은술’²⁴⁾을 받았다는 점은 탐라에 위계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탐라가 토산물을 바쳤다는 것은 당시 탐라의 지배층이 적극적으로 대외교류를 했다는 문헌적 증거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탐라가 백제를 방문해서 토산물을 바치려면 해상 교통수단인 선박의 건조 및 항해술이 필요했고 탐라 내부에 토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기술이 존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시기에 탐라에서는 위계질서가 상당히 진전됐으며 지배층의 권력행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으로 보면 탐라는 대외적으로 백제라는 왕권국가의 왕조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대내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탐라는 5세기 후반에 새로운 지배층인 왕·국주 혹은 성주(星主)가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마한 소국의 신지(臣智), 또는 군장(君長)쯤 되는 신분에 비견된다. 대외적으로 안정된 지배층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이것이 처음이다(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

삼국시대 탐라의 문헌상의 기록은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기에 다시 나타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2년(662) 2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탐라국주 좌평 도동음률이 와서 항복하였다. 탐라는 무덕이래로 백제에 신속했던 까닭에 좌평이란 관호를 칭한 것인데, 이에 이르러 신라에 와서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²⁵⁾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보면 탐라가 긴밀하게 백제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전개

23)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24) 백제의 십육 관등 가운데 세 번째 등급으로 공복은 자색이고 관에는 은화(銀花)를 장식하였다.

25)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6,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 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했으며 당시 해외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외정세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힘의 균형이 신라로 기울게 되자, 신라와의 교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문헌인 『당회요(唐會要)』의 탐라국 기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탐라는 신라의 무주 해상에 있다. 섬 위에는 산이 있고 주위는 모두 바다에 접하였는데, 북쪽으로 백제와는 (배를 타고) 5일을 갈만한 거리이다. 그 나라 왕의 성은 유리이고 이름은 도라인데, 성황은 없고 다섯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들의 집은 둥글게 돌담을 둘러서 풀로 덮었다. 호구는 8,000 가량 된다. 활과 칼 및 방패와 창이 있었으나 문기는 없고 오직 귀신을 섬긴다. 항상 백제의 지배하에 있었다. 용삭 원년(문무왕1, 661) 8월 조공 사신이 (당나라에) 이르렀다.”²⁶⁾

이 기록은 탐라의 내부 상황과 대외 교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적 증거이다. 먼저 탐라에 5개 부락은 섬 전체의 모습인지, 아니면 한라산 북부의 주거지 밀집 지역만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을 구분이 확실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왕이라는 호칭은 지배층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용어이고 활, 칼, 창, 방패 등의 단어는 자체 군사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사신이 당나라에 이르렀다는 점은 선박 항해술이 발전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직 귀신을 섬긴다”는 내용은 탐라의 제사와 관련한 귀중한 기록으로, 후술한다.

이 기록의 호구 8,000여명은 당시 탐라의 인구로 볼 수 있다. 중국 『삼국지』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한(韓)조에 마한은 50여국의 총호수가 10만여호이었으며, 변·진한 24국의 총호수가 4만~5만호가 되었다 한다. 삼한을 통틀어 보면, 한나라의 평균 인구수는 약 1만명선이 된다. 이에 비교해 보면, 탐라국은 삼한 70여국의 평균 보다 약간 인구수가 모자라는 하나의 소국이었다(진영일, 1994).²⁷⁾

26) 『唐會要』 卷100, 耽羅國, “耽羅 在新羅武州海上 居山島上 周迴並接於海 北去百濟可五日行 其王姓儒李 名都羅 無城隍 分作五部落 其屋宇爲圓牆 以草蓋之 戶口有八千 有弓刀楯稍 無文記 唯事鬼神 常役屬百濟. 龍朔元年(661)八月, 朝貢使至.”

27) 이 인구 채록은 단지 10세기 이전의 것이라는 것 이외에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호구가 호수와 인구 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애매하다. 진영일은 통상 ‘구’자가 붙으면 인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일단은 인구로 파악했으며, 고려사 기록을 근거로 고려 초

일본 문헌에도 탐라가 등장한다. 『일본서기(日本書紀)』 계체기(繼體紀) 2년(백제 무녕왕 8년·508) 12월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남쪽 해중의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와 통교하였다.”²⁸⁾

또한 『일본서기』 제명기(齊明紀) 7년(신라 문무왕 1년·661) 5월에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탐라가 처음으로 왕자 아파기 등을 파견하여 공헌하였다.”²⁹⁾

이들 사료를 종합해 볼 때, 5세기에 백제와 조공관계를 맺었으며 백제가 멸망하자 7세기 신라 문무왕 때는 신라에 항복하여 조공관계를 맺었다. 또한 탐라가 일본에 왕자 아파기를 파견했다는 기록 외에도 『일본서기』에 “탐라가 왕자 고여와 함께 공물을 보냈다”³⁰⁾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7세기에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을 알려준다.

이상의 문헌과 고고유물을 통해 탐라는 5-7세기에 ‘국’ 형태의 불평등 사회였음은 분명하다. 이 시기 지배체제는 국왕의 단일 지배체제인지 아니면 ‘성주’, ‘왕자’, ‘도상(徒上)’ 등으로 불리어지는 지배계급의 집단 지도체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공관계를 통해 대외교류를 활발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한라산 인식

탐라의 지배층이나 지배체제가 산 즉 한라산 인식이나 숭배의 방식, 표현의 양상에 대한 기록은 문헌상에서 좀처럼 확인이 되지 않는다. 제사를 지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일부 확인이 되지만 대상이 하늘, 산, 시조인지 아니면 자연신인지

10세기경 탐라국의 인구는 대략 8,000명 정도라고 추정했다.

28)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2년 12월, “南海中耽羅人 初通百濟國.”

29)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7년 5월,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

30) 『日本書紀』 卷 27, 天智天皇 5년 1월 11일, “耽羅遣王子姑如等貢獻.”

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탐라는 삼한, 백제, 신라, 왜와 활발한 문물교류를 하면서 제사의식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탐라의 산 숭배의 여부는 『고려사』 지리(地理)의 탐라현 기록에서 보이는 ‘삼신인의 탄생’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탐라현은 전라도의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그 고기에서 말하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었는데, 세 신인이 땅으로부터 솟아 나왔으니(그 주산의 북쪽 기슭에 구멍이 있는데, 모흥이라고 한다. 이곳이 그 땅이다), 맏이는 양을나라고 하였고, 그 다음을 고을나라고 하였으며, 셋째는 부을나라고 했다. 세 사람은 거친 땅에서 사냥질을 하면서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 하루는 자주색 진흙으로 봉해진 나무 상자가 바다에서 떠다니다 동쪽 바닷가에 닿은 것을 보고 가서 열어보니, 상자 안에 또 돌 상자가 있었으며, 붉은 띠와 자주색 옷을 입은 사자 한 사람이 따라 나왔다. 돌 상자를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망아지, 송아지들과 오곡의 종자가 나왔다. 사자가 ‘우리는 일본국의 사신입니다. 우리 왕이 이 세 딸을 낳고는, 서해의 중악에 신자 세 사람이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구나 하고는 저에게 분부하여 세 딸을 모시고 여기에 오도록 한 것입니다. 마땅히 배필로 삼아 대업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한 후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³¹⁾

주목할 부분이 ‘서해의 중악(中嶽)에 신자(神子) 세 사람이 내려와...’라는 부분이다. 하늘에서 산을 통해서 내려온 신인이 나라를 건립한다는 고대 국가의 신화의 전개방식과 유사하다. 천(天)-지(地)-인(人)의 연결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시조가 탄생한 산을 신성시하는 산 숭배 사상이 담겨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내용을 전하는 ‘고기(古記)’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면 당시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을 옮겨 적은 것이다.

이를 기록한 시기가 조선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고대 탐라와 시간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을 근거로 탐라의 지배층에게 한라산의 산신과

31) 『高麗史』 卷57, 志 卷11, 地理2, “耽羅縣 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 從地聳出 【其主山北麓, 有穴曰毛興,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 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 命臣侍三女 以來爾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시조신에 대해 송배의 사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이 삼신인의 탄생신화, 뒤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탐라의 대외교류 등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적고 있다.

탐라의 산 송배는 이외 다른 기록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탐라의 대외교류를 살펴보면서 간접 증거를 확인 할 수 있다. 탐라가 1-3세기 낙랑-삼한-왜로 이어지는 교역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진·변한 계통의 위세품(威勢品)이 출토되는 까닭은 탐라국이 이들 간 교역체계에 능동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 제주산 토기가 출토되고 있는 한반도 남부지역을 주 교역범위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는 탐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필요한 물자 확보 및 수장층의 정치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위세품 등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교역활동의 결과였다(고수미, 2021).

진영일(1994)은 5세기후반-10세기 탐라는 그 교역활동 범위를 고구려, 중국, 일본까지 미치고 있었다고 봤다. 무역은 재부(財富)축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동반하는 정보교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탐라는 무역을 통해서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대외정보를 잘 이용하여 그 국제적 위상 높였다고 해석했다.

이런 해외교류에서 중국인에게 탐라의 국제적 위상은 백제, 왜 등과 대등한 것으로 표현됐다. 중국 문헌에서 이런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중국 『신당서(新唐書)』 유인궤³²⁾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태산에서 봉선할 적에 유인궤가 신라·백제·담라(탐라) 및 왜의 추장을 거느리고 모임에 참가하자 천자(高宗)는 기뻐하며 대사헌에 발탁하였다.”³³⁾

중국 『자치통감(資治通鑑)』에도 유사한 기록이 있다.

“유인궤가 신라·백제·탐라·왜국의 사자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돌아가 (탐라국은 담라라고도 하며 신라의 무주 남쪽 섬 위에 있는데 처음에 백제에 속하였다가 뒤에

32) 유인궤(劉仁軌, 602-685)는 중국 당나라의 무장이다. 용삭 3년(663년) 9월, 당의 수군을 이끌고 백강에서 왜국 등과 네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33) 『新唐書』 卷108, 列傳33 (劉仁軌), “及封泰山 仁軌乃率新羅·百濟·僭羅·倭四國酋長赴會 天子大悅.”

신라에 속하였다) 태산에 모이어 제사지내었다.”³⁴⁾

또한 중국 『당회요』에도 유사하게 적고 있다.

인덕 2년(신라 문무왕 5년·665) 8월 “유인궤는 신라·백제·탐라·왜인의 네 나라 사신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돌아가 태산에서 제를 지냈다.”³⁵⁾

이 기록을 보면 탐라는 신라, 백제와 같이 대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행사에 참여했다는 점은 탐라가 당시 제사 의식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당회요』에서는 탐라가 제사의식을 지냈다는 중요한 문구가 적혔다. 전술한 내용에도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주목하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활과 칼 및 방패와 창이 있으나 문기는 없고 오직 귀신을 섬긴다.”³⁶⁾

여기서 ‘귀신’을 섬긴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 삼한 등에서도 귀신의 용례가 나온다. 먼저 중국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 마한(馬韓) 기록이 참조된다.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중략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별읍이 있으니 그것을 소도라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³⁷⁾

34) 『資治通鑑』 卷201, “劉仁軌以新羅·百濟·耽羅·倭國使者浮海西還(耽羅國 一曰儋羅 居新羅武州南島上 初附百濟 後附新羅) 會祠泰山.”

35) 『唐會要』 卷95, “麟德二年(665) 于是帶方州刺史劉仁軌領新羅·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赴大山之下.”

36) 『唐會要』 卷100, 耽羅國, “有弓刀楯稍 無文記 唯事鬼神.”

37) 『三國志』 魏書 30, 東夷傳, 韓,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羣聚歌舞 飲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삼국사기』에 실린 내용에 대해서는 전술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내용과 추가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북사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사 드리고, 음사가 많다. 양서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거하는 곳 왼쪽에 큰 가옥을 세우고 귀신에게 제사지내며, 또는 영성·사직에 제사지낸다고 하였다.”³⁸⁾

탐라, 마한, 고구려에서 나온 ‘귀신’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제사의 대상이 달라진다. 마한 기록에서는 귀신을 천신(天神)의 유형으로 봤지만 탐라, 고구려 기록에서는 음사(淫祀)의 귀신 성격이 강하다. 이 귀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박호원(2013)은 마한 제사 의례의 실시 시기가 5월과 10월이라는 점에서 농경 의례로 간주했다. 따라서 이때 제사의 귀신이란 농경과 관련된 신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귀신은 천군이 주재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천신으로 이해했다. 다만 별읍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의 신격은 분명치 않다.

데이비드 메이슨(2003)은 귀신은 두가지 요소, 즉 ‘귀(鬼)’와 ‘신(神)’을 합성한 존재로 신체를 가진 인간과 완전한 존재인 신(神)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로 보기도 했다. 귀신을 어느 특정한 신격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토착신에 대한 범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도 있다(박호원, 2013).

귀신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록자 관점도 고려의 대상이다. 중국의 기록자 시선에서 볼 때 변방의 소국에서 지내는 제사를 천하고, 미개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하늘에 대한 제사는 중국만이 지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제사를 모두 귀신에게 지내는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면 탐라의 귀신에 대한 성격을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산천의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산천의 신은 곧 한라산으로 직결된다. 물론 귀신이 자연신 성격을 갖고 있겠지만,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전지전능한 신격으로 한라산을 상징할 수 있다. 비가 많이 올 때면, 엄청난 양이 하천

38) 『三國史記』 卷32, 雜誌1, 祭祀, “北史云 高句麗 常以十月祭天 多淫祠. 梁書云 高句麗 於所居之左 立大屋 祭鬼神 又 祠零星·社稷.”

물이 굉음을 내면서 쏟아져 내리는 근원지가 한라산이고, 이 때문에 탐라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경외의 대상이라는 점은 당연한 추론일 것이다.

3) 인식의 표현: 제사의례

문헌이외에 탐라에서 제사를 지낸 고고학적 증거는 간헐적이지만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주 서귀포시 화순리유적의 옹관묘가 위치한 2호 집석유구(集石遺構)³⁹⁾에서는 다수의 토기편과 잔자갈, 동물뼈 등이 혼재되어 확인되어 있어 석재의 배치상태와 잔존상태로 보아 대형석재(제단)를 중심으로 의례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추정되고 있다(김경주, 2019).

제주시 용담1동 311번지 통일신라시대 유적⁴⁰⁾은 탐라시기 제사의 결정적 증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적 발견지점은 제주향교 서쪽 능선으로 금동제·철제(도끼, 화살촉)·과대(鎊帶)·금구(金甌)는 모두 16점이 확인되었다. 유리구슬, 동제순가락, 방추차 등도 나왔고 청동제 순가락은 경주 안압지 등에서 출토된 순가락과 같은 것이다. 용담동유적의 출토 토기는 대체로 8-9세기에 해당하며 역사적으로는 탐라국이 신라와의 실질적인 부庸(附庸)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도기는 모두 제주도산이 아니고 특별한 의식행위와 관련된 장소로 보인다. 이 유적은 특별한 의례를 목적으로 하여 당시 고급 그릇인 도기만을 폐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시, 1993).

이 유적에서 출토되는 나팔형의 목긴 병, 금동제 허리띠장식, 유리구슬 등이 모두 고급유물이라는 점이다. 금동제 허리띠 장식은 단언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는 경주지역이나 다른 신라지역에서 확인된 바 없어 중국 당나라와의 직교를 통해 들여온 물품일 가능성도 있다. 즉 단순하게 폐기할 수 있는 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사행위를 행한 후 폐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탐라의 활발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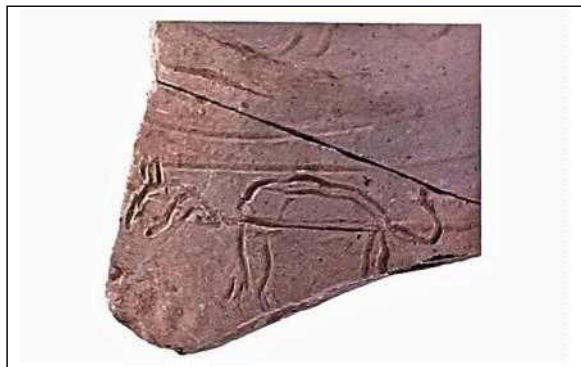
39) 신석기시대의 특징적인 시설물로 돌을 한두 겹 깔아서 만든 유구이다. 간혹 다량의 돌을 여러 겹 쌓아서 만든 경우가 있어 적석유구(積石遺構)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불 맞은 흔적이 남았거나 고열로 인해 돌이 깨진 경우도 있다. 깨진 돌을 이용했다는 의미에서 할석유구(割石遺構)라고도 한다.

40) 발굴 조사는 1993년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청동제 유물과 철제 화살촉·과상밀 집대호·금동제 허리띠 장식·주름무늬병, 유리구슬과 철제 유물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그릇은 모두 통일신라 토기인 회색 도기로 병과 항아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외교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 의례 행위는 아마도 제사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탐라국의 활발한 조공외교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해석이다(강창화, 2014; 2015).

이 유적은 제주 앞 해안이 훤히 조망되는 주변보다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으며 제기(祭器)로 많이 쓰이는 장경병(長頸瓶) 등의 병류와 호류만 출토되었고 생활용기인 발, 완, 대접, 시루, 반, 동이 등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주변에서 특정시설물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유적으로 변산반도 자락에 위치한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이 있다. 바닷가에 바로 인접한 언덕에 고급 도기와 제사장이 사용했던 각종 장신구들이 깨어지거나 폐기된 상태로 출토되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강창화(2015)는 용담동 제사유적 역시 해양제사유적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 용담동 유적 출토유물 중에는 말무늬토기편 1점(그림Ⅱ-2)이 있다. 장경호(長頸壺)의 과편 길면에 동물문양이 음각되어 있는데 두 개의 귀, 네발 쳐올린 꼬리, 몸체의 형태로 보아 말(馬)을 묘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토기 역시 제사를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림Ⅱ-2> 말 그림이 그려진 토기

출처: 국립제주박물관, 2018.

고대로부터 말은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천마(天馬)라고 하여 하늘과 교통하는 신성한 영물로 여겨왔다. 무속에서는 말을 무신(武神)으로 여겨 마제(馬祭)를 지냈으며 민간에서는 쇠나 나무 등으로 말 모양을 만들어 수호신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처럼 말은 새와 함께 승천하는 영혼의 조력자로서 피장자의 영혼을 싣고 승천한다는 신앙적 상징물로 제작, 사용한 것으로 믿어진다(장제근,

2002).

이처럼 중국 『당회요』와 용담동 유적, 유물의 내용 등으로 보면 탐라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회요』에 기록된 귀신이 고구려나 마한의 귀신과 같은 성격이라면 산천을 비롯한 토착신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양맥족, 고구려족, 부여족이 각각 정착해서 3부족 연맹왕국으로서 탐라국을 건설했다는 신용하(2001)의 가설을 상정한다면 탐라 지배층이 섬긴 귀신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산 또는 산천의 신일 것이다.

탐라가 섬긴 귀신을 추정하는데 김상헌(金尙憲·1570-1652)의 『남사록(南槎錄)』에서 주목할 만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당신을 매우 숭상한다. 표해록에도 또한 말하기를, 뱃사람들은 최공이 바다에 표류하게 된 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여 그 탓으로 돌렸다고 했는데 민속이 음사를 숭상하는 것은 예전부터이다. 남자 무당이 대단히 많다. 내가 주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객사 밖 민가에서 굿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곧 무당을 잡아오게 하니 일개 거드름 피우는 거만한 남자였다. 이유를 물으니, 이곳 풍속이 예로부터 여자 무당은 없고 대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일은 모두 남자가 합니다고 한다. 이는 틀림없이 신라 화랑의 유풍일 것이다.”⁴¹⁾

신라 화랑의 유풍이라는 표현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다. 화랑을 국선(國仙)이라고 하고 화랑사를 선사라고 하는 것은 무속을 계승한 때문이다(진교훈, 1998). 김철웅(2007)도 신라시대의 선풍(仙風)을 무속신앙에 근거해서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로 해석했다. 김상헌은 그런 풍속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귀신을 숭상한다는 내용과 함께 남사록에 적시된 최부(1454-1504)의 『표해록(漂海錄)』 권1 성종 19년(1488)정월에는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온다.

“안의가 군인들과 함께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신(臣)에게 들리도록 말하기를, “이번 행

41) 『南槎錄』, “酷崇祀鬼 漂海錄亦云 船人以崔公漂海 歸咎於不爲祀神之 故俗尚淫祠 自古而然 又云 男巫甚多 余留州日 開客舍外民家作巫事 卽拿致巫人 一偃蹇男子也 問其故 土俗自古無女巫 凡祀鬼禱神之事 皆男巫爲之云 此必新羅花郎之遺風”.

차가 표류해 죽게 될 까닭을 나는 알고 있었다. 옛날부터 무릇 제주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광주 무등산의 신사와 나주 금성산의 신사에 제사를 지냈으며, 제주에서 육지로 나오는 사람들 또한 모두 광양 차귀 천의 초춘 등의 신사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떠났던 까닭으로, 신(神)의 도움을 받아 큰 바다를 순조롭게 건너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차관은 다만 큰소리를 치면서 이를 그르게 여겨, 올 때도 무등산과 금성산의 신사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떠날 때도 광양 등 여러 신사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 신을 업신여겨 공경하지 않았으므로, 신 또한 돌보지 아니하여 이런 극한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하니, 군인들은 동조하면서 모두 신(臣)을 책망하였다.“42)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옛날부터 바다를 오갈 때 광양 등의 신사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다. 해신(海神)이 아니라 신사에 모신 수호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용담동 제사유적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항해에 앞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바다의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바람을 관장하는 신, 즉 천신이나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 이 때문에 용담동 제사유적을 해신을 모신 해양유적으로 보려면 좀 더 확인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제사를 지냈다는 광양사는 <그림 II-3>와 같이 여러 고지도에 표시된 것을 감안하면 신을 모시는 중요한 장소로서 탐라 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광양당으로도 일컬어진 광양사는 제사의 장소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며 제사의 대상 역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고려시대의 탐라의 지배층은 삼성(三姓)이 탄생했다는 ‘모흥혈’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 광양사에서는 한라산신 또는 토착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2) 『漂海錄』 卷1, “安義與軍人等相與言 使之聞之於臣曰 此行所以至於漂死者 我知之矣 自古以來 凡往濟州者 皆祭於光州無等山祠及羅州錦城山祠 自濟州出陸者 又皆祭於廣壤遮歸川外楚春等祠 然後行 故受神之祐 利涉大海 今此敬差官特大言非之來不祭無等錦城之祠 去不祭廣壤諸祠 慢神不敬 神亦不恤 使至此極 尙誰咎哉 軍人和之 咸咎臣.”



<그림 II-3> 광양사가 보이는 18세기 여지도.

출처: 제주대학교 박물관, 2020.

단편적인 고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유물, 동시대의 국가 교류 등을 바탕으로 탐라의 한라산 인식을 추정한다면 한라산, 산천 등을 포함해 자연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고, 하늘과 맞닿을 정도로 높게 보이는 한라산은 하늘과 연결되는 성산(聖山)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또한 탐라의 조상신이 탄생한 곳으로도 설정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탄강지로 바라봤을 것이다.

제사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안전향해, 기우, 풍년 등이 보편적이다. 탐라의 지배층이 직접 바다로 나갈 때마다 안전운항과 무사귀환을 신(神)에게 제사를 지냈다면, 이 때 신은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상정할 수 있다. 농경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은 산신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집단적인 사냥을 하기 전이나, 한 후에도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전염병이 돌거나 병이 생기면 치병을 위한 제사도 당연히 치렀을 것이다. 탐라 지배층은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제사를 지냄으로써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체의 통일성을 기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용담동 제사유적의 ‘위치’도 제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요소이다. 이 유적은 한라산 북쪽 일대를 가르는 한천과 병문천의 사이에 있다. 해상을 제외한다면 육상에서는 하천이 해자(垓字) 즉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자연적인 요새가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성지(聖地)로 삼을 만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하천의 발원지가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부근이라는 점이다. 이 하천을 따라서 한라산 정상을 오갈 수 있기에 하늘과 산, 인간을 이어주는 곳으로 여겨서 제장(祭場)을 마련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사유적에서의 제사장은 당연히 탐라의 지배층으로 고대 탐라의 지배층은 무당(샤먼)으로 상정할 수 있다. 동시대 고대 국가의 지배층이 무당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남해 차차웅(次次雄)이 무당을 뜻하고, 앞서 신라 화랑 역시 무당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고대 국가의 왕족과 귀족이 샤먼집단의 성격을 지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김성환, 2007).

무당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매개시켜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고대인들은 이들에 대해 경외심과 더불어 복종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대에 이들은 한편으로 제사장이면서 정치적 지배자이기도 하였다(김갑동, 2008).

이상과 같이 본다면 탐라는 2-3세기경에 지배층이 출현했고 5세기에는 정치지배세력이 대외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문호를 넓혔다. 이 과정에서 동 시대의 제사의례를 수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귀신’에 대한 제사는 단편적인 사례이지만 제사의 존재 자체는 분명하다. 제사의 대상은 귀신으로 자연신이자 토착신으로 해석이 되는데 하늘높이 닿는 한라산은 당연히 경배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제사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물품이 다양해진 것을 용담동 제사유적에서 확인된다. 또한 당시 탐라가 통일신라와 조공관계로 교류를 했다는 사실로 본다면 산 숭배가 강했던 통일신라와 같은 맥락에서 산 신앙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3. 고려시대 한라산 인식

1) 산 인식

고려의 산 숭배는 건국의 이념이자 통치의 기반이었다. 태조 자신이 산신신앙과 같은 전통신앙의 신봉자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에 있어 태조는 백성들의 산신신앙을 자신의 통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국 초의 민심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의도를 지니기도 하였다(박호원, 2013).

고려 태조의 산 숭배는 『고려사』 세가 권2, 훈요(訓要) 10조에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삼한 산천의 도움으로 대업을 이루었다.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 연등이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천신과 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 금지할 것이다. 나 또한 당초에 연등과 팔관을 국가 기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군신과 함께 즐기기로 맹세하였으니 마땅히 삼가 이대로 행할 것이다.”⁴³⁾

후삼국의 통일이라는 대업은 산천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을 밝혔다. 즉 산천 숭배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오악, 명산이라는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산 숭배를 표현한 산신신앙을 중시 여겼다. 오악, 명산에 국한해서는 산신제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대천, 용신까지 포함한 것이 산천제이다. 즉 산천제는 산신제를 포함하는 광역의 개념인 것이다.

고려 시대 산천신앙의 전승과 유지에는 호국신앙이 기저에 있었으며, 그리고 이는 '훈요'에 반영되어 역대 왕들에 의해 팔관(八關)의 행사로 중시되었다. 팔관은 고려의 산천제가 토착적인 산 숭배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뜻하며 이 행사는 국초 민심을 결집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였다(박호원, 2013; 김철웅, 2007).

43) 『高麗史』 卷2, 世家 卷2, “三韓山川陰佑 以成大業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建白加減者 切宜禁止 吾亦當初誓心 會日不犯國忌 君臣同樂 宜當敬依行之.”

2) 인식의 표현: 제사의례

고려는 사전을 대·중·소사로 편성해 유교식 제례를 거행했는데 산천제를 ‘잡사(雜祠)’로 구분했다. 신라에서 산이 대·중·소사에 편성되었던 점과는 다르다. 산천제가 잡사로 분류됐더라도 비중이 낮았던 것은 아니다. 기복(祈福)이나 호국제로서의 전통적인 산천제를 유교 제례인 잡사에 포함시킴으로써 군주의 치제(致祭)를 정당화하고 아울러 이들 잡사를 유교 이념의 표출로 간주하고자한 것이다. 나아가 이는 재래의 토속적인 신격들이 국가의 유교적 제사 대상으로 흡수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박호원, 2013).

『고려사』 잡사조에는 현종 2년 2월의 기록을 시작으로 하여, 공민왕 10년 10월까지 모두 15건의 산천제 사례가 전한다. 잡사조의 기록이 고려시기에 실시된 산천제를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거행된 제사가 누락되어 있고, 단지 몇 가지 사례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김철웅, 2007).

<표Ⅱ-3> 고려 사전의 주요 제사

大祀	圓丘·方澤·宗廟·社稷·太廟
中祀	籍田·先蠶·文宣王廟
小祀	風師·雨師·雲師·雷神·靈星·馬祖·司寒·諸州縣 文宣王廟, 雜祀

출처: 고려사 예(禮)지 내용을 발췌해서 연구자 작성.

잡사조는 각종 이변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를 퇴치하기 위한 제사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제사를 연대기 순으로 모아 놓은 잡다한 제사가 아니라 대·중·소사의 체제와 구별되지만 따로 구분을 하지 않았던 고려의 국가제사이다. 잡사로 구분됐던 산천제, 성황제, 초제(醮祭)는 대·중·소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했던 것이다(김철웅, 2007).

고려 시대 산천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국토 수호의 상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방 호족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통치 질서의

상징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려 왕조 산천제의 기능이 국토의 수호신적 의미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산천에 대한 제례에는 풍년을 빌고 비(雨)를 기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이 또한 빈번하게 행해졌던 것이다(신익철, 2001).

고려 산천제에서 산신에 대해 그 능력을 발휘한 보답으로 덕호(德號), 작호(爵號), 훈호(勳號) 등의 봉작(封爵)이나 관직이 수여되었다. 이것은 산신을 인격신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산신은 강우의 능력, 그리고 지역과 국가를 수호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졌다. 산신에 대한 봉작은 신라에서 시작되었는데, 고려에 들어와서는 병란에 따른 공헌이나 순행 후, 그리고 국왕의 즉위나 책봉과 같은 국가 제례, 재변에 대한 조치로서도 행해졌다(김철웅, 2007).

3) 한라산 인식과 표현

고려의 한라산 인식을 확인하려면 먼저 탐라와의 관계를 짚어야 할 것이다. 탐라와의 관계는 팔관회 행사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고려사』 정종 즉위년(1034)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팔관회를 열었다. 왕은 신봉루에 나아가 여러 관리들에게 주연을 베풀고 저녁에는 법왕사로 갔으며, 이튿날 대회에도 다시 큰 주연을 배설하고 음악을 감상하였다. 이 때 송나라 상인들과 동·서번과 탐라국에서도 토산물을 바치므로, 그들에게 좌석을 주어 의식에 참가케 하였다. 그 후부터 이것이 상례가 되었다.”⁴⁴⁾

문종 27년(1073) 11월 12일에도 탐라가 팔관회에 참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왕은 팔관회를 열고 신봉루에 나아가 풍악을 구경하였다. 이튿날 대회에서 송·흑수·탐라·일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제각기 예물과 명마를 바쳤다.”⁴⁵⁾

44) 『高麗史』 卷6. 世家 卷6, “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醕 夕幸法王寺 翼日大會 又賜醕觀樂 東西二京·東北兩路兵馬使·四都護·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東西蕃·耽羅國亦獻方物 賜坐觀禮 後以爲常.”

45) 『高麗史』 卷9. 世家 卷9, “設八關會 御神鳳樓觀樂 翼日大會 大宋·黑水·耽羅·日本等諸國人 各獻禮物名馬.”

기록으로 보면 탐라는 여진(女眞), 왜 등 주변 국가들과 동등한 예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이후 탐라는 고려 숙종 10년(1105)에 군현체제에 속했지만 그렇다고 차별받는 ‘속군(屬郡)’이 된 것은 아니고 ‘국(國)’에서 고려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초래된 독립적인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성주와 왕자가 탐라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였으며, 고려에게는 외국으로 인식되기도 하여 송, 여진 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팔관회에 참여하였다.(김창현, 1998).

고려와 탐라와의 관계와 관련해 팔관회와 더불어 산천에 대한 봉작을 내린 사례도 주목이 된다. 고려가 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라산에 직접 봉작을 내린 용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탐라의 신을 언급한 기록이 있다. 탐라와 연계해서 산천에 대해 봉작을 내린 사례를 『고려사』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종 즉위년(1197) 11월 1일 “국내의 명산대천과 탐라의 신령들에게 각각 존호를 덧붙여주고, 조상들과 역대 명왕들에게 시호를 높여주도록 하였다.”⁴⁶⁾

고종 40년(1253) 10월 3일 “국내의 명산과 탐라의 신기에게 각각 제민 칭호를 더하고 태묘의 9실 및 19릉에 모두 존호를 덧붙여 올렸다.”⁴⁷⁾

원종 14년(1273), “탐라에서 삼별초를 토벌할 때 무등산 신이 은근히 도와준 징험이 있었다 하여 봄 가을로 제사지낼 것을 명하였다.”⁴⁸⁾

충렬왕 3년(1277) 5월4일, “지난번 탐라의 역(삼별초 정벌)에 금성산 신이 은근히 도와준 징험이 있었다 하여 그 지방 관리들로 하여금 해마다 쌀 5석씩을 보내어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⁴⁹⁾

46) 『高麗史』 卷21. 世家 卷21, “國內名山大川及耽羅神祇 各加號 祖聖及歷代名王 加上尊諡.”

47) 『高麗史』 卷24. 世家 卷24, “國內名山及耽羅神祇 各加濟民之號 太廟九室及十九陵 並加上尊諡.”

48) 『高麗史』 卷63. 志 卷17, 禮, “討三別抄于耽羅也 無等山神有陰助之驗 命春秋致祭.”

49) 『高麗史』 卷63. 志 卷17, 禮, “以耽羅之役 錦城山神有陰助之驗 令所在官 歲致米五石 以奉其祀.”

신종과 고종에서는 명산대천과 함께 ‘제민’의 호를 더했다는 내용이고 원종과 충렬왕에서는 탐라의 삼별초 난을 정벌하는데 공헌한 의미로 무등산과 금성산에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내의 명산’과 ‘탐라의 신기’를 구분해서 표현했다는 점이다. 탐라의 신기에 대해 특별히 예우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말을 비롯한 수많은 공물 생산지로서 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 조정이 인식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기록에서 제민의 호를 더한 ‘탐라의 신기(神祇)’를 한라산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하늘의 신(天神)을 신(神)이라고 하고, 땅의 신(地神)을 기(祇)라 하여 신령을 통틀어 뜻하기 때문에 명산대천을 관장하는 탐라의 신들이란 뜻으로 응용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신기를 한라산으로 추정해도 무방하다는 해석도 있다.

『고려사』에서는 한라산이라는 용례를 들어 봉작을 내렸다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 이보다 후대의 기록에서 고려시기 한라산신에게 호를 준 내용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나온다.

“광양당, 주 남쪽 한라 호국신사에 있다. 속설에 전하기를, 한라산신의 아우가 나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었고 죽어서는 신이 되었다. 고려 때에 송 나라 호종단이 와서 이 땅을 제어하고 바다에 떠서 돌아가는데, 신이 화하여 매가 되어서 돛대 머리에 날아올랐다. 조금 있다가 북풍이 크게 불어서 종단의 배를 쳐 부서 서쪽 지경 비양도 바위 사이에서 죽었다. 조정에서 그 신령스럽고 이상함을 포창하여 식읍을 주고 광양왕을 봉하고 해마다 향과 폐백을 내려 제사하였고, 본조에서는 본읍으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하였다.”⁵⁰⁾

한라산신, 또는 그에 버금가는 탐라의 산신은 이 지역에 위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수호신으로서 인식되어 고려 때부터 탐라민에게 숭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탐라의 산신에게 광양왕의 작호가 주어졌고, 일종의

50) 『新增東國輿地勝覽』 38卷, 濟州牧, “廣壤堂 在州南 漢拏護國神祠 諺傳漢拏山神之弟 生有聖德 歿爲神 高麗時 宋胡宗朝來壓此土 浮海而返 神化爲鷹 飛上檣頭 俄而北風大吹 擊碎宗朝之舟 沒于西境 飛揚島巖石間 朝廷褒其靈異 賜之食邑 封爲廣壤王 歲降香幣以祭 本朝令本邑致祭.”

작호가 수여된 뒤 향과 축문을 내려 국가제사가 거행된 것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김일우, 2000)로 보는 입장이 있다.

4. 한라산 이용·관리

1) 목마장

탐라에서 고려에서 이르는 시기, 국가의 한라산 이용은 원시적인 수렵채집에서 목재채취, 목장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수렵과 목재채취 등 자원 확보형에서 목장조성이라는 공간점유 형태로 확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와 개인 경우 탐라 지배층 등장 이전부터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지 주변에서 길렀을 것이다. 말 역시 초기에는 주거지 주변에서 기르다가 중요한 교역품 또는 공물품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사육량이 증가해 사육장소가 점차 한라산 산간지대까지 확장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말 사육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제주시 용담동 유적에서 말이 그려진 토우가 나오고, 후술하는 제주시 괏지리 유적에서 말뼈가 출토된 점으로 보면 탐라에서 말을 사육한 것은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전부터로 보인다. 말을 사육하고 나서, 말의 중요성이 증대된 후로는 탐라 지배층과 고려 조정의 관리를 받게 됐을 것이다.

말을 많이 기르던 탐라의 토착세력 가운데 최고위층은 당연히 성주·왕자였다. 이들은 고려에서 관리가 파견되기 이전부터 고려의 지방지배도 수행하는 존재였다. 말도 이들이 가장 많이 길렀을 것이다. 이들 성주와 왕자는 탐라군에서 탐라현으로 개편되어 외관(外官)⁵¹⁾이 파견되는 의종 7년(1153)경 이후에도 탐라 관할을 맡고 있었다. 즉, 성주·왕자 등의 토착세력은 탐라민이 개별적으로 기르던 말을 세금으로 거둬 국가에 납부하는 마정도 관할했던 셈이라 하겠다(김일우,

51) 경관(京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하는 관리를 뜻한다.

2005).

『고려사』 문헌에 보면 고려 충렬왕 14년(1288)에 “마축자장 별감을 두었다. 이에 앞서 말을 여러 섬에 방목하고 그 중에서 장한 놈을 가려내어 상습에 보충하고 그 나머지는 여러 왕족·중신·문무 관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탐라에서 나온 말이 많았다”⁵²⁾는 기록에서 보듯이 국가에서 말 관리를 중요 업무로 관장했다.

말이 승용은 물론이고 전투용, 수송용 등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성장하고 이에 맞물려 상당한 부의 축적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말의 사육과 생산, 공급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배계층이 관여하거나 중점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말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탐라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고려 때에 이르러서는 전국 어디서나 소를 이용한 밭갈이 농경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편이다. 우마를 이용한 짐 운반도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말은 짐 운반뿐만 아니라 수렵·승마·농경 등의 용도에도 쓰였고 매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딸릴 때는 가격이 폭등하곤 했다(김일우, 2000).

탐라에서 말을 대량으로 사육할 수 있었던 점은 다른 지방과 비교해서 기후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아서 풀 생산량이 많고 연중 방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곡류 생산이 극히 어려웠던 시대에 풀 사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초식동물들이 이 섬에서 번성할 수 있었다(제주도, 2007).

더구나 크고 작은 하천은 말이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담 구실을 한다. 그리고 완만한 비탈을 이루면서 산 정상에 이르는 한라산 지역은 말의 먹이가 되는 풀의 싹트기가 해발 낮은 곳으로부터 정상까지 천천히 올라가며, 시들기는 정상으로부터 해안 낮은 곳까지 서서히 내려온다. 말들은 담 구실을 하는 하천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먹이의 싹트기와 시들기에 따라 이동하기에 절기에 따라 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말을 방목하기에는 천연적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던 것이다(김일우, 2000).

탐라의 말과 관련한 문헌기록을 보면 정기적으로 고려 조정에 말을 보냈고,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사육두수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고려사』 세가

52) 『高麗史』 卷82. 志 卷38, 兵2, “馬畜滋長別監 先是 放馬於諸島 使之蕃息 簡出壯者 以充尙乘 其餘 班賜諸王宰輔文武臣僚 而耽羅之出居多.”

편 고종 45년(1258) 5월 13일 기록이다.

“제주에서 공납한 말과 최의가 기르던 호마를 바치므로 이를 문무 4품 이상의 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⁵³⁾

원종 원년(1260) 7월 9일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주에서 말을 바치므로 동서 4품 이상에게 내려주었다.”⁵⁴⁾

고려시기에 들어 탐라의 말 사육과 공급은 점차 중요한 위치를 점하다가 삼별초의 난으로 일대 전기를 맞게 된다. 여·몽연합군이 탐라의 삼별초를 평정한 원종 14년(1273) 직후, 탐라는 중국 원(元)나라의 직할령화가 이루어졌다. 일본 정벌을 위해 교두보가 필요했던 원으로서 탐라가 최적의 요충지이자 물자 보급지로 판단했다. 한라산의 울창한 산림을 전함 건조에 충당하는 가하면 말 방목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는 것을 간파한 듯하다. 특히 일본 정벌을 위해서는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면 중간 지점인 탐라가 최적의 요충지였던 것이다.

『고려사』 세가편 충렬왕 2년(1276) 8월 25일 기록은 다음과 같다.

“원이 塔刺赤을 탐라 달로화적으로 임명하였는데, 말 160필을 가지고 와서 방목하였다.”⁵⁵⁾

원은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은 후 탐라에 말을 방목했던 것이다. 塔刺赤은 본국 원으로부터 갖고 온 말을 탐라 동쪽 수산평(현재 성산읍 수산리 일대)에 방목했다. 탐라의 말이 번성하자 목장을 확대했으며 원의 목장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기도 했다. 대제국을 건설한 원은 전 영토를 14개의 목마구역으로 나누어 정했는데 동쪽이 탐라였다(남도영, 1996).

53) 『高麗史』 卷24, 世家 卷24, “以濟州貢馬及崔埴所畜胡馬 分賜文武四品以上.”

54) 『高麗史』 卷25, 世家 卷25, “以濟州貢馬 賜東西四品以上.”

55) 『高麗史』 卷28, 世家 卷28, “元遣塔刺赤 爲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四來牧.”

원은 탐라가 방성(房星)⁵⁶⁾이 임하는 곳으로 좋은 방목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탐라의 목마장은 원의 직접 관리를 받으면서 말이 사육되고 확대됐다. 목마장 설치된 초기에는 일본 원정을 대비하기 위해 비축하였던 시기이므로 원 본토로의 말 반출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일본 원정이 끝난 이후 탐라의 말이 원으로 보내졌다는 기록은 『고려사』에서 4건 정도이다(이바른, 2022).

오히려 원이 멸망하고 나서 명(明)나라로 보내진 말이 상당했다. 탐라민과 원의 목자가 우마 등을 기르게 된 이후에는 “말이 크게 번식해 산야에 가득했다”고 할 만큼의 상태가 되었다. 당시 탐라민은 대략 3만여명 정도로 여겨지는데, 말도 이와 맞먹는 2만-3만필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려는 말을 요구했던 명에게 우왕 5년(1379)부터 공양왕 4년(1392)까지 3만여 필의 말을 바쳤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2만필 이상이 탐라의 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일우, 2000).

명이 들어선 이후에도 탐라에는 여전히 원의 목자들이 말 방목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고려 공민왕 시기에 최대 격변의 시간을 맞는다. 『고려사』 세가(世家)편 공민왕 23년(1374) 4월13일 기록에 따르면 명에서 사신을 보내 “사막을 정벌하러 갔을 때 길이 멀어서 말의 손실이 많았다. 이제 대군이 또 정벌하러 간다. 내 생각에 고려국에는 전에 원 조정에서 말 2만-3만필을 제주에 남겨 두고 사육하였으니, 많이 번식하였을 것이다. 중서성은 사람을 파견하여 공문서를 가지고 가서 고려 국왕에 이 뜻을 전하여 그에게 좋은 말 2,000필을 뽑아 보내게 하라”⁵⁷⁾고 하였다.

이에 대해 『고려사』 세가편 공민왕 23년(1374) 7월 12일 기록에 따르면 멸망한 원 출신 목자인 石迭里必思·肖古秃不花·觀音保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찌 감히 세조 황제가 방축 시키던 말을 명에 바치겠는가” 라고 하면서 겨우 300필만을 보내었다.⁵⁸⁾

56) 하늘의 말(天馬)과 수레를 맡은 별로 마신(馬神)을 뜻한다.

57) 『高麗史』 卷44, 世家 卷44, “已前征進沙漠 爲因路途窩遠 馬匹多有損壞 如今大軍又征進 我想高麗國 已先元朝 曾有馬二三萬 留在耽羅牧養 孳生儘多 中書省差人 將文書去與高麗國王 說得知道 教他將好馬揀選二千匹送來.”

58) 『高麗史』 卷44, 世家 卷44, “哈赤·石迭里必思肖古秃不花·觀音保等曰 吾等何敢以世祖皇帝放畜之馬 獻諸大明 只送馬三百匹.”

공민왕은 이들 원 출신 목자들이 말을 제대로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견한 관리까지 살해하는 ‘목호의 난’이 발생하자 최영(崔瑩·1316-1388)을 양광·전라·경상도도통사(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로 삼아 난을 평정했다. 탐라에서 원의 흔적은 지워졌지만 원의 목자들이 전수한 말 사육기술과 더불어 천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말 생산지 명성은 계속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말 목장 조성과 경영으로 인해 한라산 지대의 울창한 산림은 벌목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 중산간지역(해발 200-600m)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대부분 참나무, 서어나무, 느릅나무 등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삼림지대였는데 원이 목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광활한 초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 습지의 화분과 세립 탄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탐라가 고려 군현제로 편입된 1100년 경부터 초지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13세기 말에 이르면 원이 목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화입(火入·불농기)에 따른 대규모 초지가 조성됐다는 분석이다(박정재·진중현, 2019).

인위적인 작용을 가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나지, 초원, 관목류, 산림 순으로 천이가 진행되어 결국 식생의 안정기인 산림으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연적인 천이과정에 개입하여 식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초원으로 남았다. 그 중에서도 식생 변화 및 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목장조성과 경작 등을 위한 화입이었다(제주도, 2007).

원이 몽고말과 함께 보낸 목자의 말 사육관리 기술은 당시 탐라인들에게는 선진 기술이나 다름없었다. 약 100년간 원의 목자들과 탐라인들이 교류하면서 이런 기술이 전수됐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더구나 목장을 관리하기 위해 동·서로 나눈 구역은 고려의 군현 행정구역이 되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특히 원이 한라산 일대에 조성한 목마장은 조선시대 국마장으로 계승되면서 국가의 관리를 받는 제주의 핵심 요소가 된다.

2) 사냥

고대에서 산의 이용 가운데 사냥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식량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동물이 필요했고, 제사에 올리는 제물을 확보하려면 사냥이 필수였

다. 이런 연유로 사냥은 수시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며 사냥감이 서식하는 산은 더없이 요긴한 사냥공간이었다. 탐라의 사냥 기록이 미미하기에 먼저 동시대 주변 나라의 사냥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문헌상으로는 『삼국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이 사냥을 했다는 기사가 여럿 실렸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왕 2년(기원전 18년) 9월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서쪽으로 사냥하러 가서 흰 노루를 잡았다.”⁵⁹⁾

고구려본기 태조 10년(62) 8월에도 사냥 기록이 있다.

“동쪽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흰 사슴을 잡았다.”⁶⁰⁾

고구려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왕이 직접 참가하는 사냥을 정기적으로 벌여온 것이 분명하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사냥 장면(그림 II-4)은 이 같은 중요 행사의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냥목적은 첫째 제례에 쓸 동물을 잡고, 둘째 군사를 훈련하며, 셋째 민정을 살피는 외에 국경을 시찰하고, 넷째 정치적 회합을 여는데 있었다(김광언, 2007). 사냥이 단순히 동물을 잡는데 그치지 않고 이처럼 다양한 의도를 함축하면서 고대국가 왕이나 지배층의 관심사항이었다.

특히 『삼국사기』 기록에서 백제에 비해 고구려에서 사냥에 대한 기록이 상당수가 나온다. 농경지역인 백제와 달리 산악지역인 고구려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록의 동물 표현에서 ‘흰 사슴’, ‘흰 노루’가 등장하는데 ‘희다’는 신령스러운 뜻을 나타낸다. 한라산 백록담의 백록(白鹿)도 이처럼 사냥에서 어원이 비롯됐는지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59)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1, “西狩獲白獐.”

60) 『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 3, “東獵 得白鹿.”



<그림 II-4> 고구려 무용총 벽화 중 사냥모습 모사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 5년(기원전 14년) 10월에 사냥과 관련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쪽 변방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위무하고, 사냥을 하여 신비로운 사슴을 잡았다.”⁶¹⁾

기루왕 27년에 “한산에서 사냥하여 사슴을 잡았다”⁶²⁾는 기록이 있고 고이왕 3년(236년) 10월에 “서해에서 사냥을 하여 사슴 40마리를 잡았다”⁶³⁾는 내용이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마이사금 원년(112) 10월에 “지마이사금이 왕이 되었다.... 파사왕의 적자이며, 어머니는 사성 부인이다.... 처음 파사왕이 유찬의 못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태자가 따라갔다”⁶⁴⁾는 기록이 있고, 헌강왕 5년(879) 11월에

61)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1, “巡撫北邊 獵獲神鹿.”

62)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1, “王獵漢山 獲神鹿.”

63)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2, “王獵西海大島 手射四十鹿.”

6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1, “祇摩尼師今立 或云祇 婆娑王嫡子 母史省夫人 妃金氏愛禮夫人 葛文王摩帝之女也 初婆娑王獵於楡澗之澤 太子從焉.”

는 “왕이 혈성의 벌판에서 사냥하다”⁶⁵⁾는 짝막한 기록이 있다..

이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에게 사냥은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였으며 탐라역시 유사했을 것이다. 탐라에서 사냥의 근거는 동물 뼈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2014년에 한국문화재재단이 발굴한 광지리 2030번지에서 나온 동물 뼈 연대는 8세기 후반 이후로 추정되고 있는데 사슴, 노루, 소, 돼지, 말, 오소리, 개 등 7종의 존재가 확인됐다. 동물 뼈의 수는 1,393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슴으로 625점이 나와 44.8%의 점유율을 갖는다. 사슴은 본래 야생의 짐승으로 가축화하기가 힘든 성격임을 볼 때 동물의 소비에 있어서 가축화된 짐승 못지않게 사냥에 의존하여 생활했다고 볼 수 있다(조태섭, 2017).

탐라에서의 사냥 물품은 중요한 교역 물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해안 늑도에서는 총 5,000여점의 포유류 뼈가 출토됐는데 그 가운데 85%가 사슴이다. 늑도와 같이 작은 섬에서 이처럼 많은 사슴이 서식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당시 토기 출토유물 등으로 본다면 탐라에서 삼양동식 토기에 담겨 사슴이 반입됐고 그 대가로 한국식 동검 같은 위세품이 교류됐을 것이다(이동관, 2018).

사냥에 쓰인 도구로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유적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 이후부터 통일신라시대 유물까지 폭넓게 분포하는데 발굴 철기는 총 83점으로 크게 무기류와 농구류, 장신구, 철제용기, 다용도철기 그리고 기타 철기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형태로 확인된 소수의 무기류와 농구류 그리고 다용도 철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편으로 출토되었다.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된 철촉(鐵鏃)은 도자(刀子)형 철촉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철촉의 형태변화는 비거리·관통력·살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변화되어 왔다고 알려져 있다(한국문화재재단, 2015).

고고학계에서는 종달리 유적지 일대는 탐라시대 최대 무역근거지로 상정하고 있는데 무역을 하려면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무력을 갖춰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 철제 무기는 당시 무역을 장악한 탐라 지배층의 군사력으로 사용했을 것이고, 한라산에서 사냥을 겸해서 군사훈련이 이뤄졌을 것이다.

탐라가 군사력을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백강전투⁶⁶⁾’에서 살펴볼 수

65)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11, “獵穴城原.”

66) 백제가 멸망한 뒤인 663년에 백제 부흥군과 왜의 연합군이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맞서 백강에

있다. 백제의 부흥운동이 벌어진 663년, 이른바 백강전투가 해상전의 양상을 띠면서 벌어지고 대다수의 함선들이 격돌해 2만7,000여 명이 전사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중국 당회요 등에는 유인궤가 신라, 백제, 탐라, 왜 등 4국의 추장(酋長)을 거느리고 태산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윤명철(2013)은 이 전투에서 백제에 속한 탐라국이 군사력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만일 그렇다면 탐라의 군사들은 전술한 철제 무기를 들고 한라산에서 사냥을 하면서 훈련을 했었을 것이다.

탐라 지배층이 행한 사냥은 유물과 자료로 추론이 가능한데 탐라의 섬에는 호랑이, 늑대와 같은 맹수가 없어서 사슴, 노루가 서식하고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 초식동물들은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교역의 중요 물품, 공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은 노루와 사슴을 포획하는 핵심 공간이었으며 고대 사냥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행했을 것이다. 사냥은 한꺼번에 포위하는 방식에서 몰이와 포획 등의 역할을 나눠서 방식으로 전개됐으며 포획무기도 도끼에서 철제 화살과 창 등으로 발전한 것이 사냥역사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3) 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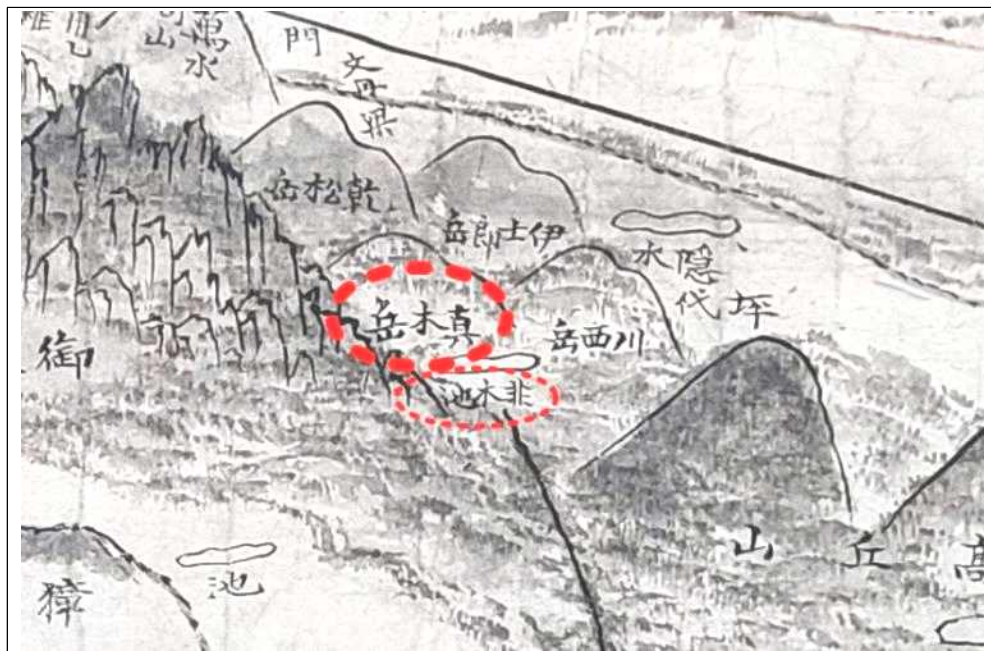
탐라시대에 목재 관련 문헌기록은 물론 관련 유물도 빈약한 상황이지만 제주시 외도동 유적⁶⁷⁾에서 단편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유적은 석축, 우물, 작업공간, 주거공간 등으로 초기 탐라 지배층의 존재를 암시하는 유물이 분포해 있다. 제주시 외도1동 154번지 일대 면적 790m²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물 3기와 수혈유구(竪穴遺構) 13기, 외도동식 토기, 석기류 등이 2-3세기 유적의 일부로 확인되었는데 우물의 목재를 조사한 결과 주목나무류로 밝혀졌다(한국문화재재단, 2014).

제주시 외도1동 131-1번지 다가구주택 및 사무소 신축부지내 유적의 8호 및 31호 수혈에서 출토된 수침(水沈)목재의 수종을 분석한 결과는 비자나무와 잣밤나무류로 판명됐다. 1983년 전남 완도 어두리에서 인양된 고려 초기의 화물운반

서 벌인 싸움이다. 백강 전투에서 이긴 신라는 이후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게 되었다.
67) 탐라성립기의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2001년, 2002년 등에서 발굴 작업이 이뤄졌다.

선 선체의 밑바닥 일부와 완도 장좌리 청해진 유적지의 나무 울타리, 4-6세기 무덤으로 알려진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나온 관재(棺材)의 대부분은 비자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재나 배의 재료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탐라시기 비자나무 사용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제주고고학연구소, 2019).

주목은 수직적으로 해발 700-2,000m 사이에 분포하는 상록침엽수 교목인데 반해 비자나무는 150-700m 사이의 지역에 분포하는 상록교목이며 잣나무류는 해발 600-700m 이하에 자라는 상록활엽교목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종이 식생할 수 있는 교집합 지역은 해발 700m 내외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도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해발 700m 내외에 천아오름이 있다는 점이다. 천아오름은 <그림 II-5>와 같이 조선삼읍도총지도에 진목악(眞木岳)이라고 표기되고 있다. 진목은 참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수리나무의 별칭이다. 진목악 표기 밑에는 ‘비목지(非木池)’라는 표기가 보이는데 비자나무의 ‘비(樅)’와는 다르지만 연관성에 대해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I-5> 진목악(지금의 천아오름)

출처: 제주삼읍도총지도.

한국문화재단(2014)은 이 천아오름 혹은 그 일대에서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참나무과 도토리류와 우물 축조에 필요한 목재를 채취한 후 외도천을 이용하였거나 외도천변을 따라 현재 유적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탐라시대 한라산에서 목재를 채취한 문헌 기록은 탐라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선박건조와 관련됐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현종 3년(1012) 8월 7일의 기록에는 “탐라사람들이 와서 큰 배 두 척을 바쳤다”⁶⁸⁾고 적었으며 『고려사』 문종 12년(1058) 8월 7일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왕이 탐라와 영암에서 목재를 벌채하여 큰 배를 만들어 장차 송나라와 통교하려고 하니 내사문하성에서 아뢰기를, 또 탐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고기잡이와 배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탐라로부터 목재를 베어 바다를 건너와서 새로 절을 짓느라고 그들의 피로가 이미 대단하였는데 이제 또 거둬 피곤하게 한다면 다른 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왕이 이 말을 좇았다.”⁶⁹⁾

중국문헌 『원사(元史)』 세조3년(고려 원종 9년·1268) 7월 27일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려국왕 왕직(元宗)이 그 신하 최동수를 파견하여 아뢰기를, 병사 1만을 갖추고 배 1000척을 지었다고 하자, 조서를 내려 도통령 脫朶兒를 파견하여 이를 점검케 하고 또 흑산으로부터 일본으로 가는 길을 시찰하게 하였다. 이어 탐라에 명하여 따로 배 100척을 만들게 하여 조용에 대비하였다.”⁷⁰⁾

중국 『원사』 세조 17년(충렬왕 6년·1280) 5월 14일에는 “배 3,000척을 짓는데, 탐라에 조칙을 내려 재목을 징발하여 보급케 하였다”⁷¹⁾고 했고, 세조 19년(충

68) 『高麗史』 卷4. 世家 卷4, “耽羅人來 獻大船二艘.”

69) 『高麗史』 卷8. 世家 卷8, “王欲於耽羅及靈巖, 伐材造大船, 將通於宋, 內史門下省上言(중략) 且耽羅地瘠民貧 惟以海產 乘木道 經紀謀生 往年秋 伐材過海 新創佛寺 勞弊已多 今又重困 恐生他變 況我國文物禮樂 興行已久 商舶絡繹 珍寶日至 其於中國 實無所資 如非永絕契丹 不宜通使宋朝從之.”

70) 『元史』 卷6, 本紀6, 世祖3, “高麗國王王祖遣其臣崔東秀來言備兵一萬 造船千隻 詔遣都統領脫朶兒往閱之 就相視黑山日本道路 仍命耽羅別造船百艘以伺調用.”

71) 『元史』 卷11, 本紀11, 世祖8, “造船三千艘 勅耽羅發材木給之.”

렬왕 8년·1282) 9월 16일 기록은 “고려·탐라 등지에 조척을 내려 함께 크고 작은 배 3,000척을 만들게 하였다”⁷²⁾고 했다. 또한 세조 10년(충렬왕 11년·1285) 4월 19일 기록에는 “탐라에서 일본 정벌을 위해 만든 배 100척을 고려에 하사하였다”⁷³⁾는 내용이 있다.

중국문헌에서 원 세조시기에 배 건조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원의 일본 정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탐라는 동북아시아 해상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다. 원 세조는 고려를 복속시킨 뒤, 남송을 경략하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전략기지로써 탐라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탐라에 배를 짓게 한 것은 당시 탐라의 입지적 조건이 건조에 유리했을 뿐 아니라 대선(大船) 건조 기술에 있어서도 우수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고창석, 1998).

원이 일본정벌을 완전히 중지하기 이전까지 주로 수탈한 탐라산 물품은 목재였다. 원의 일본정벌은 원종 15년(1274)과 충렬왕 7년의 두 차례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도 여러 번 정벌 추진과 중단이 거듭됐다. 원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일본 정벌이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고려는 나무가 무성했던 지역이 헐벗을 정도로 벌목해 일본 정벌용 전함을 건조하였던 것이다. 탐라의 숲 지대인 한라산은 전함건조용 목재를 감당하느라 종전의 모습이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이다(김일우, 2000).

원은 선박건조용 목재뿐만 아니라 황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충렬왕 9년(1283) 1월에 “백날개를 파견해서 탐라의 향장목을 요구했다”⁷⁴⁾는 기록이 있는데 향장목은 지금의 녹나무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향장목을 어상(御床)⁷⁵⁾에 쓰기위해 구했던 것으로 현재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도순동 지역 등에 집단으로 자생하고 있다.

72) 『元史』 卷12, 本紀12, 世祖9, “勅平濶·高麗·耽羅及揚州·隆興·泉州共造大小船三千艘.”

73) 『元史』 卷13, 本紀13, 世祖10, “以耽羅所造征日本船百艘賜高麗.”

74) 고려사 권29, 세가 권29, “元遣伯刺介來, 求耽羅香樟木.”

75) 어상은 궁중에서 국가적인 즐거운 행사나 관혼·회갑·진갑·탄일 등 경축일을 맞이하여 진연을 베풀 때 수라상 외에 왕이 받는 상이다.

Ⅲ. 조선시대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

1. 한라산 인식

1) 진산

‘한라산’이라는 명칭⁷⁶⁾은 고려시대에 용례가 드물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굳어졌다 여·몽연합군이 삼별초의 난을 진압했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무등산, 금성산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작호를 내리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지만 여기서 한라산은 거론되지 않았다.

『고려사』를 검토해본 결과 ‘한라산’이 나온 용례를 2건 확인했다. 최영 열전에서 최영이 제주에서 발생한 목호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적이 안무사 이하생을 죽였다. 여러 장수들이 한라산 아래에 주둔하면서 군사들을 쉬게 하였고, 당시 우리 군사들이 적의 말을 많이 획득하여 모두 기병으로 삼았다. 적의 괴수 세 사람이 와서 싸움을 걸었다가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는 척하면서 호성오음 들판으로 유인하여 기병으로 덮치려고 하였다. 최영이 그들의 꾀를 알고 날랜 군사로 급히 추격하게 하니 적의 괴수가 도망하여 산 남쪽의 호도로 들어갔다.”⁷⁷⁾

76) 한라산 명칭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는데, 한라(漢拏)의 한자 뜻을 해석해 ‘손을 뺀 은하수를 끌어당길 수 있다(雲漢 可拏引也)’고 고서(古書)에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음차(音借)를 해서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사람들이 불렀던 ‘오름’을 조선시대에 한자로 오음(吾音), 올음(兀音)의 한자로 표기하듯이 ‘하라’, ‘카라’, ‘할라’ 등으로 불리던 산 이름을 한자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공철(1999)은 한라산 명칭이 높은 산이나 구름을 뜻하는 칸나(kan-na)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k가 h로 변음 과정을 거쳤으며 큰 산, 하늘의 산, 하나의 산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풀이했다. 劉均國(2015)는 몽골어로 검은 색을 하라(또는 하르)로 표기하는데 한라(halla)와 쓰기와 발음에서 유사성이 깊다며 몽골어 기원설을 주장했다. 한라산은 탐라시대부터 크고 높은 산을 뜻하는 카라(하라), 하로, 할로 등으로 불리다 한자를 차용해 ‘漢拏山’으로 표기했고, 이후에 한자를 해석해 ‘손을 뺀 은하수를 잡을 수 있다’는 해석을 부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77) 『高麗史』卷113. 列傳 卷26, 諸臣, “賊殺安撫使李下生 諸將屯漢拏山下休兵 時我師多獲賊馬 悉爲騎兵矣 賊魁三人來挑戰 陽敗而走 將誘致曉星五音之野 以騎兵踏之 瑩知其謀 命銳卒急逐 賊魁遁走 入山南虎島.”

또 다른 용례는 『고려사』 지리편 탐라현 부분에서 나온다. “세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나왔다”는 개국신화를 시작으로 신라 조희, 백제 조공 등을 거쳐 삼별초의 난, 원의 목마장 등을 서술했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진산은 한라인데, 고을의 남쪽에 있다. 두무악이라고도 하고, 또한 원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상에 큰 못이 있다.”⁷⁸⁾

문헌기록으로 본다면 한라산 인식에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다. 시대상황과 고려의 산천인식 등을 고려하면 한라산을 산신으로 인식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문헌 기록이 영성한 가운데 한라산을 ‘진산(鎭山)’이라고 정의한 부분이 나온 것이다.

『고려사』에서는 한라산에 대해 치제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진산으로 정의내린 배경을 알 수는 없다. 다만 『고려사』가 쓰여진 시기가 조선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조선의 한라산에 대한 인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여말선초에 이미 한라산이 진산으로 뿌리내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진산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을 뜻하는 것으로 『고려사』에서 수도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송악을 특별 관리하는 대목에서 진산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리편 왕경개성부 연혁에 “왕도의 진산은 송악이다”⁷⁹⁾는 표현이 있고 『고려사』 의종1년(1106년) 2월 12일 기록에 나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악은 서울의 진산인데 여러 해 동안 거듭되어 온 장맛비에 의하여 모래와 흙이 패어 흐르고 암석들이 노출되어 초목이 무성하지 못하니 나무를 심어서 하여야 합니다고 하니 이를 허락했다.”⁸⁰⁾

『고려사』 공민왕 21년(1372년)에는 “원구와 모든 제단, 왕릉, 진산들을 비보

78) 『高麗史』 卷57. 志 卷11, 全羅道, 耽羅縣, “鎭山漢拏 在縣南 一曰頭無岳 又云圓山 其巔有大池.”

79) 『高麗史』 卷56. 志 卷10, “王都鎭山 松嶽.”

80) 『高麗史』 卷12. 世家 卷12, “松嶽乃京都鎭山 積年雨水 沙土漂流 巖石暴露 草木不茂 宜栽植裨補 詔可.”

하고 사냥이나 매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였다”⁸¹⁾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산은 국가의 보호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사의 대상으로 삼은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정치영, 2011).

또한 『고려사』 기록을 더 들여다보면 악2(樂二)에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이다. 광주는 전라도의 큰 읍인데, 이 산에 성을 쌓으니 백성들이 의지하여 안전하게 지내게 되어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다”⁸²⁾는 기록이 있는가하면 제신(諸臣)에서 “지리산은 남방의 큰 진산이어서 그 신은 더욱 영험하고 신이합니다”⁸³⁾고 적혔다. 우왕 8년(1382) 9월 기록에는 “남경의 진산인 삼각산”⁸⁴⁾이라는 내용도 있다.

이상의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에 진산은 왕도를 수호하고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한라산은 송악산, 무등산, 지리산, 삼각산 등과 더불어 주요 진산의 하나로 위상을 차지했다. 한라산을 진산으로 인식했지만 고려 조정이 직접 시행한 치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려시대에 시작된 진산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욱 중요성이 더해져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뿌리를 내린다. 한라산이 진산이라는 인식도 이때 확실하게 정착된다.

진산은 말 그대로 국도 및 지방의 취락을 진호하는 산 혹은 명산(名山)으로서, 지덕으로 한 지방을 진정시키는 명산대육을 지칭한다. 조선 태종조에는 진산과 명산의 위계를 구분하여, 나라의 중요한 산을 진산이라고 하고 군현은 명산이라고도 하였지만⁸⁵⁾ 일반적으로 진산은 수도와 지방 도읍을 진호하는 명산으로서 고려에서 조선시대를 걸쳐 국도 및 지방 군현마다 각각 하나씩 지정된 바 있다(최원석, 2003).

진산은 제사의 대상이자 장소로서의 기능, 방어기지로서의 기능, 그리고 풍수 지리에서 일컬어지는 명당인 주산(主山)⁸⁶⁾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제사와 관련된

81) 『高麗史』 卷85. 志 卷39, 刑法2, “禁園丘及諸祭壇·山陵·鎮山·裨補田獵 又禁養鷹.”

82) 『高麗史』 卷71. 志 卷25, 樂2, “無等山 光州之鎮 州在全羅 爲巨邑 城此山 民賴以安 樂而歌之.”

83) 『高麗史』 卷101. 列傳 卷14, 諸臣, “智異山 南紀之巨鎮 其神尤爲靈異.”

84) 『高麗史』 卷134. 列傳 卷47, “南京鎮三角山.”

85) 『太宗實錄』 太宗 12년(1412) 10월 8일, “自國之鎮山 以至郡縣名山大川.”

86) 주산은 문자 그대로 주인 산으로 주산을 중심으로 하여 좌청룡, 우백호 및 주작을 경계로 하는 하나의 국(局)이 형성된다. 작게는 무덤에서 크게는 도읍지까지 모두 주산을 갖게 된다. 주산의 의미를 갖는 것은 입지 선정 및 좌향 정하기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입지의 성격이나 역량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기능은 가장 오래되었으며, 홍수와 가뭄, 전염병 등 민생과 관련된 재앙을 막기 위해 진산에 제사를 지냈다. 진산은 읍치에서 가깝고 고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서 유사시에 가장 훌륭한 방어기지가 되었다(최종석, 2008; 정치영, 2011).

조선에 접어들어서는 한라산이 제주의 진산이라는 용례가 다수 나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산천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됐다.

“한라산은 주 남쪽 20리에 있는 진산이다. 한라라고 말하는 것은 운한을 끌어당길만하기 때문이다. 혹은 두무악이라 하니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요, 혹은 원산이라고 하니 높고 둥글기 때문이다. 그 산꼭대기에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다.”⁸⁷⁾

또 『현종실록』 부록 행장에서는 한라산 치제와 함께 진산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제주에 크게 비바람이 휘몰아쳤는데 빗물의 맛이 모두 짜서 들판에 곡식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까닭이었다. 한라산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한라산은 제주 섬 전체의 진산이다.”⁸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산천조의 내용이 『고려사』의 탐라현조와 동일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려사』를 인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이후 여러 지지서, 관찬사료 등에 한라산을 진산으로 기재한 용례가 반복적으로 나올 정도로 조선에 이르러 한라산이 진산으로 정착됐다.

2) 삼신산

조선시기에 한라산은 진산의 성격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등장한다. 고려시대부터 한라산이 삼신산의 하나로 인지되지는 않은 듯하다. 중국에서 전설속의 산으로 일컬어지던 삼신산이 우리나라 세 개의 산을 지칭한

87) 『新增東國輿地勝覽』 38卷, 濟州牧, “漢拏山 在州南二十里 鎮山 其曰漢拏者 以雲漢可拏引也 一云頭無嶽 以峯峯皆平也 一云圓山 以穹窿而圓也 其巔有大池 人喧則雲霧 咫尺不辨.”

88) 『顯宗實錄』 1卷, “時濟州大風雨 皆鹹味 田野濯濯故也 致祭于漢拏山 山一島之鎮.”

것으로 보이는데 한라산을 삼신산의 하나로 인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특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개인문집 등에서 한라산을 삼신산으로 비정한 내용이 유포되면서 조선 조정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신산 내력은 중국 『사기(史記)』의 봉선서(封禪書)에 적혀있다. 이에 따르면 “중원의 동쪽, 발해 바다 깊숙한 곳에 신선들이 사는 봉래·방장·영주 삼신산이 있다는 소문이 일어났다. 삼신산에는 불사의 약이 있고, 기물과 금수가 모두 백설처럼 희며, 금은보화로 세운 궁궐이 있다”⁸⁹⁾는 이야기가 함께 퍼졌다. 이런 소문은 발해에 접한 제나라와 연나라에서 주로 유행했고, 급기야 두 나라의 여러 왕들이 발해로 탐사대를 파견해 삼신산 찾기에 나선 것이다(김성환, 2007).

특히 진시황(秦始皇)이나 한무제(漢武帝)는 많은 방사(方士)⁹⁰⁾들로 하여금 삼신산을 찾게 함으로써 신선을 만나고 불사의 약을 구하려 시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불사약을 구해오지 못했는데,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장생불사를 누리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신선사상은 여기서 비롯됐다(도광순, 1992; 임채우, 2008).

삼신산 탐사는 진시황에서 절정을 맞다가 한무제의 고조선 정벌(기원전 108)을 즈음한 시기에 변화가 생긴다. 한무제는 즉위한 직후부터 빈번하게 삼신산 탐사대를 발해로 파견했다가 고조선 정벌이 있고나서는 삼신산 탐사대가 종적을 감추고 만다. 고조선 정벌로 발해 바다 너머의 동방이 신비로울 게 없는 현실의 지리공간으로 파악한 것이다(김성환, 2007).

삼신산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우리나라에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사』에서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 악(樂)지에 “봉래 방장 영주의 삼산, 이 세 산 붉은 누각의 아름다운 선녀”⁹¹⁾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동천(洞天) 안에서 봉래산과 영주산을 한 번 스쳐가니 다만 오늘밤이 짧을까 두려울 뿐이네”⁹²⁾라는 구절도 있다.

기록을 보면 삼신산을 전설속의 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때만 해도 금강산,

89) 『史記』 卷28, 封禪書, “燕昭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洲 此三神山者 其傳在勃海中 去人不遠 患且至 則船風引而去 蓋嘗有至者 諸僊人及不死之藥皆在焉 其物禽獸盡白 而黃金銀爲宮闕.”

90) 중국 고대 용어로 의미 자체는 기술자를 뜻하는 용어지만 주로 도가에 기초한 천문, 주역, 점술, 오행, 풍수, 의술, 연단술 등에 통달한 사람을 의미하며 기술 자체는 방술이라 칭한다.

91) 『高麗史』 卷71. 志 卷25, 樂2, “蓬萊山方丈山瀛州三山 此三山 紅樓閣 婢妁仙子.”

92) 『高麗史』 卷71. 志 卷25, 樂2, “洞天裏 一掠蓬瀛 第恐今宵短.”

지리산, 한라산으로 비의해서 일컫지는 않은 듯하다. 최원석(2014b)은 『고려사』 지리지에 “지리산을 지리(地理), 두류(頭流), 방장(方丈)이라고 한다”는 기록을 봐서 고려 말에 지리산을 방장산으로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삼신산이 우리나라의 산으로 비정된 것은 조선시기에 넘어온 다음으로 이해된다. 삼신산에 대해 조선 초기에는 한때 백두산을 삼신산으로 보거나, 부안의 변산(邊山)을 영주산으로 일컫기도 하다가 봉래산은 금강산, 방장산은 지리산, 영주산은 한라산으로 굳어졌다.(김성환, 2007).

조선 선비들의 기록에는 삼신산이 여러 차례 거론되는 데 비해 정사에서는 삼신산, 이 가운데 한라산과 영주산의 기록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고기에 이르기를, 한라산의 일명은 원산이니, 곧 바다 가운데 있다는 원교산⁹³⁾이고 그 동쪽은 동무소협인데 신선이 사는 곳이다. 또 그 동북쪽에 영주산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탐라를 일컬어 동영주라 한다.”⁹⁴⁾

이 기록은 한라산을 전설속의 산이고, 산의 동쪽 지경을 신선의 거처로 회자되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동북쪽의 영주산은 한라산이 아니라 당시 정의현 지경의 영주산을 지칭한 듯하다.

비록 기록이 단편적이지만 조선 왕조에서 한라산을 삼신산의 하나로 인식한 내용은 있다. 김상헌의 『남사록』 기록에서 왕(선조)이 내린 교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너희들 탐라 백성들은 임금의 명령을 경청하라. 무모한 못된 무리들이 스스로 죽을 길을 취하여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나쁜 풍속은 모두 고치고 새롭게 하려

93) 『열자』 역간편에는 오신산(五神山)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 다섯 신산은 대여산, 원교산, 방곤산, 영주산, 봉래산으로, 불로불사를 주는 열매가 달린 나무가 우거지게 숲을 이루고 있으며 신선들이 살고 있다. 또한 거대한 거북 15마리가 각각 3조로 나뉘어서 6만 년에 한 번씩 교대로 이 신산들을 머리로 받쳐서 표류하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었는데, 훗날 용백국에 살던 거인이 이 거북 중 6마리를 잡아가서 등껍질을 벗겨 짐을 치는 바람에 거북이 없어진 대여산과 원교산은 결국 북극으로 흘러가 바닷속에 잠기게 되었다고 한다. 원교산은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94) 『新增東國輿地勝覽』 38卷, 濟州牧, “古記云 漢拏山 一名圓山 卽中海圓嶠山 其東乃東巫小峽 神仙所居 又其東北有瀛洲山 故世稱耽羅爲東瀛洲.”

는 어진 마음을 보인다. 이에 종신을 보내 인자한 뜻과 은혜의 말을 베푼다. 멀리 떨어져 깊은 바다 사이에 한 점 산이 높이 솟아 남쪽 끝에 서 있으니 해외 삼신 땅이요, 옛적에는 동영주라고 불렀다.”⁹⁵⁾

이를 보면 비록 조선왕조실록에 ‘한라산=영주산’이라는 표현을 보기 힘들지만 파편적인 기록과 사대부의 개인문집을 감안하면 조선시대 한라산을 삼신산의 하나로 인지한 것은 분명하다. 삼신산은 신선(神仙)이 거처하는 산으로 한라산 백록담에 “신선이 흰사슴을 타고 노닐었다”는 설화를 배태(胚胎)시킨 근원인 것이다. 이는 곧 한라산은 ‘신선의 산’이라는 특징적 인식을 만들어냈으며 조선 조정이 한라산을 삼신산, 진산으로 인식한 부분이 한라산에 대한 제사로 수용되고 표출된다.

2. 인식의 표현: 산신제

1) 제사의례 변화

조선시기에 넘어오면서 제사는 더욱 규범적이고 세부적으로 변하고 산천제 역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조선 조정의 지배적인 사대부관료들은 그들의 사상적 기반인 주자학을 내세우고 유교정치의 기틀을 굳건히 하려고 했다. 그들은 유교 윤리와 배치되는 신앙이나 종교, 그리고 그들이 전거로 삼는 중국 사전(祀典)의 명분에 어긋나는 제사를 모두 배척하려고 했다(한우근, 1976).

조선의 사전은 고려와 달리 중국의 유교 예제를 충실히 따랐다. 예는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 등 오례(五禮)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국가 제례인 길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길례는 제사 대상을 천신(天神), 지기(地祇), 인귀(人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제의를 각각 사(祀), 제(祭), 향(享)이라 하여 의식의 절차와 의미 등을 구분했다. 조선의 길례는 대·중·소사의 체제로 나누고, 잡사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고려사』 예(禮)지 잡사(雜祠)에 있었던 제사 중 일부를 중·소사로 수용했다. 국가제사가 조선 나름의 제도로 성립되어 갔던 것이다(김철웅, 2007).

95) 『南槎錄』, “嗟爾耽羅有衆 敬聽明命 無謀凶豎 自取誅夷 既舉罔赦之典 汚俗咸與更始 宜示維新之仁 茲遣從臣 用宣德意 瞻言 絕域遠隔 重溟波間 一點山俯臨南極 海外三神地 舊號東瀛.”

<표Ⅲ-1> 조선 국조오례의 사전 주요 내용

大祀	社稷, 宗廟, 永寧殿
中祀	風雲雷雨 <山川城隍>, 嶽海瀆 <智異山·三角山·松嶽山·鼻白山·東海·南海·西海·熊津·伽倻津·漢江·德津·平壤江·鴨綠江·豆滿江>, 先農, 先蠶, 雩祀, 文宣王, 歷代始祖(檀君, 箕子, 高句麗始祖, 百濟始祖, 新羅始祖, 高麗始祖)
小祀	靈星, 老人星, 馬祖, 名山大川 <雉嶽山·鷄龍山·竹嶺山·于弗山·主屹山·錦城山·木覓山·五冠山·牛耳山·紺嶽山·義館嶺·楊津溟所·楊津·長山串·阿斯津松串·淸川江·德津溟所·沸流水>, 司寒, 先牧, 馬社, 馬步, 碼祭, 祭祭, 醮祭, 七祀, 蠶祭, 厲祭

출처: 김철웅, 2007.

조선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실린 사전을 고려사 길례의 사전과 비교하면 고려시대에는 실행되었으나 조선시대 사전체제에서 사라진 것으로 원구와 방택⁹⁶⁾에 대한 제사를 들 수 있다. 산천신과 역대 시조묘에 대한 제사가 조선에 와서 추가되었다. 고려시대 산천신은 잡사에 나오지만, 조선시대 산천신은 산천·악해독·명산대천으로 구분되어 사전에 등재됐다. 선농(先農), 선잠(先蠶), 영성(靈星), 마조(馬祖)⁹⁷⁾ 등 다양한 기능신들이 조선의 사전에 수용된 점을 알 수 있다(이욱, 2002).

조선시대에 들어와 봉작제도는 폐지되고, 산천신은 이전의 봉호 대신 산수의 본래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이것은 산천신의 의인적 요소가 탈락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봉작제도 대신 산천을 해독(海瀆)이나 명산대천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등재했다.

이러한 산천의 등재는 개별적 영험성에 의존하였던 고려시대와 달리 일원적이

96) 원구는 천자가 동지에 천제를 지내는 곳이고 방택은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97) 선농은 농사의 신인 후직과 함께 인간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중국의 신인(神人)이다. 선잠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누에치는 법을 가르쳤던 서릉씨(西陵氏)이다. 영성은 천전성(天田星)으로 28수 가운데 하나로 농사일을 주관하는 신이라 믿어 농상(農祥)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조는 말의 조상인 천사성(天駟星)이다.

고 집단적인 방식이었다. 비록 악해독과 명산대천이 두 등급으로 구분되지만 각각에서 개별성은 약화되고 중앙에서 동일한 양식에 따라 산천의 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욱, 2002).

그리고 조선의 산천제는 개별적인 산(山)이나 천(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통칭인 산천이라는 일반 범주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중사에 분류된다. 개별적인 산이나 천은 소사인 명산대천으로 제사를 지냈다. 『태종실록』 13년(1413) 6월 8일 기록을 살펴보면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산천의 봉작을 일제히 삭제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산천의 사당에 그 신의 처첩·자녀·생질 따위의 신상을 설치하여 제사하던 것도 모두 폐지하였다.⁹⁸⁾ 또한 산천에 지내던 제사를 정비하여 악진해독을 중사, 명산대천을 소사로 각각 구분했던 것이다.⁹⁹⁾

여러 산천,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고 국가에서 선정한 제사처가 아닌 곳에 지내는 제사를 ‘음사’로 규정하여 통제된 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를 천명한 것이었다. 제사를 지내는 주체도 중요했다. 왕이나 왕을 대신한 지방수령이외 사람이 산천제, 명산대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음사로 규정한 것이다. 산천,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를 유교의 틀 안에 포섭하는 방향으로 사전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의례의 내용 또한 무속적인 면을 없애 유교적인 제의로 변모시켰다(박호원, 2013).

명산대천 제사는 단순히 각 지역의 신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 데 그치지 않았으며, 기우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농경사회에서 비(雨)는 그 해의 농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했고 민간에서도 기우의 행사는 최고의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특별 관리한 것이다.

산천에 대한 제사가 지방 수령 주도로 일정한 공간에서 행해지게 되면서 명산대천제, 기우제는 유교적 제례로 굳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조선시대의 산천제는 중사인 악해독, 소사인 명산대천의 제례에 의거해 치러지고 이외 산천이나 민간인이 지내는 제사는 음사로 규정되어 배척받았다(박호원, 2013).

98) 『太宗實錄』 太宗 13년 6월 8일, “伏望申明太祖已降教旨 但稱某州城隍之神 只留神主一位 其妻妾等神 悉皆去之 山川海島之神 亦留主神一位 皆題木主曰某海某山川之神 其像設 茲皆徹去 以正祀典 從之.”

99) 『太宗實錄』 太宗 13년 6월 8일, “岳鎮海瀆爲中祀 山林川澤爲小祀.”

2) 한라산 산신제

(1) 산신제 정립

조선은 개국 초기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정부의 통합력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제주도도 물론 중앙집권통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적·경제적 독립 단위로 존재해왔고 지리적으로 중앙과 멀리 떨어진 섬이며, 재지(在地)세력의 성격, 특수한 산업 구조, 이질적인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특수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원래 탐라국이었던 제주도는 고려의 군현제에 편입되면서 본토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려의 군현제 아래에서도 제주도는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상당 부분 인정받았고, 일시적으로 중국 원에 귀속되기도 하는 특수한 상황을 겪었다. 이처럼 다른 지역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 중앙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중앙집권화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김진영, 2002).

중앙집권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제례의 확립이었다. 고려에도 제례의 등급을 구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불교, 도교 등과 서로 섞인 면이 있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유교이념을 기반으로 사전(祀典)을 재편성하고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물론이고 제사를 지내는 주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구분을 했고 지방에서는 수령이 왕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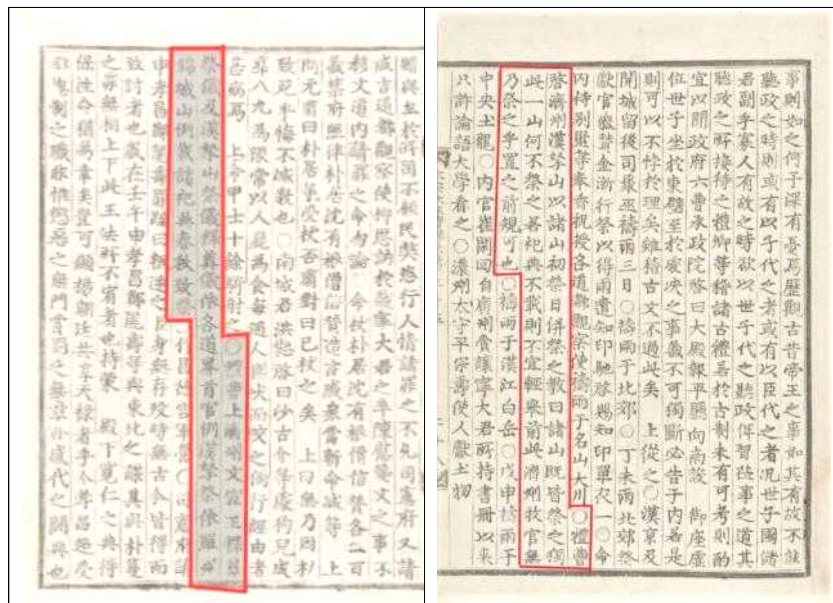
제주 역시 중앙집권화 정책에서 빗겨갈 수 없었다.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유교적 의식을 지키지 않은 제사를 음식으로 규정했다. 다만 제주에서는 제사를 지내면서도 특수 상황이 전개된 듯하다. 명산대천 제사 대상이 한라산인 점은 분명한데 조선 초기에는 제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다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드문드문 시차를 두고 거행된 것이다. 그러다 조선 중기를 지나서 한라산에 대한 제사 즉 한라산 산신제가 보다 비중 있게 치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라산이 지역을 진호하는 진산에서 삼신산, 명산 등으로 의미가 부여되면서 국가적 관심이 점차 증대된 것과 맥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한라산에 대한 제사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태종실록』 태종 18년(1418)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조에서 제주의 문선왕 석전제 의식과 한라산제 의식을 올렸다. 석전제 의식은 각도 계수관의 예에 의하고 한라산제는 나주 금성산의 예에 의하여 여러 사전에 싣고 봄 가을에 제사지내게 하였다.”¹⁰⁰⁾

이어서 태종 18년(1418)에도 한라산 제사가 실렸다. <그림Ⅲ-1>은 태종실록에 실린 한라산 기록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조에서 한라산에도 제산(諸山)의 초제일에 아울러 제사를 지내도록 아뢰자 다음과 같이 하교했다.

“제산은 이미 모두 제사지냈는데, 홀로 이 산만을 어찌하여 제사지내지 않았는가? 만약 사전에 실려 있지 않다면, 가볍게 거행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이보다 앞서 제주목관이 제사지내지 않았는가? 그대로 두라.”¹⁰¹⁾



<그림Ⅲ-1> 한라산 기록이 실린 태종실록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라산에 대한 제사를 올렸는데 뒤이어 올리는 명산대천 제사에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라산 제사를 가볍게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한라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이는 국가차원의 규범에 따라 행해

100) 『太宗實錄』 太宗 18년 4월 11일, “禮曹上濟州 文宣王釋奠祭儀及漢拏山祭儀 釋奠儀依各道界首官例 漢拏祭依羅州 錦城山例 載諸祀典 春秋致祭.”

101) 『太宗實錄』 太宗 18년 6월 28일, “濟州 漢拏山 以諸山初祭日併祭之 教曰 諸山既皆祭之 獨此一山 何不祭之 若祀典不載 則不宜輕舉 前此 濟州牧官無乃祭之乎 置之前規可也.”

진 한라산 제사 기록이다.

세종 11년(1429) 11월 11일에는 예조에서, “제향의 물자를 국가에서 주기도 하고 지방에서 부담하기도 하면서 고르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행하는 악독산천의 예에 따라 국고에서 제향을 보내고, 국가에서 행하는 치제의 예를 따를 것”¹⁰²⁾을 아뢴데, 치제의 대상으로 전국의 산천이 나열되면서 여기에 한라산이 포함됐다.

『세종실록』 지리지 제주목에서는 고을 수령이 한라산신제를 지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정기적으로 치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진산은 한라이다. 주의 남쪽에 있는데, 일명 두무악 또는 원산이라 한다. 그 고을 관(官)이 제사를 지내는데, 둥그스름하고 높고 크며, 그 꼭대기에는 큰 못이 있다.”¹⁰³⁾

한라산 제사에 대한 기록 가운데 눈여겨볼만한 내용이 존자암 사찰과 관련해서 나온다. 1498년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제주 정의현에 유배되었던 홍유손(洪裕孫·1431-1529)의 시문집인 『소총유고(篠叢遺稿)』에 수록된 「존자암개구유인문(尊者庵改構侑因文)」의 일부 기록인데 다음과 같다.

“길일을 택해서 삼읍의 수령의 하나가 목욕재계를 하고 존자암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를 국성재라고 한다. 지금은 폐지된 지 6, 7년이 되었다.”¹⁰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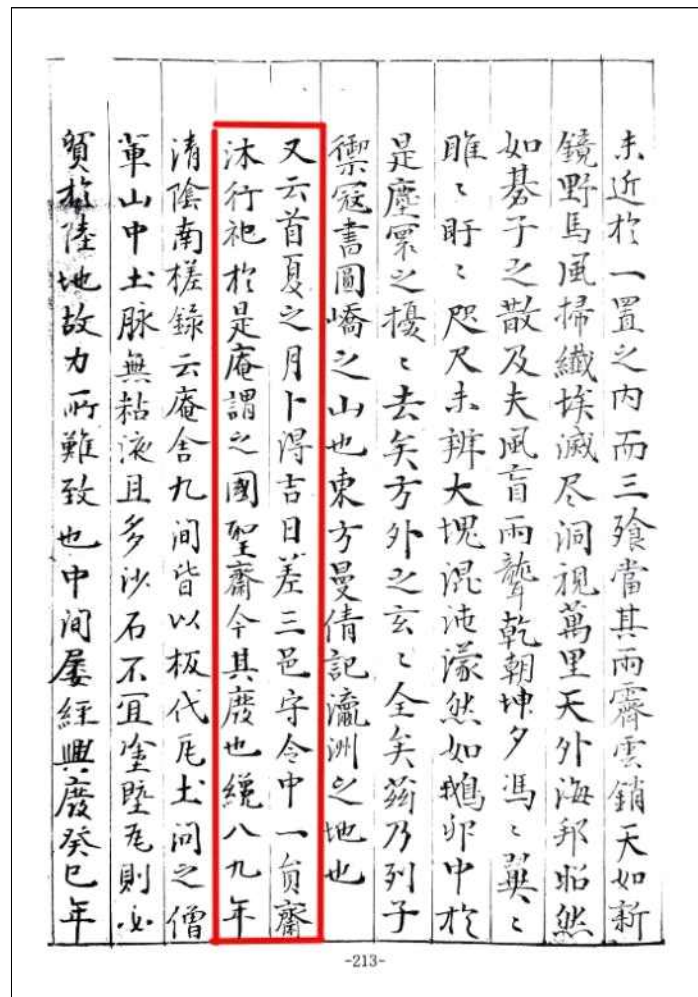
이 내용을 보면 존자암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시되었던 비보사찰이면서 국가적 제사가 행해지던 장소였다는 것이다. 오상학(2019)은 존자암에서 행해졌던 국성재(國聖齋)를 세 고을의 수령 중에서 차출된 사람이 봉행했다는 사실은 국성재가 민간의 제사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의 제사라는 것을 말해 주고, 아울러 국성재가 한라산 산신제의 성격을 지녔을 것으로 판단했다.

102) 『世宗實錄』 世宗 11年 11월 11日, “竝依國行岳瀆山川祭品例 以國庫米穀致祭.”

103) 『世宗實錄』 地理志, 濟州牧, “鎮山 漢挈在州南 一曰頭無岳 又云圓山 其官行祭 穹隆高大 其巔有大池.”

104) 『篠叢遺稿』, “卜得吉日 爲差三邑邀頭中一員 齋沐行祀於是庵 謂之國聖齋 今其廢也 纔六七年矣.”

제주안핵검순무어사로 1676년 제주를 다녀간 이증(李增·1628-1686)은 『남사일록(南槎日錄)』에서 고기(古記)를 인용해 “4월에 길일을 잡아 삼읍의 수령 중 한 사람이 목욕재계하여 암자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국성재라고 한다. 지금은 폐지된 지가 8, 9년이라고 한다”는 내용(그림Ⅲ-2)이 있는 점을 보면 1500년대 초까지 국성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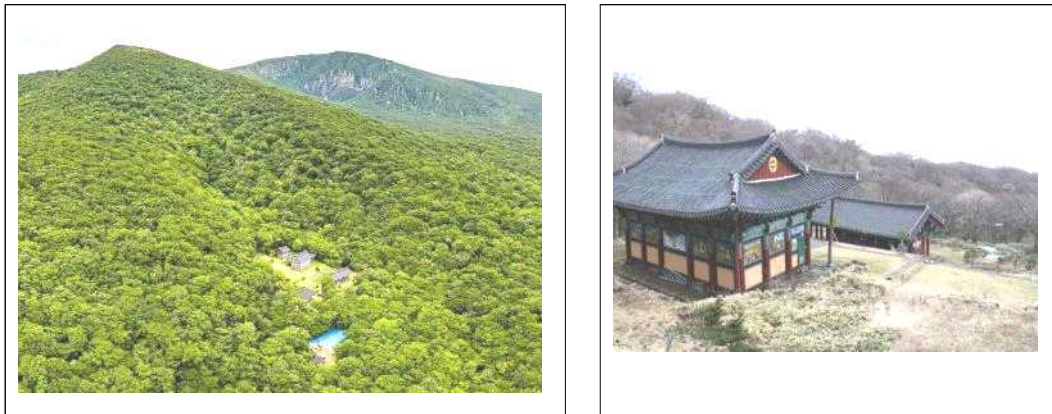


<그림Ⅲ-2> 존자암의 국성재 기록
출처: 남사일록.

존자암은 한라산에 있다가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졌으며 악질이 유행한 후 폐쇄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존자암, 한라산 서쪽 고

개에 있다. 그 골짜기에 돌이 있는데 마치 중이 도를 닦는 모양 같다. 속설에 전하기를 수행동이라고 한다”¹⁰⁵⁾고 했다.

지금의 존자암(그림Ⅲ-3)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됐으며 이 당시 건물지, 부도, 배수시설과 기와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이 출토됐으며 2002년 11월 사찰 건물이 일부 복원됐다.



<그림Ⅲ-3> 한라산 불레오름의 존자암
출처: 연구자 촬영.

한라산에서 국가가 시행한 제사와 관련 김상헌의 『남사록』 기록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이 보인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산신제를 준비하면서 적은 것이다.

“백록담 북쪽 모퉁이에 단이 있으니 본주(本州·제주목)에서 늘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¹⁰⁶⁾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기우제를 지낸 곳이 다름 아닌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북쪽이라는 것이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백록담에서 기우제를 지내야 비를 관장하는 산신, 천신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소망을 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 1601년 제주에 당도한 김

10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尊者庵 在漢拏山西嶺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諺傳修行洞.”

106) 『南槎錄』, “潭之北隅有壇 本州常時祈雨處也.”

상헌 역시 한라산 정상에서 산신제를 지낸 점 등을 고려하면 정기적인 산신제는 산 아래에서 지내지만 특수 목적의 기우제나 산신제는 한라산 백록담 북쪽(그림 Ⅲ-4)에서 지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Ⅲ-4>한라산 백록담분화구 북벽 기우제 추정지(점선)
출처: 연구자 촬영.

현종 12년(1671) 9월 16일에는 부교리 이하(李夏)를 선유어사로 삼아 한라산에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김상헌이 행했던 제사 전례에 따르도록¹⁰⁷⁾ 한 점으로 봐서, 이때에도 한라산 정상에서 산신제를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김상헌의 기록에 이어 1694년부터 1696년까지 제주목사를 지낸 이익태(李益泰·1633-1704)의 『지영록(知瀛錄)』에도 “백록담 북쪽에 기우단이 있다”¹⁰⁸⁾는 내용이 나온다.

산 아래에서 한라산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유형원(柳馨遠·1622-1673)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에서 살펴볼 수 있다.

107) 『顯宗實錄』, 顯宗 12년, 9월 16일, “以御史往諭本島 宣廟特命賜祭于漢拏山 且別爲事目以送之 請依舊例爲之 事下備局.”

108) 『知瀛錄』, “潭之北隅 有祈雨壇.”

“한라산사가 주에서 남쪽으로 3리에 있다. 주에서 제사를 지냈다. 속칭으로 광양당이 다. 고려시기에 전하기를 신령한 기운이 있어서 광양왕으로 봉하고 해마다 향축을 보내서 제사를 지냈다.”¹⁰⁹⁾

제주목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라산사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전하기를 “광양당, 주 남쪽에 있다. 한라산호국신사이다”¹¹⁰⁾는 기록을 근거로 광양당이 민간에서 한라산신제를 지내는 곳으로 여겨졌는데 동국여지에서는 제주목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한라산사로 기록하고 있다. 관점에 따라 한라산사에 대해 달리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세종에서 현종에 이르기까지 드문드문 보이는 한라산 제사는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1653-1733)의 장계(狀啓)로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숙종 29년(1703) 7월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주목사 이형상이 치계하기를, 명산대천은 모두 소사에 기록되어 있으나, 유독 한라산만은 사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오례의는 성화(명나라 현종 때의 연호) 연간에 편찬되었는데, 그때에 본주에는 약간의 반역이 있어서 혹 그것 때문에 누락이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일찍이 이 일로 장계를 올렸으나, 해조에 기각 당했습니다. 다시 품처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관하하기를, 한라산은 바다 밖의 명산인데 홀로 사전에 들지 못했음은 흠 쥬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의견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치악산과 계룡산의 제례와 축문식에 따라 정월·2월·7월에 설행할 것을 청하자, 윤허하였다.”¹¹¹⁾

당시 기록을 보면 대신들이 논의하면서 “명산에 제사가 없다는 것은 결점이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다만 반대의견으로 “세대는 아득히 멀고 증거 삼을 문헌도 없는데 수 백년 뒤에 억지로 의례를 만들어 먼 바다 밖에 향화를 내리는 것이

109) 『東國輿地誌』, “漢拏山祠 在州南三里 俗稱廣壤堂 相傳高麗時以其靈異封爲廣壤王 歲降香祝以祭 本朝令本州致祭.”

110) 『新增東國輿地勝覽』 38卷, “濟州牧廣壤堂 在州南 漢拏護國神祠.”

111) 『肅宗實錄』 肅宗 29년 7월 29일, “濟州牧使李衡祥馳啓 名山大川 載於小祀 而漢拏山 獨漏於祀典 五禮儀纂成 在成化年間 其時本州乍順乍逆 或因此而見漏也 曾以此事狀聞 而見格該曹 乞更令稟處. 上判下曰 漢拏山 以海外名山 獨不入於祀典 未免欠闕 依領相議施行 禮曹請遵雉岳 鷄龍等山祭例及祝文式 以正月 二月 七月設行 允之.”

합당한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상당기간 한라산 제사가 공식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형상의 건의 등으로 한라산이 사전에 등재되면서 정기적으로 한라산 산신제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정조 17년(1793) 9월 21일에 한라산 산신제를 지내는 제우(祭宇) 및 제기(祭器)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자 “한라산 제사를 지내는 옥우가 있어서 훼손되는 대로 보수한다”¹¹²⁾고 답변을 올린 내용이 있는 점으로 보면 제사를 지내는 건물을 특별 관리한 듯하다.

정조 17년(1793) 11월 24일에는 “제주어사 심낙수에게 한라산 산신에게 오례의에 있는 명산대천 제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했다”¹¹³⁾는 내용이 있고 순조 1년(1801) 8월 1일에는 “배가 풍랑에 뒤집히면서 한라산제와 풍운뇌우제에 쓸 향과 축문이 과도에 사라지자 급히 다시 보냈다”¹¹⁴⁾는 기록도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한라산 산신제에 대한 기록 외에도 수령으로 파견된 제주목사의 기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목사가 지내는 한라산 산신제는 왕을 대신해서 지낸 중요 의례였다.

1841년부터 1843년까지 제주목사를 지낸 이원조(李源祚·1792-1871)는 『탐라록(耽羅錄)』에서 한라산 산신제를 봄과 가을에 설행했다고 기록했다. 한라산 산신제 헌관은 제주목사인 자신이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축책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먼저 좌수와 유생에게 모시고 가라하고 얼마 뒤에 출발했다. 신단은 읍성에서 20리 거리에 있었고 담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사당이 있어 신패를 봉안하고 있었다. 곁에는 포신사가 있고 좌우에는 오래된 소나무 30-40그루가 우거져 곧게 뻗어 있었다. 제사를 거행하던 날 오랫동안 내리던 비가 갑자기 개여 날씨가 맑아졌다. 제사를 끝내고 관아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닭이 울기 시작했다.”¹¹⁵⁾

112) 『日省錄』 正祖 17년 9월 21일, 本州漢拏山祭所素有屋宇每當節祭隨毀隨補故竝與祭器而今無頗處.

113) 『日省錄』 正祖 17년 11월 24일, “上授濟州御史沈樂洙香祝 致祭于漢拏山神.”

114) 『純祖實錄』 純祖 1년, 8월1일, “濟州 漢拏山祭 風雲雷雨祭香祝及討逆領教文 同船入送矣 射鼠島前洋 猝遇風浪 仍爲覆沒 香祝與教文 竝爲漂失云 萬萬驚悚.”

115) 『耽羅錄』, “行漢拏山祭 祝冊自京下來 先使座首及儒生陪行 追後發去 神壇距州二十里 繚以垣 有廟奉神牌 傍有醮神祠 左右古松三四十株 蒼鬱蕭參 將事之日 積雨忽晴 天氣晴朗 罷祀歸衙 遠鷄初唱.”

한라산 산신제를 지낸 산천단에 대한 기록이다. 산천단에 대한 내용은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작자미상의 『제주읍지』를 보면 다음 기록이 있다.

“산천단 직(直)은 4명이다. 곧 한라산신제를 봉행하는 장소이다. 주 남문 밖 15리에 있다.”¹¹⁶⁾

한라산 산신제를 봉행하는 산천단에 관원 4명이 배치됐다는 것으로 이미 정기적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있음을 증빙하고 있다. <그림Ⅲ-5>는 오래된 곰솔이 있는 지금의 ‘산천단’으로 이원조가 한라산 산신제를 지냈던 장소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Ⅲ-5> 제주시 산천단
출처: 연구자 촬영.

영조 연간의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는 “산신제를 처음에는 백록담에서 지냈으나 눈이 많이 오면 올라갈 수 없어 산 중간에서 지내다가 이후 소림과원

116) 『濟州邑誌』, “直四名 卽漢拏山神祭行禮所 在州南門外十五里.”

안에 사묘를 건립했다”¹¹⁷⁾고 하는데, 소림사(小林祠)가 바로 그것이다. 17세기 후 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형상 중가 소장의 제주지도에는 ‘포신묘’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형상이 제주목사 재임 이후 1709년에 제작된 「탐라지도병서」에는 소림묘라 하여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였다. 그 후 1872년의 「제주삼읍도총지도」나 『제주군읍지』의 제주지도에는 산천단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오상학, 2006).

한라산 제사와 관련된 내용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6개 정사류와 중요 역사지리지 등에서 모두 62회가 나오는데 한라산 용례 가운데 횃수가 가장 많다(홍기표, 2021). 조선 조정이 한라산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제사가 가장 중요한 표현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산신제 성격

조선 조정의 한라산에 대한 인식은 한라산신제에 올린 제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한라산 산신제를 지낸 배경에 따라 제문의 성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한라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 실린 한라산 제문은 다음과 같다.

“국왕은 성균관전적 김상헌을 보내 한라산 신령께 제사를 드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궁궐 같은 산이 있어 바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수부를 감싸 두르고 위로는 운공에 맞닿아 백령이 머무르니 모든 산악의 으뜸입니다. 탐라의 진산이 되어 남쪽 끝자락 절경을 이루었습니다. 천신의 권능을 빌어 우리 백성을 도우시니 전염병의 재앙이 없고 풍우가 때를 맞추어 곡식과 삼이 두루 자라고 축산이 번성합니다. 제주 고을은 그래서 편안하고, 나라에서는 이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미 풍족하고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신령의 덕이 아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못된 무리들이 감히 반역을 도모하여 어느새 숨어살며 날로 백성을 속이고 무리를 모은 것이 마치 개미가 쌀과 겨를 훔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비록 나라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령의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음모가 일찍 드러나 괴수는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내어놓았고 온 섬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큰 난리가 일찍 끝났으니 신령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117) 『增補耽羅誌』, “初則祭於白鹿潭. 若雪深不得上則祭於中山 其後建祠於小林果園”.

니까. 이에 마땅히 사신을 보내 경건히 아뢰입니다.”¹¹⁸⁾

산의 으뜸이고 탐라의 진산이라는 표현은 한라산이 명산, 진산이라는 의미를 담았고 천신과 풍우가 산신령의 덕분이라는 것은 산신이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이증이 한라산 백록담에서 지낸 제사에서 올린 제문은 『남사일록』에 수록돼 있다.

“국왕은 삼가 신하인 부사직 이증을 보내어 한라산의 신께 고하나이다. 삼가 탐라 지역은 아득히 바다 밖에 있어 높이 솟은 저 한라, 웅장한 진인 남쪽 변방, 상서로운 기운은 모여들고 맑은 기운 감돌며 신기함이 쌓이고 신령이 축적되나이다. 남쪽 지방이라 풍사와는 멀리 떨어져 홍수와 가뭄, 질병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얻게 하시어 공덕을 배움이 흡족하여 백성들은 그 복을 누리왔습니다. 제사전례를 살펴서 보답하는 일 여기지 말아야 하나 이제까지 겨를이 없어 내 마음은 한탄스러웠습니다. 이제 따로 관원에게 부탁하여 엄숙히 신명께 갯밥을 드리며 더욱 은밀한 도움을 바라오니 우리의 먼 곳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들의 질병을 물리치고 풍성한 번영을 주소서.”¹¹⁹⁾

이증의 제문을 보면 한라산이 제주의 진산이자 수호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질병을 물리치고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적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원조의 『탐라록』에 실린 한라산 산신제 제문은 한라산 백록담이 아닌 산 아래 산천단에서 행한 것으로 보인다.

“높고 험한 저 부악은, 이 바다 고을을 보호하고 있으니, 두 번째로 직접 제사를 지내

118) 『南槎錄』, “國王遣成均館典籍金尙憲 致祭于漢拏山之神 伏以有山穹窿 在海之中 下蟠水府 上磨雲空 百靈所在 衆嶽之宗 作鎮耽羅 亘絕南維 假天神柄 佑我民斯 疾疫無災 風雨以時 禾麻敵暢 畜產蕃滋 邑以之寧 邦用是資 既足既濡 莫非神德 如何醜孽 敢圖兇逆 於焉藏匿 日肆誑惑聚黨 如蟻糠及米 雖國不幸 亦神之恥 陰謀早露 巨魁肆市 全島獲安 大亂過已 非神冥鄙 曷能致此 茲當遣使 用申虔告 牲幣雖薄 誠意則篤 其始自今 歆于世世 載息風塵 永莫海裔.”

119) 『南槎日錄』, “國王謹遣臣副司直李增 致告于漢拏山之神 伏以 耽羅一域 邈在海外 嶽彼漢拏 雄鎮炎徼 扶與磅礴 淑氣所鍾 蘊奇蓄靈 南服攸宗 水旱疾疫 有禱必獲 功施斯洽 民受厥福 稽諸祀典 報事罔愆 迨茲未遑 予心慊然 今因別价 肅薦粢明 尚冀陰鷲 惠我遐氓 祛其疵癘 錫以豐穰 勿替虔奉 永荷靈賜 謹以牲幣 牢醴粢盛 庶品式陳明薦.”

는 것이, 어찌 보잘 것 없는 정성을 다한다고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의 보살핌을 입었으니 그 향기가 굴러서 복이 되어, 바람과 비는 때에 순하였고 백성들은 주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삼년을 이곳을 지키다가, 지금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니 구름과 노을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사이에 풀과 나무는 무성하였습니다. 정상을 다시 오르지 못하기에 올려다보며 아쉬워하면서 사사로운 간절함으로 공손히 인도하여 주기를 기다리니 뱃길에 장애가 없는 것은 누가 그 기미를 움직여서이겠습니까? 높은 산의 기세가 큰 바다의 영역까지 신께서 영험함을 보이신다면 바람은 기도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돛대에 편안하게, 깃발을 하늘거리며,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을 것이니, 신께서는 나의 바람을 거스르지 마십시오.”¹²⁰⁾

이원조의 제문에서 한라산신은 진산, 수호신이자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으로 바라왔고 이임을 하면서 풍량이 세지 않고 무사히 떠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개인 염원도 담겼다.

이 같이 제문을 보면 한라산은 이미 진산이자 수호신, 명산이라는 인식이 뿌리를 내려져 있었다. 한라산 제사는 산신제이자 하늘을 여는 천신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한라산 산신은 천신의 권능을 빌려 제주 백성들을 지켜 주는 산신이자 하늘의 기운과 풍운너우를 조절하는 산신, 전염병의 재앙을 막아주고 비와 바람을 관장하고 있는 산신으로 여기는 의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한라산신제는 유교적 이념을 심어주면서 제주에 대한 통치와 지배를 정당화하고 강화한 국가제사로 수용되었다(오수정, 2018). 한라산 산신제가 조선 초기 국가 제례로 지내다가 중단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양란을 거친 후 국가사전에 실리면서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는 국토수호 관점에서 제주의 지정학적, 군사적 입지를 중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120) 『耽羅錄』, “崱彼釜岳 鎮茲海圻 再度躬禋 曷盡誠菲 久荷神庥 轉蓄爲機 風雨順時 黎庶无飢 三年守土 今始言歸 雲霞冉冉 草樹葳蕤 更未躋陟 瞻望依依 替控私懇 恭俟指揮 舟行無礙 孰運其機 高山氣勢 大海範圍 神苟效靈 風不待祈 晏晏帆檣 獵獵旛旂 不疾不徐 神毋我違.”

3. 한라산 이용·관리

1) 국영 목마장

제주 사회는 고려 후기 몽골의 직접 지배를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조선이 건국됨에 따라 지방통치조직인 군현제도에 자연스럽게 편성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제주의 가장 큰 토호세력이었던 성주와 왕자의 명칭을 개정하였고, 도내 17개의 주현과 속현의 관제를 조정·분리하여 삼읍(三邑)체제로 정비했다. 특히 제주를 군현제라는 정치적 질서에 편입시키면서 제주를 인식했던 비중은 말 진상 및 공물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오수정, 2018; 김진영, 2002).

원에 의해 설치된 목마장에서 생산된 말이 조선의 대명(對明)외교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戰時)에서 더욱 필수 불가결했다. 조선 조정의 이와 같은 인식은 제주에 대해 강한 통치력의 행사를 수반했다. 태조 원년(1392)의 제주향교 설치, 태조 3년(1394) 우마적의 작성, 태종 4년(1404)의 노비적 작성, 태종 8년(1408)에 제주의 공부(貢賦)를 정한 것 등은 제주도 지방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었다(김동전, 2006).

제주에는 고려시기 목장을 관리하기 위해 동·서도의 경계가 정해졌는데 조선 태종 16년(1416)에는 이를 기초로 해서 동도를 정의현, 서도를 대정현으로 개편했다. 섬의 행정은 마정(馬政)을 주 임무로 하게 되었으며, 행정구획도 목장 분포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남도영, 1996).

제주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주목사 중심의 지배체제가 마련되었고, 세종대에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인 말에 대한 마정체제가 정비되면서 감목관(監牧官)¹²¹⁾의 역할과 권한이 제주목사에게 수렴되었다. 세조대에는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가 부여되면서 제주목사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김진영, 2002; 홍순만,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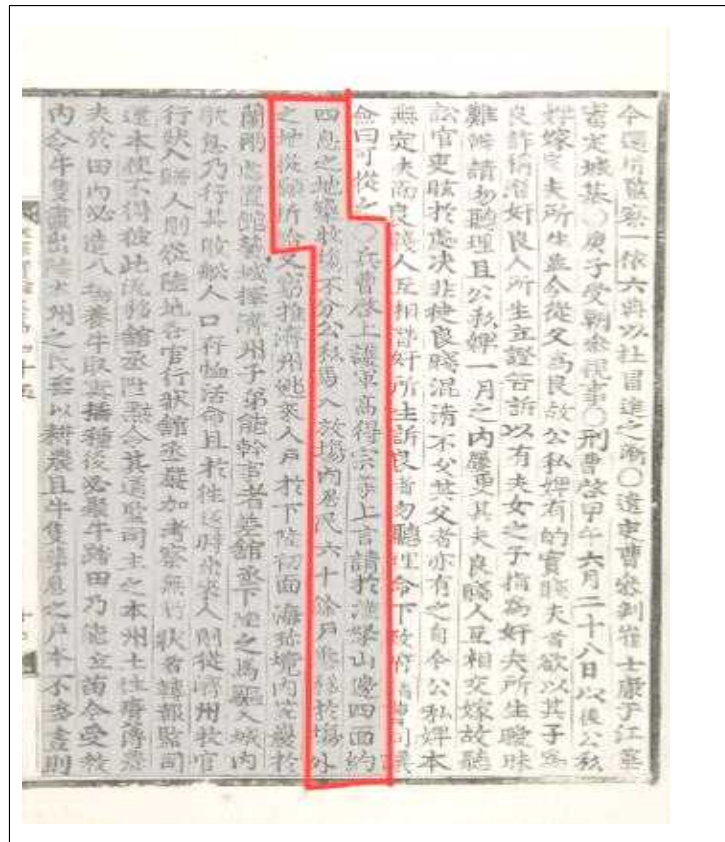
조선시대에서 세종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제주의 마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 명나라의 징마(徵馬) 요구로 인해 제주말의 쇄출(刷出)은 급격히 증가하

121) 조선시대 지방의 목장 업무를 담당하던 종6품 관직이다.

면서 진도, 강화도 등지에 새 목장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제주도만큼 여건을 갖춘 목장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진영, 2002).

이 세종대에 제주도 마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다. 한라산에 돌담으로 목장을 축조해서 말을 가둬기르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1년(1429) 병조에서 아뢴 기록(그림Ⅲ-6)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군 고득중 등이 상언하여 청하기를, 한라산가의 사면이 약 4식쯤되는 면적의 땅에 목장을 축조하여, 공사의 말을 가리지 말고 그 목장 안에 들여보내어 방목하도록 하고...(중략)왕이 그대로 따랐다.”¹²²⁾



<그림Ⅲ-6> 한라산 목장축조를 기록한 세종실록
출처: 한국고전종합DB.

이처럼 목장에 돌담을 둘러치는 축조(築造)를 상소한 이유에 대해 고득중은 이

122) 『世宗實錄』 世宗 11년 8월 26일, “上護軍高得宗等上言 請於漢拏山邊四面約四息之地 築牧場不分公私馬 入放場內...從之.”

후 상소문에서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갈아 일으켜서 수초(樹草)가 부족하게 되었다”¹²³⁾, “평지의 말은 바람을 가리우고 추위를 피할 길이 없어 겨울철이면 손상을 입고, 무식한 무리들이 많이 불을 놓아 말을 갈아버리면서 산에는 초목이 없어져 말을 번식시킬 수 없다”¹²⁴⁾고 설명했다.

목장 축조는 세종 16년(1434) 기록에 “앞서 제주에 목장을 축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한라산 허리로부터 평야에 이르기까지 마필을 놓아 마음대로 다니면서 키우게 하였사오나…근년에 주위에다 목장을 축조하고 공사의 마필을 아울러 모두 들여다 놓아먹인 뒤로는…”¹²⁵⁾ 내용을 근거로 하면 1429년부터 1434년 어간까지 목장 축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목장 축조에 대해 송성대·강만익(2001)은 말이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던 농경지 개간을 금지함으로써 이 지대를 목장지대로 지정한 다음 안정적으로 말을 사육할 공간을 확보하려는 국가정책이 숨어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목장 축조는 한라산의 공간을 분리해 국유지의 경계를 설정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전에는 하천과 오름 등으로 경계를 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마(私馬)와 함께 길렀기 때문에 공간구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목장 돌담을 축조하면서 목장운영에서 경계가 분명한 국영 목마장인 국마장(國馬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한라산 공간을 분화함으로써 한라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공마와 사마가 한데 사육되던 한라산에 구획을 정한 국마장의 탄생을 알린 것이다. 보편적인 공간이 특수한 장소로 변한 것이고 시각적인 경계인 돌담이 생성되면서 국가 소유 영역이라는 인식도 동반해서 발생했다. 목장 축성은 또한 이동, 출입의 자유가 통제되고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목장 축조는 상당한 수정과 개축과정을 걸쳐 이뤄지는데 민가와 농지를 구분하는 하жат성, 한라산 고지대로 우마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상жат성으로 골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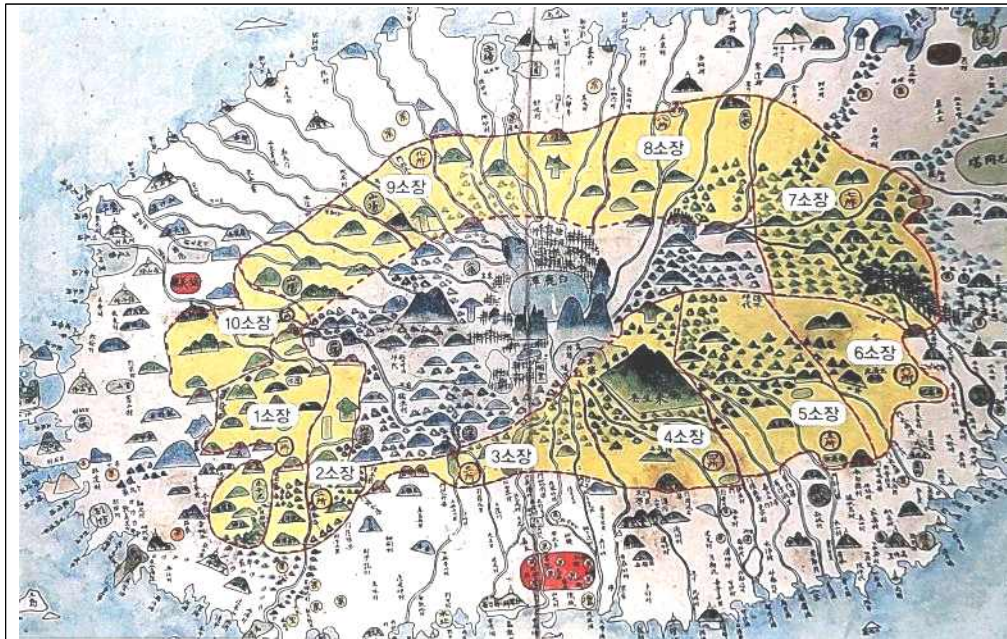
123) 『世宗實錄』 世宗 16년 6월 30일, “人多起耕 水草漸至不足.”

124) 『世宗實錄』 世宗 16년 6월 30일, “而平地之馬 無藏風避寒之處 至於冬節 多致故損 且無識之類數多 縱火耕田 若此不禁 則地氣焦爛 山無草木 馬之不蕃明矣.”

125) 『世宗實錄』 世宗 16년 5월 1일, “前此濟州不築牧場 自漢拏山上山腰以至平野 馬匹任意相通牧養 近年周回築場 公私馬匹 苙皆入放.”

이 만들어졌다. 이는 현재의 해발 200-600m의 중산간 지대인데 일제강점기의 국유림과 해방이후 국립공원 구역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한라산 공간구조에서 중차대한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목장 축조를 한 이후 성종대에 걸쳐 제주도 전체를 한라산을 중심으로 10개로 나누어 소(所·목장구역)를 설치하고, 이를 다시 자둔장(字屯場)으로 편성했는데 소마다 마감(馬鑑), 군두(群頭), 군부(群副), 목자(牧子)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갖췄다. 국마장 가운데 10소장¹²⁶⁾은 설치 당시 주위 165리였는데 정조 17년 무렵에는 597리로 확대되었다. 산마장(山馬場), 청마별목장(淸馬別牧場) 등이 추가되면서 국마장의 규모는 모두 870여 리를 차지하였고, 사목장도 한라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남도영, 1996).



<그림Ⅲ-7>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에 표시한 10소장

출처: 국립제주박물관, 2013.

10소장(그림Ⅲ-7)으로 대표되는 제주도의 목장은 국가의 마정조직에 의해 관리

126) 1-6소장은 제주목, 7-8소장은 대정현, 9-10소장은 정의현엿 담당했다. 1소장은 지금의 제주시 구좌읍 일대, 2소장은 제주시 조천읍 일대, 3소장은 제주시 회천동 일대, 4소장은 제주시 노형동·무수천 일대, 5소장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어음리 일대, 6소장은 제주시 애월읍·환경면 일대, 7소장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예래천 일대, 8소장은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천·고근산 일대, 9소장은 고근산·서귀포시 남원읍 일대, 10소장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이다.

되었다. 즉, 중앙정부는 각 목장의 말이나 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람에 대한 호적 작성과 마찬가지로 우마적(牛馬籍)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이에 관여하는 관리들을 마정조직에 흡수했던 것이다. 우마적에는 나이, 털의 색깔, 관리하는 주인의 성명 등을 기록하였다. 태조 7년(1398) 제주에서 우마적을 작성한 결과 말은 4,414필이고, 소는 1,914두였다. 우마적은 모두 5통이 작성돼 목장을 관리하는 감목관·제주목사·전라도관찰사·사복시(司僕寺)·병조에서 각각 1통씩 관리하였다. 중앙정부는 이 우마적만 놓고서도 각 목장의 마필 상황을 알 수 있었다(김동진, 2006).¹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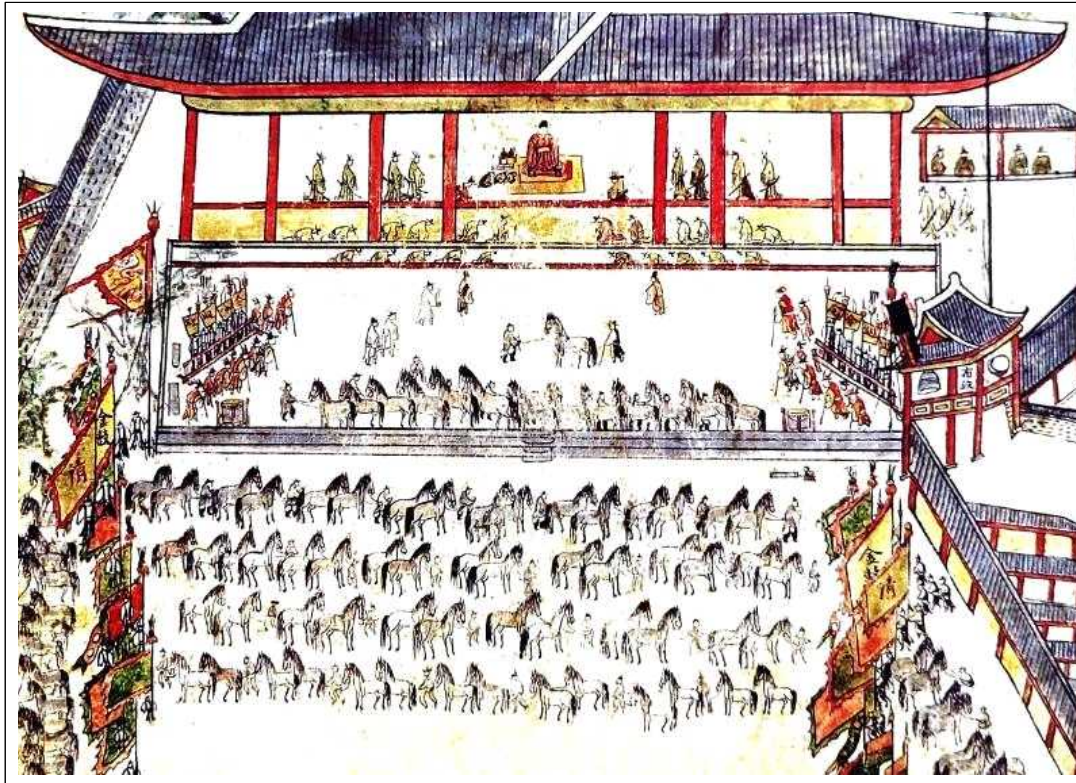
국마장 마필수는 마적에서 살필 수 있는데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태조 7년(1398)에는 4,414필, 세종 28년(1446)에 9,780필, 임란을 겪은 선조 37년(1604)에 4,800필, 효종 4년(1653)에 1만385필, 현종 4년(1663)에 1만2,411필, 숙종 29년(1703)에 9,372필, 철종 12년(1861) 이후는 6,000 필 정도로 제주목장에는 평균 1만여 필의 말을 목양하였다고 할 수 있다((남도영, 1996).

이는 전국 목마수의 약 40% 이상을 점유하는 실정이었기에 조선시대 역대 왕들은 제주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국용마 조달은 물론 말을 진상하는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17-18세기 제주 진상마의 종류와 규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진상마의 종류는 목사나 판관의 교체시 체임마(遞任馬), 삼명일에 헌납하는 탄생마(誕生馬)·동지마(冬至馬)·정조마(正朝馬), 매년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연례마(年例馬), 연말에 상납하는 세공마(歲貢馬), 임금의 어승마(御乘馬), 특별한 용도의 차비마(差備馬), 흉변에 대응하기 위한 흉구마(凶咎馬), 물건을 실어 나르는 노태마(駑駘馬) 등이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제주에서 국마 약 500여 필이 매년 진상되었다(김경옥, 2001).

마정이 핵심 업무였던 만큼 제주 내 각 지역에서 공마(貢馬)를 점고하는 것도 중요한 행사였다. 공마는 비변사에서 제주어사를 파견하여 관리하였고, 해당지역 목사의 감목관 그리고 현감 등은 수시로 구마(驅馬)와 점마(點馬)를 통해 국마를 관리하였다.

127) 제주에는 국영 마목장과 함께 우목장도 설치됐다. 우목장은 황태장, 천미장, 모동장, 별둔장 등 4개소 조성됐다. 4개의 우목장은 해발 200m 이하의 해안가에 만들어진 점을 고려해, 본 연구는 한라산 중산간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마목장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했다.

삼읍 감목관은 말의 징발을 위하여 결책군(結柵軍)과 구마군(驅馬軍)¹²⁸⁾을 대동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목장에서 징발된 말은 제주목 관아인 관덕정 앞에서 다시 우마적과 일일이 대조한 후, 선박으로 운반되어 해남·강진·영암 세 곳에 이르게 된다(김동전, 2006).



<그림Ⅲ-8>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
출처: 제주시, 1999, 탐라순력도 영인본.

제주 국마장에서 말을 진상하는 공마봉진(貢馬封進)(그림Ⅲ-8)이나 점마하는 과정은 이형상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이형상이 제주목사로서 제주를 순력하면서 기록한 것인데 각 지역마다 마정관련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졌다. 제주목사의 핵심 업무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탐라순력도』에서 순력장소 마다 기록한 말을 합하면 8,627필로 <표Ⅲ-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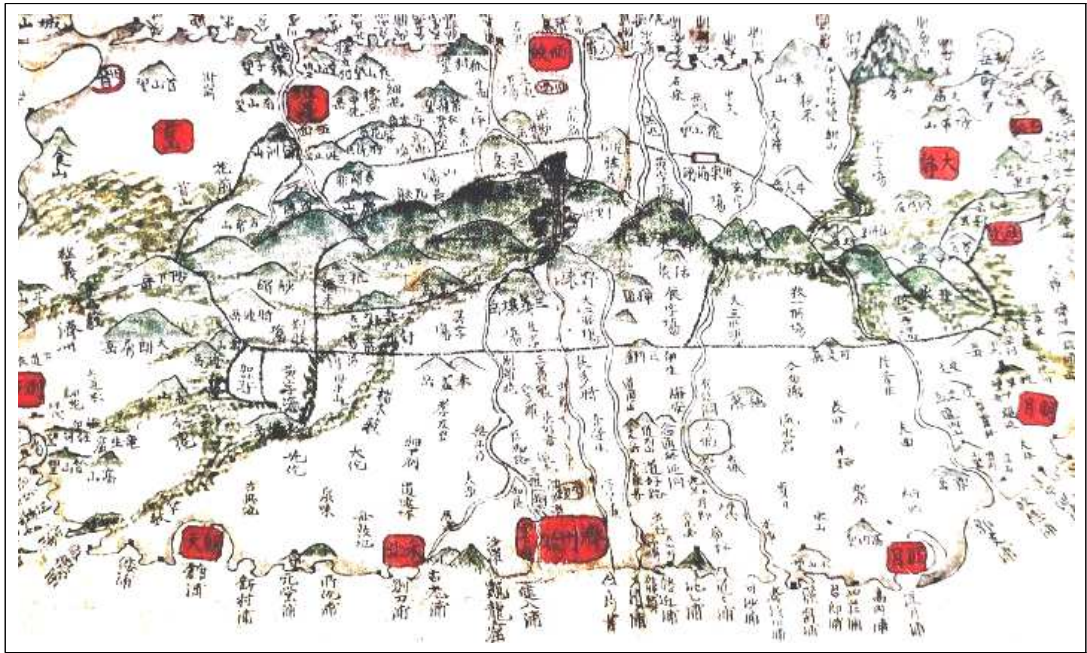
128) 결책군이란 넓은 목장의 말을 붙잡기 용이하도록 임시 시설물인 원장과 사장을 설치하는 군인이다. 원장은 우마를 일정한 장소에 취합하기 위해 만든 원형목책이며, 사장은 취합된 우마가 1필씩 통과하게 만든 목책 통과로이다. 구마군은 바로 이 원장과 사장으로 말을 몰아넣는 임무를 맡은 군인이다. 우마가 목책 통과로를 지날 때 공마의 대상 말을 붙잡는 것이다.

와 같이 나타났는데 순력도의 서문에는 국마 9,372필로 기록하고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힘든 상황이고, 순력의 점검에는 사(私)목장에서 기르는 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탐라순력도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녹산장(鹿山場), 상장(上場), 침장(針場) 등의 목장에서 모은 것으로 보이는 말을 확인하는 산장구마를 제외하면 정의현 지역이 1,178필로 가장 많았다. 대정현 지역은 849필로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대정현에서는 소를 주로 사육, 관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귀조점이 237필로 말 사육두수가 가장 적었는데 급경사 지역이 많아 사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지리적 여건을 반영한 듯하다. 순력의 기록에서는 목자와 보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1인당 말 사육두수는 6필 정도로 확인됐다.

<표Ⅲ-2>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마필규모와 마정인원

순력장면 명칭	마필	마정인원
공마봉진	어승마 20필, 연례마 8필, 차비마 80필, 탄일마 20필, 동지마 20필, 정조마 20필, 세공마 200필, 흥구마 32필, 노태마 33필	
산장구마	2,375필	구마군 3,720명, 목자와 보인 214명
조천조점	505필	목자와 보인 87명
별방조점	946필	목자와 보인 187명
정의조점	1,178필	목자와 보인 190명
서귀조점	237필	목자와 보인 39명
대정조점	849필	목자와 보인 123명
명월조점	1,064필	목자와 보인 185명
애월조점	1,040필	목자와 보인 181명
계	8,627필	구마군: 3,720명 목자와 보인: 1,206명

출처: 탐라순력도에서 추출해서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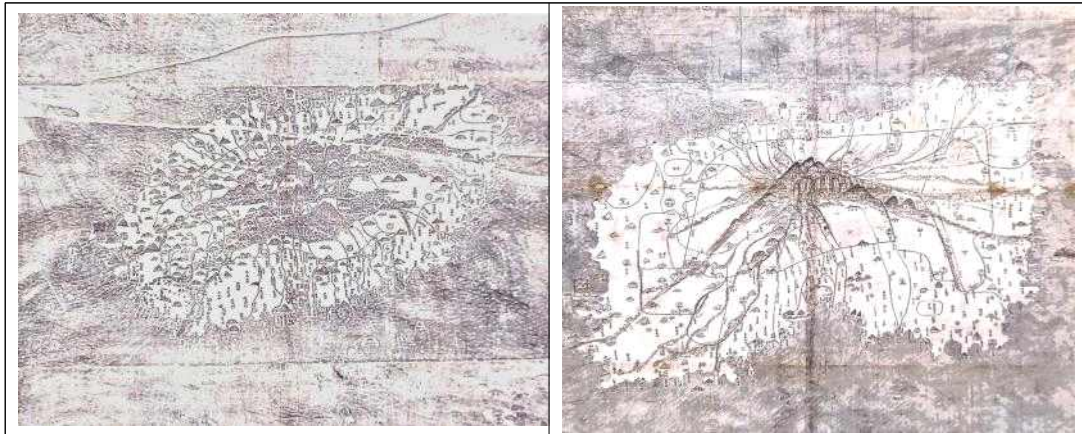


<그림Ⅲ-9>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
출처: 제주시, 1999.

제주를 국마장으로 중시했다는 당시 현실은 고지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탐라순력도』 한라장축(漢拏壯囑·그림Ⅲ-9)은 목마장과 해안지의 경계이기도 했던 돌담을 점선으로 그려 넣었으며 각 소장의 명칭도 기입하였다. 한라장축은 9개의 진(鎭)을 선명하게 표시해놓은 점을 비롯해 산악, 도로, 마을명, 포구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입하면서 제주의 상황을 축약해놓았다. 여기에 목장 구역을 선명하게 표시한 것은 국마장 운영 및 관리가 당시 제주의 핵심사항이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한 지리적 경계임을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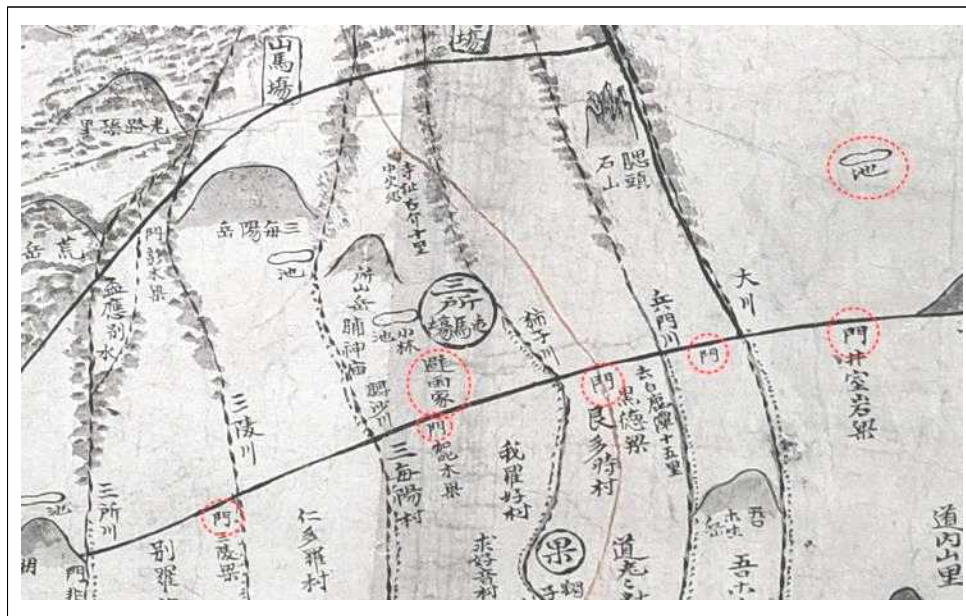
「탐라지도병서」(1709년 제작·그림Ⅲ-10)는 10소장을 비롯하여 목장의 경계가 되는 돌담과 함께 목장을 출입하는 문(門)의 명칭까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전반 제작)는 목장관련 내용이 매우 상세해 마정이라는 실용적인 목적 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를 피하던 곳인 피우가(避雨家)가 그려져 있고 경계 돌담에 출입문도 표시(그림Ⅲ-11)되어있다(오상학, 2004).

또 ‘지(池)’로 표시된 곳은 말에게 물을 먹이던 곳으로 보이는데 말 사육에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목장의 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목장의 축조가 견고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목장과 목장사이에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목장운영이 보다 전문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Ⅲ-10> 탐라지도병서(좌)와 제주삼읍도총지도(우)

출처: 좌측은 제주대학교 박물관, 2020. 우측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그림Ⅲ-11> 제주삼읍도총에 표시된 국마장 시설

출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마정을 중시 여겼다는 것은 『경국대전』 병전에도 나오는데 “마적을 점검하여 위반되거나 착오된 경우에는 감목관을 파출하고 목자 등은 엄히 형장을 친다”¹²⁹⁾거나 “낙인에 간계를 부린 정상이 탄로 난 경우에는 감목관을 파출하고 군두와 목자는 장 100을 치고 도 3년에 처한다”¹³⁰⁾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걸쳐 조정은 제주목장에서 공납하는 제주마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제주마를 보존하기 위해 종마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목장운영에 필요한 섬 주민들을 구휼하고 통제하는데도 적극적이었다(김경옥, 2001).

1894년부터는 목마장을 유지시켰던 감목관제와 공마제도가 폐지되어 공마수송이 종료되고, 1897년부터는 공마를 금납으로 대신함으로써 국마장은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강만익, 2013).

2) 사냥

조선시대 산은 국가와 백성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생활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쳐 엄격히 관리되었다. 노루나 고라니와 같이 나라의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군사훈련장과 사냥금지구역인 강무장(講武場)을 설정하여 일반의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오영석·최병석,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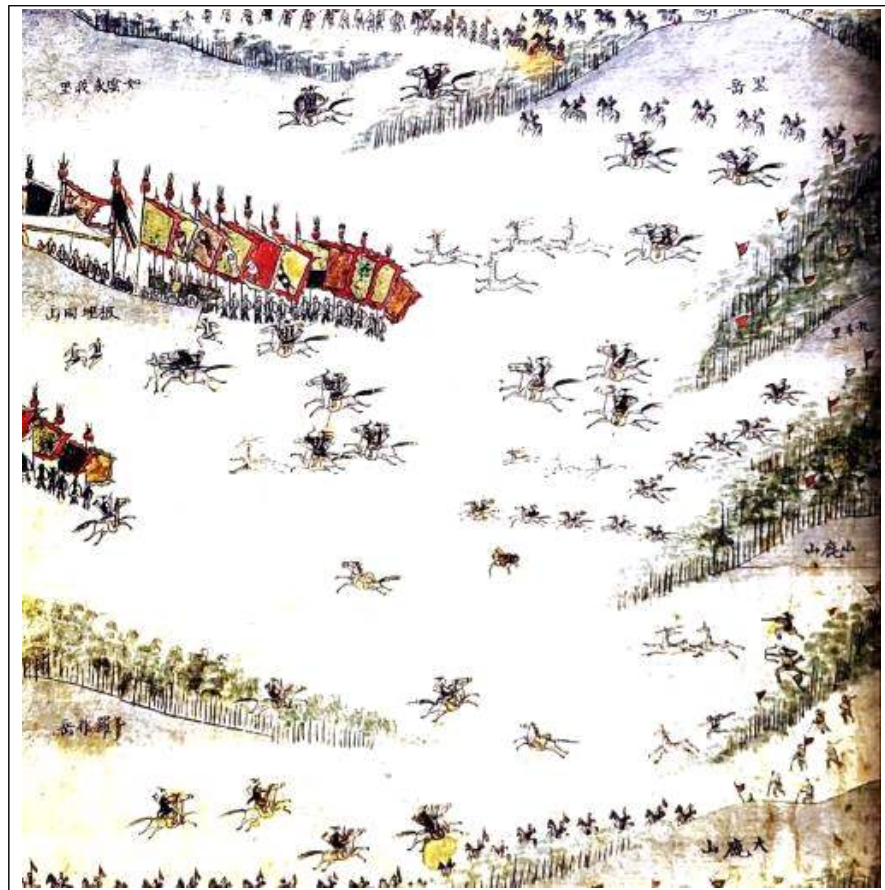
진상과 육류 확보를 위한 사냥은 한라산에서 이뤄진 중요한 자원확보형 이용이다. 관가에서 시행하는 조직적인 사냥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공물(貢物)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형상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 적힌 공물 물품의 종류를 보면 일 년 안에 올려야하는 품목이 공마 400-500필, 전복 9,000여 첩, 오징어 700여 첩, 산과(酸果) 3만8,000여 개, 말안장 40-50부, 사슴가죽 50-60령, 노루가죽 50령, 사슴 혀 50-60개, 사슴 꼬리 50-60개, 사슴 육포 200여 조, 각종 약재 470여 근 등이다.

이 정도 물량의 공물을 올려 보내려면 조직적이고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사슴과 노루의 수효를 보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대대적으로 사냥해야 공물의 수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 군사력이 동원된 사냥활동이 있어야 공물 물량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129) 『經國大典』 兵典, 廢牧, “點馬違錯者 監牧官罷黜兼監牧同 牧子等嚴刑現推.”

130) 『經國大典』 兵典, 廢牧, “或有奸情現發者 則監牧官罷黜 群頭·牧子杖一百徒三年.”

사냥하는 과정은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에서 교래대렵(橋來大獵)이 참고가 된다. 숙종 28년(1702) 10월 11일 교래 지경에서 진상을 위해 짐승을 사냥하는 장면이다. 삼읍의 수령과 감목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군 200명, 보졸 400명, 포수 120명 등을 동원해서 사슴 177마리, 멧돼지 11마리, 노루 101마리, 꿩 22마리를 잡았다고 기록했다.¹³¹⁾



<그림Ⅲ-12> 탐라순력도의 교래대렵
출처: 제주시, 1999.

교래대렵(그림Ⅲ-12)을 보면 사냥터는 대록산, 소록산, 흑악, 구두리, 판매동산, 여운영아리 등의 오름에 둘러싸인 곳으로 말을 타고 사슴과 노루를 쫓는 장면, 올가미로 사냥감을 낚아채는 장면, 활과 총으로 쏘는 장면, 사냥터 주변에 진을

131) 『耽羅巡歷圖』 橋來大獵, “進上山獵 三邑守令監牧官 馬軍二百名 步卒四百餘名 砲手一百二十名 鹿一百七十七口 猪十一口 獐一百一口 雉二十二首.”

친 병사들 장면 등을 비롯해 말에서 떨어진 병사의 모습까지 실감나게 묘사했다.

이처럼 한라산에서의 사냥은 단순히 공물인 노루와 사슴을 포획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마군과 보군 등이 협력 하에 사냥을 함으로써 군사훈련의 성격도 갖고 있다.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은 정기적으로 이뤄졌으며 군사훈련장을 겸한 사냥터도 고정적인 장소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익태의 『지영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새벽에 바로 압악 사냥터로 향했다. 산길로 거의 30리 거리였다. 순력할 때는 대개 동·서 양쪽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게 돼 있었다. 장관이 아병을 거느리고 먼저 산을 에워싸고 기다리고 있었다. 산 위의 막사에 도착했다. 해가 저물어 노루와 사슴을 평평한 들로 내몰자 기마군이 말을 달려 앞 다투어 활을 쏘아 잡았으며, 숲과 골짜기를 뛰어넘었다. 말은 나는 듯하고 사람은 빠르니 사냥에 숙달됐음을 알 수 있었다.”¹³²⁾

이 기록에서 제주목사가 순력을 할 때, 사냥은 거의 필수적인 고정 행사로 보인다. 압악은 현재의 아부오름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주 동쪽의 대표적인 사냥터이자 군사훈련장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사냥터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사냥이 이뤄지는 곳으로 보인다. 아부오름 주변은 높은오름, 백약이오름, 거센새미오름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숲과 골짜기’라는 표현으로 추정한다면 동거문오름 주변 곳자왈로 보인다.

군사훈련을 겸한 사냥은 이원조의 『탐라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냥 과정을 묘사한 부분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군사들을 점열하는 일로 노루목에서 사냥을 행하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이다…(중략) 하루 전날 각 영장이 군령을 받고 나가 사냥터에 군사들을 모아 산림 수십리를 빙 둘러 각각 미리 정해놓은 구역을 지켰는데, 보군이 짐승들을 몰아 내려오면 마군이 사냥터 좌우로 벌려 진을 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고, 아병은 노루목 장대 앞에 진을 쳤다. 삼읍을 통틀어 말을 잘 달리면서 총을 가지고 개를 거느린 자는 모두 와서

132) 『知瀛錄』, “早朝直向狎岳獵場 山路幾三十里 出巡時例 有東西兩處觀獵之事 故將官領牙兵二哨 先往圍山以待 到嶽上依幕 向晚驅出獐鹿於平郊 騎軍馳逐 爭先射殺 而躍越林壑 馬飛人輕 可見其熟習於畋獵也.”

모이는데, 닭이 울자 영에서 출발했다...(중략)조련하는 곳에 도착하니 새벽이 막 밝았다. 영과의 거리는 25리이다. 대호포를 쏘자 각 영이 산 속 숲에 있다가 차례로 포로 응하며 점차 에워싸며 내려오니 노루와 사슴이 숲에서 한꺼번에 뛰어나왔다. 밖에 있던 마병과 총을 가지고 개를 거느린 자들이 앞 다투어 기예를 뽐냈다. 달려 오르는 장대의 가파름이 수백 척인데도 오르내리는 것을 돌연 평지를 밟는 것과 같이 하였다. 마병이 올 차고 굳센 것이 과연 육지가 제주만 못하다.”¹³³⁾

이를 보면 군사훈련을 한 강무장이자 사냥터는 ‘노루목’으로 이 곳 역시 예전부터 지속적인 사냥 무대로 기록했다. 노루목은 현재 노루손이오름(그림Ⅲ-13)으로 추정된다. 영에서 25리라고 했는데, 노루손이오름은 제주시 옛 관아터에서 직선거리로 10km가량 떨어진 것으로 보면 거리상으로도 비슷하다.

오름 주변은 해발 500m 내외이고, 지리적으로 남쪽으로는 아흔아홉골이 위치했다. 아흔아홉골은 제주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계곡이 여러 개 겹쳐있는 곳으로 계곡에서 사슴, 노루를 몰고 내려오기에 좋은 지형이다. 여기서 몰고 온 노루와 사슴을 다소 평평한 지대에서 사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영록』에서 “말은 나는 듯하고 사람은 빠르니 사냥에 숙달됐음을 알 수 있었다”는 기록과 『탐라록』에서 “마병이 올 차고 굳센 것이 과연 육지가 제주만 못하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제주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산에서 활동하는데 특화된 점을 알 수 있다. 한라산에서 사냥을 겸한 병사들의 집단적인 동원과 사냥, 군사훈련은 당시 제주목사의 지휘나 허가 아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33) 『耽羅錄』, “因軍兵點閱 行山獵於獐項 古例也… 前一日 各領將受軍令出去 聚軍於獵場 環山林數十里 各守信地 步軍驅禽獸而下 馬軍列陣於獵場左右 使不得放逸 牙兵四哨 陣於獐項 將臺之前 通三邑儒武雜役 善馳馬持銃率狗者 皆來會合 數萬人當日鷄鳴 自營離發…到操場 天纔曙 距營二十五里也 發大號砲 各營在山藪中 次次應砲 漸次圍下 獐鹿放出於林 外在右馬兵及持銃率狗者 爭先逞技 踴躍馳逐 獲禽則跑馬獻馘 馳上將臺 峻岌數百尺 上下倏忽 如履平地 馬兵之精強 果陸地之所不如也.”



<그림Ⅲ-13> 노루손이오름과 아흔아홉골
출처: 연구자 촬영.

제주도에서 이뤄진 사냥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공물로 진상하는 노루와 사슴 가죽을 마련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냥을 시행하는 폐단을 거론한 것이다. 세종 9년(1427) 6월 10일 기록에 제주찰방(濟州察訪) 김위민(金爲民)이 올린 상소에서 폐단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주는 토지가 본래 모두 모래와 돌이어서 농리가 풍족하지 못하므로 세궁민의 생계가 진실로 걱정이 되는데, 번번이 내려온 안무사가 6, 7월의 한창 농사철을 당하여 진상할 안롱에 사용되는 장록피를 칭탁하고서 농민들을 다 몰아내어 여러 날 동안 사냥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잃게 하여 그 폐단이 여간이 아니오니...”¹³⁴⁾

성종 3년(1472) 2월 23일 기록에는 제주목사 이약동(李約東)에게 공진하는 물건을 감하고 사냥할 때 민폐를 제거토록 한 내용이 보인다.

134) 『世宗實錄』 世宗 9年 6월 10일, “濟州土地 本皆沙石 農利不饒 小民之生 誠爲可慮 每等按撫使 當六七月正農之時 托以進上 鞍籠獐鹿皮 盡驅農民 累日田獵 使民失時 其弊不小 請傳旨外班 鹿皮鞍籠與毛獐皮阿多介等物 一皆蠲免 以革其弊.”

“공진하는 모든 물건을 민간에 강요하니, 그 폐단이 작지 않다. …녹자와 장피는 본시 50장으로 정하였으나 이제 40장을 감하고 단지 10장만을 봉하여 올리고… 이제 들으니, 세 고을의 수령이 사냥하는데 비록 하룻밤을 지내더라도 반드시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서 거처하므로 그 폐단이 매우 많다 하니, 대저 임금의 거가가 이르는 곳도 다만 장막을 설치할 뿐인데, 신자로서 이같이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서 민폐를 제거하도록 하라.”¹³⁵⁾

한라산 계곡과 숲에서 이뤄진 사냥은 단순히 공물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군사훈련의 과정이기에 국마장 운영과 더불어 관가에서 행한 중요한 업무였다. 이에 따른 폐단도 발생해 조정에서 공식적인 주의조치가 내려질 만큼 관심사항이었다. 사냥은 한라산에서의 자원확보 형태라 본다면 이와 더불어 고정적인 사냥터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은 공간점유형태의 한라산 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목재

조선시대 한라산에 대한 국가 관리는 국마장이라는 형태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태의 자원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목재는 배와 관청을 짓는 재료가 되므로 엄격하게 관리되었으며, 시장(柴場)의 사유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중국 원의 지배하에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대량으로 벌목을 행한 탐라시대와 비교해서는 벌목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선박 건조 등을 위해 여전히 한라산에서 목재를 확보했다. 여기에 더해 회귀 수목이나 약초를 한라산에서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시대 한라산에서의 목재 채취에 대한 기록은 드물다. 세종 7년(1425) 5월 8일 기록에 “제주도에서 비거도선(鼻居刀船)¹³⁶⁾ 28척을 건조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전선 건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장 조성과 화전(火田) 등으로 산림이 상당량 사라진 점도 목재채취에 대한 기록이 빈약한

135) 『成宗實錄』 成宗 3년 2월 23일. “凡供進之物 強求民間 其弊不小 自今無灰實貝子勿進 鹿子獐皮本定五十張 今除四十 只十張封進...今聞三邑守令打獵 雖經一夜 必伐木造家以處 其弊甚多 凡車駕所至 但設幄而已 臣子而可爲此乎 後勿如是 以除民弊.”

136) 조선시대 왜구를 치는데 썼던 거룻배 모양의 작고 빠른 병선이다.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라산에서의 목재 이용은 예종 1년(1469) 2월 29일, 고택(高澤)이 올린 상소문이 참고가 된다.

“한라산의 소산물은 안식향·이년목·비자·산유자 등과 같은 나무와 선재들인데, 이 모두가 국용에 절실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산 근처에 사는 무식한 무리들이 이득만 취하려고 다투어 먼저 나무를 베고 개간을 하여 밭을 만들어서, 거의 모두가 붉게 되었습니니다.”¹³⁷⁾

성종 3년(1472) 1월 30일 기록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

“안식향·유자·비자목은 국용에 가장 절요한 것으로, 모두 한라산에서 나옵니다. 근래에 전부가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을 하니, 실로 염려할 만합니다.”¹³⁸⁾

한라산에서 나오는 안식향, 이년목, 유자, 비자나무는 국가에서 쓰는 재목으로 가치가 있는데 개간이나 화전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 내용이다.

다음의 성종 24년(1493) 기록도 한라산 목재 자원을 무단 벌채를 걱정한 내용이다. 벌채를 금지한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도 보인다.

“산 중턱 이상은 지맥이 두터우나 국용에 가장 긴요한 산유자목, 이년목·비자목·안식향 나무가 많이 생산되므로 일찍이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표(標)를 세워서 벌채를 금하고 경작을 금하게 하였고, 산 중턱 이하의 주위에 열 군데 목장을 설치하였는데…”¹³⁹⁾

이 내용을 보면 한라산 중턱이상에 ‘표’를 세워서 벌채를 금지하는 지역을 지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비정이 되지 않지만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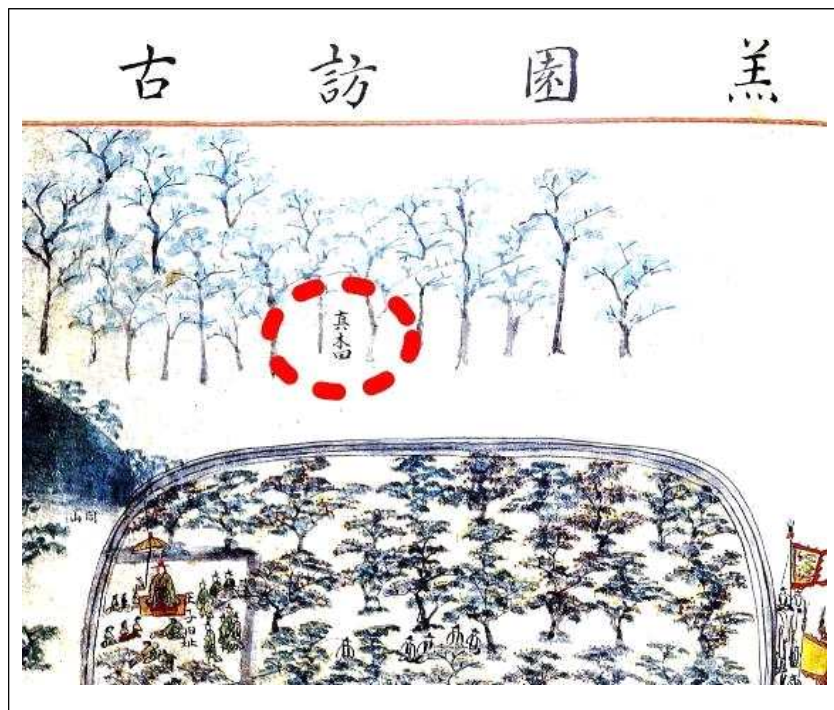
137) 『睿宗實錄』睿宗 1년 2월 29일, “此山所產 如安息香二年木樵子山柚子等木及船材 皆切於國用 近年以來 山傍所居無識之徒 不顧大體 姑息取利 爭先斫木墾田 幾至盡緒.”

138) 『成宗實錄』成宗 3년 1월 30일, “安息香 柚子 樵子木 國用最切 而皆出於此山 近來田夫厭舊務新 斫而耕之 實爲可慮.”

139) 『成宗實錄』成宗 24년 8월 5일, “山腰以上 地脈肥厚 然而國用最緊 山柚子木 二年木 樵子木 安息香木多產焉 曾遣敬差官 立標禁伐禁耕 山腰以下周回設十牧場…”

의 산림정책인 금송(禁松)¹⁴⁰처럼 왕실이나 조정에서만 목재를 사용하는 통제장치가 한라산에서도 적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특정 수종(樹種)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탐라순력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정현성에서 동쪽으로 55리(현재의 염돈마을 부근)에 위치한 고둔과원(羔屯果園)을 방문한 모습인 ‘고원방고(羔園訪古)’를 보면 <그림Ⅲ-14>와 같이 ‘진목전(眞木田)’이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참나무 숲을 특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Ⅲ-14> 탐라순력도의 고원방고
출처: 제주시, 1999.

또한 관가에서는 정기적으로 한라산에서 생산한 솥과 뿔나무 등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원조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의 기록을 보면 목사와 판관이 뿔나무, 솥을 고정적으로 공급을 받았고 산촌에서는 꿀 대신에 솥을 거둬들이는 내용이 있다. 이 가운데 중요한 연료이자 생활자원인 솥은 산간지역인 한

140) 금송은 조선시대 산림 정책으로, 국가에서 소나무의 작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도성을 둘러싼 4산과 풍수적 요충지의 산림을 보호하고, 왕실 상장례, 궁궐 및 관청 건축, 전선 및 조운선과 같은 선박용 등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에 금산을 지정하고 정책적으로 작별(斫伐)을 금지하였다.

라산 숲 지대에서 생산됐으며 일제강점기에도 한라산 자원채취 형태로 이용이 이어졌다.

4) 화전

한라산 산간에서 이뤄졌던 화전 경작에 대해 조선 조정은 국마장의 말 사육이 중대한 시점에는 통제적인 정책을 취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는 화전 경작을 일정 부분 허용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편으로 삼았다.

한라산 산간에서의 경작은 국마장 운영으로 인해 강제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몰래 경작을 하면서 조정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세종 12년(1430) 기록에 “제주 한라산의 목장을 개축하였으니, 주위가 165리이었다. 민호 344호를 옮기었다”¹⁴¹⁾는 내용을 보면 경작민이 강제 이주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들 경작민은 대부분 숲이나 초지에 불을 놓아 땅을 일군 뒤 농사를 짓는 화전민인데 지력이 쇠약해지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세종 16년(1434)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혔다.

“한라산의 산상과 산하의 평지에서 목양할 수 있는 곳은 모두 경작을 금하고, 이 앞서 장내에 기경한 땅은 비록 목장을 파한 뒤에라도 다시 경작하지 못하게 하소서. 목장 밖에 묵은 땅을 경작하는 것도 금하여 목양을 넓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⁴²⁾

국마장 운영을 위해 한라산에서의 경작과 경작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조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통제와 조치에 따라 목장에서의 경작이 일절 금지되자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 부분도 보인다. 『세종실록』 세종 24년(1442)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병조에서 제주 경차관 이명겸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주는 사람은 많고 땅은 좁습니다. 만약 신규 목장을 한꺼번에 다 경작을 금지한다면 주민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청하읍건대, 한라산 목장과 옛 목장을 백성에게 경종하도록 허가하고, 서로 교대하여 목

141) 『世宗實錄』 世宗 12년 2월 9일, “改築濟州 漢拏山牧場 周圍一百六十五里 移民戶三百四十四.”

142) 『世宗實錄』 世宗 16년 6월 14일. “漢拏山上及山下平地牧養可當處 并皆禁耕 前此場內起耕之地 雖是破場之後 勿令還耕 場外時耕之地 私自築場 禁耕陳地 以廣牧養 從之.”

혀서 마필을 방목하게 한다면 민생과 마정 양쪽이 다 마땅하게 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⁴³⁾

생계의 문제로 경작을 허용했지만 한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국마의 생산과 조달, 공급이 가장 핵심적인 업무였던 만큼 경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다만 세금을 부과하는 목장전 외에 주민들은 관(官)의 눈을 피해 경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목장 주변에 공토를 마련해서 토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제주목의 전체 전답에서 상당량을 차지했다(김경옥, 2001). 목장 내 화전 경작이 일부 허용되면서 화전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토지로 인식되었다. 한라산 중산간 국마장 지대 경작관련 세금은 조선 말기까지 제주의 중요한 세원이 되었다. 만약 매년 경작하면 정규 전세 부과 대상이지만 부정기적으로 경작하면, 경작할 때만 납세하는 수기수세(隨起隨稅)의 대상이다. 이 세목이 바로 목장세, 가경세, 화전세인데 목장 안에서 경작하는 토지를 목장전, 장전(場田)이라 부르고 공한지나 황무지를 개간, 경작하는 토지를 가경전(加耕田)이라 했다(진관훈, 2022).

특히 조선 말기 국영목장 관리 부서였던 사복시 자체가 목마장 운영을 방기한 채 재정확충을 위해 둔전(屯田) 확보에 혈안이 되면서 목마장은 수세지(收稅地)로 변모하고 말았다(강만익, 2011). 구한말에는 중산간 화전 등에 대해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거나 수탈이 이뤄지면서 민란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서의 경작은 일제강점기로 이어져 면적이 상당했다. 일제는 1911년 삼림령 아래 화전을 금지하는 처벌규정이 법제화되고 1926년에는 국유임야의 개발과 단속을 위해 본격적인 화전정리 사업이 단행되면서(김정아, 2020) 한라산 국유임야에서의 화전은 중지부를 찍었다.

143) 『世宗實錄』 世宗 24년 7월 29일, “兵曹據濟州敬差官李鳴謙啓本啓 本州人多地窄 若新舊牧場 竝皆禁耕 則居民生理可慮 請漢拏山牧場及舊牧場 聽民耕種 互相陳荒 移放馬匹 則民生馬政 兩得其宜 從之.”

IV. 일제강점기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

1. 한라산 인식

1) 산 인식

일본의 서구화는 메이지유신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메이지유신 정부가 추진한 세 가지 국책인 문명개화·식산흥업·부국강병 등은 서구화를 갈망하는 심리를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19세기의 마지막 30년 간 자본주의가 자유경쟁 시기에서 독점단계로 들어가고 서구열강들의 해외식민지 쟁탈전이 절정에 도달하였다. 일본의 서구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발전전략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메이지유신으로부터 20여년 기간에 서구화 과정을 초보적으로 완성하였다(정의, 2014).

일본의 이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자연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산이나 하천 등 삼라만상에 ‘카미(gods, spirit)’가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자연을 외경(畏敬)하고 숭배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특히 무속적 자연관에 있어서 자연은 신(god)이고, 정령(spirit)이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였다. 자연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온 무속적 습성이 일본민속이다(矢野尊義, 2012).

그런데 메이지유신 시대가 전개되면서 일본인은 서양에서 자연과학과 근대철학을 배워 일본의 전통사상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자연에 대한 개념은 자연과학의 도입과 함께 일변했다고 할 수 있다(矢野尊義, 2012). 일본이 수용한 서구의 자연관은 유럽에서 배태된 기계적 자연관인 것이다. 일본 메이지유신 주도층이 유럽으로 견학을 가고, 유럽에서 문물을 받아들인 점을 고려하면 유럽식 자연관 유입은 당연한 귀착이다.

유럽은 중세까지도 자연은 여전히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로 남아있었다. 다가갈 수 없는 거친 자연과 항상 대결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두려움이 그만큼 컸

던 것이다. 자연에 대한 생각과 자연의 실제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들어서였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자연의 신비가 하나씩 벗겨지면서 자연은 이제 분석을 통해 설명 가능한 대상이 됐다. 자연은 합목적적인 질서를 지니고 있으며, 수학적 작동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와 같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자연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김용민, 2001).

근대 자연관은 자연에서 신비적인 베일을 벗기는 데서 성립하여 왔으며 영국의 경험론 선구자인 베이컨(1561-1626)은 자연을 관찰하여 “자연은 복잡함으로써만 정복된다”며 유물론의 자연관을 확립했다. 근대철학을 꽃피운 데카르트(1596-1650)도 인간은 자연계의 주인이자 소유자라 했으며 자연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진교훈, 1998). 이는 서양의 자연관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예속되고 정복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이서행, 2000).

서구가 기계론적 자연관을 가진 반면 동아시아는 역사상 그러한 자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동아시아에서 자연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천지’나 ‘만물’이고, 나름의 내적 지향점을 가지고 존재하는 유기체로서 받아들여졌다. 자연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정복을 정당화해온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과는 다르다(정재현, 2006).

기계론적 자연관은 자연에서 신비적 힘을 제거하고 단순한 물질로 전락시킴으로써 자연을 인간의 번영을 위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다(김용민, 2001). 인간이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에 매진하게 되었던 것이다(김성덕·남정호, 2017).

일본은 이런 기계론적 자연관에 기초한 유럽의 자연과학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의 바탕을 만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상적 배경은 한라산에도 투영돼 산이 지닌 신(神)적 표상을 제거하고 자원의 개발과 독점적 이용, 국유권의 강화와 통제 등을 통한 이익추구 대상으로 객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식민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럽 열강은 주인이 없거나 미개간(未開墾)라고 여기는 땅에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숲, 방목지, 수자원, 그리고 다른 공유지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했는데(Neumann, 1996) 일본 역시 비슷한 과정을 밟으면서 토지와 임야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김지영, 2021).

2) 인식의 표현: 소유권 강화

(1) 산림조사

일제강점기 한라산에 대한 관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국적으로 실시한 산림정책¹⁴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0년 이후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통해서 한반도 산림자원에 대한 식민지정책을 펴기 위하여 조선시대에 실시해 오던 산림의 공용제도와 사점(私占) 금지제도를 폐지하고 산림의 소유 구분, 특히 국유와 사유의 구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임야조사위원회를 두고 연고관계를 사정(査定)하여 나라가 소유하는 국유림과 민간인이 소유하는 민유림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이처럼 한반도의 산림자원을 정리하기 전에는 관리해야 할 국유림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처분 가능한 산림은 도대체 얼마인지, 시급히 조립해야 할 대상지는 어느 곳에 얼마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산림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배재수 외, 2001).

일제는 이미 1902년부터 1910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산림조사를 실시했고 1908년 「삼림법」을 공포하여 산림문제를 처리해 나갔다. 「삼림법」이 목표로 한 임야조사의 수준은 개별 민유림에 대한 소유권 조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신고하지 않은 산림을 ‘국유’로 간주하여 국가의 산림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를 띤 조치였다. 일제는 산림 면적과 국유림 및 사유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기초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서는 산림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1910년 임적(林積)조사사업을 시행하였다(배재수 외, 2001).

임적조사는 한국 산림의 소유별, 임상별 산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판관 1인씩 2인을 1조로 하여 14개 조로 편성하고, 1910년 3월부터 9월까지 실지조사를 비롯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었다(강정원, 2020).

최소한의 비용과 간략한 실사방법에 의해 실시된 임적조사 결과 우선 임상별 국유·사유 구분 면적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임적조사 소유별 임상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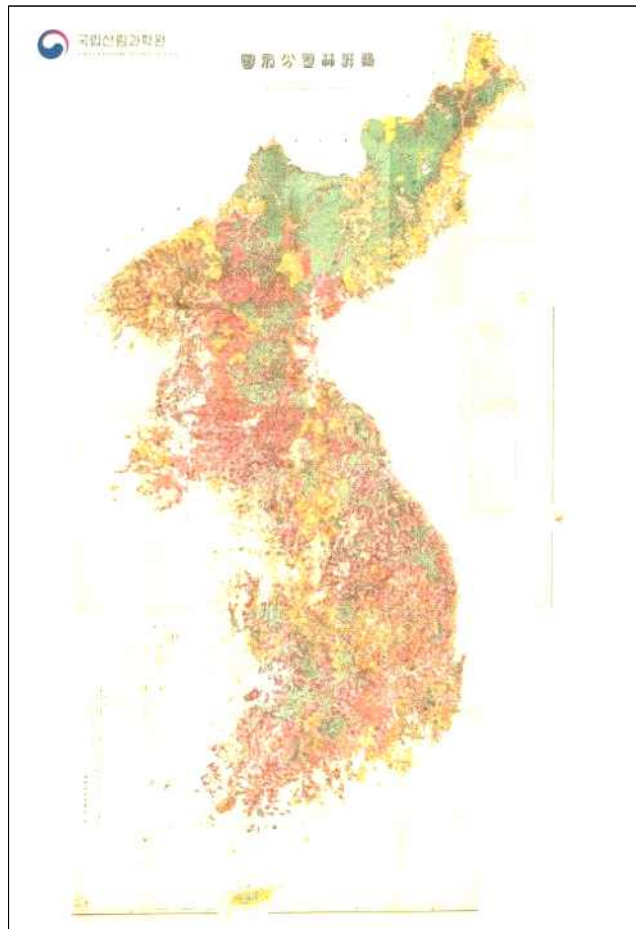
144) 산림(山林)은 산과 숲, 또는 산에 있는 숲을 이르는 말이고, 삼림(森林)은 나무가 많이 우거진 숲(천연림, 시업림, 단순림, 혼효림 등)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제의 법률명인 ‘삼림법’을 제외하고는 산림으로 표기했다.

면적은 관리기관 있는 국유림 103만5,000정보, 관리기관 없는 국유림 726만8,000 정보이고 사원관리 임야 16만5,000정보, 사유임야 738만1,000정보이었다(강영심, 1997).

일제는 삼림법을 통하여 가장 먼저 소유관계를 확정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그를 토대로 국유·민유 구분에 의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정책은 1910년 당시 개략적인 소유권과 임상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었던 임적조사사업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배재수 외, 2001).

이 임적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임상도인 「조선임야분포도」(그림Ⅳ-1)가 만들어졌는데 50만분의 1 지도로 도별 산림 및, 임상 상태, 국유림의 관리기관 유무 등을 담고 있는 종이 지도이다. 산림 상황은 성림지, 치수발생지, 무림목지(無林木地)로 구분한 임야 분포와 소나무(적송), 소나무외 침엽수, 활엽수로 구분한 수종 분포를 포함하고 있다(배재수 김은숙, 2019).

조선임야분포도에 담긴 산림정보는 조선후기 사회·경제 상황과 산림정책의 결과물이자 조선총독부가 산림정책을 수립하는 데 출발점을 제공한 기초자료였다. 조선임야분포도는 한반도의 산림 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로써 큰 가치가 있다. 단순하게 산림이 좋다거나 황폐되었다는 정성적 평가를 넘어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의 산림(성림지와 치수발생지)과 황폐지(무림목지)가 존재하였다는 정량적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이 자료는 1910년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의 산림자원 변화 추이를 공간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배재수 김은숙, 2019).



<그림Ⅳ-1> 조선임야분포도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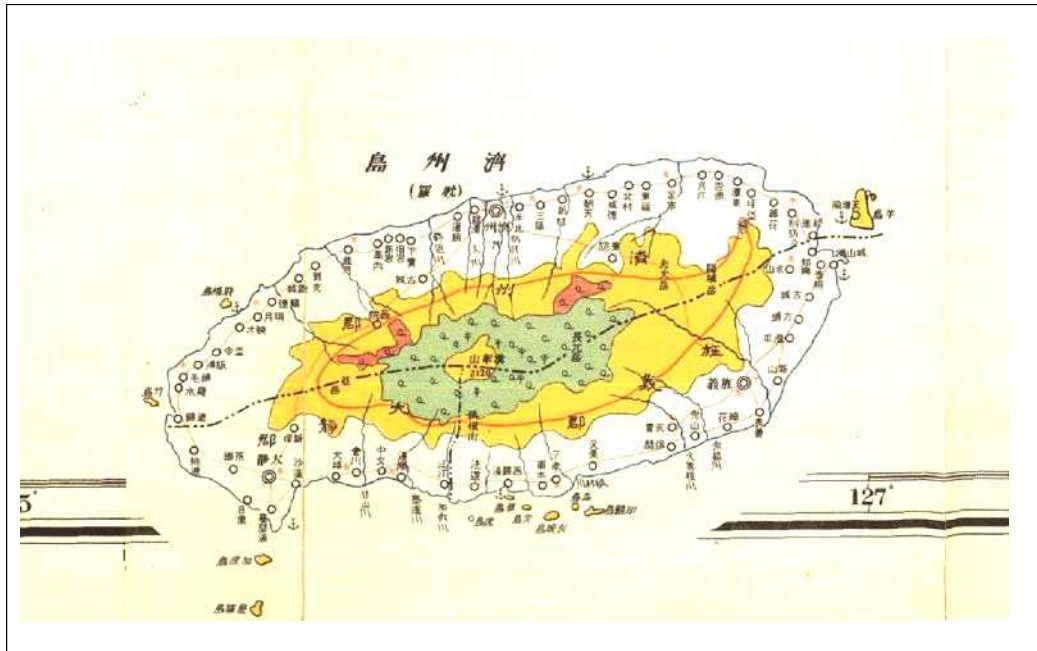
임적조사를 시작으로 국유임야구분조사사업(1911-1924), 근대적 산림소유권이 등기제도로 확립된 조선임야조사사업(1917-1924)으로 연결되면서 일제강점기 산림정책이 확립이 된다. 한라산 국유림 조사는 국유임야구분조사사업으로 결정됐는데 1910년 시행한 임적조사 사업에서 이미 영역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 한라산 소유권 확립

임적조사를 거쳐서 제작된 조선임야분포도의 제주도 부분(그림Ⅳ-2)을 보면 조선총독부가 이미 한라산 국유림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확보했으며 앞으로 전개될 산림정책에 대해서도 관리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발 200-600m 정도로 보이는 중산간 지대는 황색으로 표시됐는데 목장의 초

지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는 조선시대 국마장인 10소장의 영역과 상당히 일치한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시대의 국마장을 국유지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림 IV-2> 조선임야분포도의 제주도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특히 초지보다 다소 한라산 방면으로 이동해서 타원 형태로 그은 선은 ‘관리기관이 있는 국유지’로 표시했다. 이는 조선시대 금산(禁山), 봉산(封山)처럼 왕실이나 조정이 소유한 국유지로 인식해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라산 고지대는 숲인 성림지(成林地)로 표시했으며 활엽수가 대부분이고 일부 침엽수가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일대는 나무가 없는 무임목지로 그려 넣었고, 한라산 백록담을 기준으로 동북쪽과 서북쪽 일부에 어린 나무가 자라는 치수림(稚樹林)을 표시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조선총독부가 한라산 국유지에 대해서 향후 성림지에 대해서는 요존(要存)국유림으로 운영하고 초지로 된 국유지에 대해서는 임대, 불하하는 정책을 펼치는 기본 구상을 엿볼 수 있다. 국유림 구분은 크게 요존국유림과

존치가 필요 없는 불요존국유림으로 나누고 있다. 요존국유림은 군사상, 학술상, 국토보안상, 봉산 등에 필요하거나 1사업구로 경영하기에 충분한 약 2,000정보이상 단지로 정해졌다. 요존국유림은 다시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일시적 대부 외에는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갑종 요존국유림과 처분이 가능한 을종 요존국유림으로 나뉘었다. 불요존 국유림은 연고자가 없어 일반에 개방이 가능한 1종과 연고가 있는 2종으로 구분했다(배재수 외, 2001).

조선총독부는 한라산 일대 국유림에 대해서는 1914년(대정 3년)에 임야 구분조사에 착수했으며 갑종요존 한라산 국유림 외 7개소의 국유림을 조사해 1916년(대정 5년) 3월에 종료했다. 이후에 국유림구분조사와 별개로 1919년(대정 8년) 임야정리조사가 시행됐다. 임야정리조사는 1921년(대정 10년) 종료됐으며, 1922년 사정(査定)을 공시해 임야 소유별 경계를 확정했다(전라남도 제주도청, 1924).

국유림구분조사, 임야조사로 산출된 제주도의 임야면적은 <표Ⅳ-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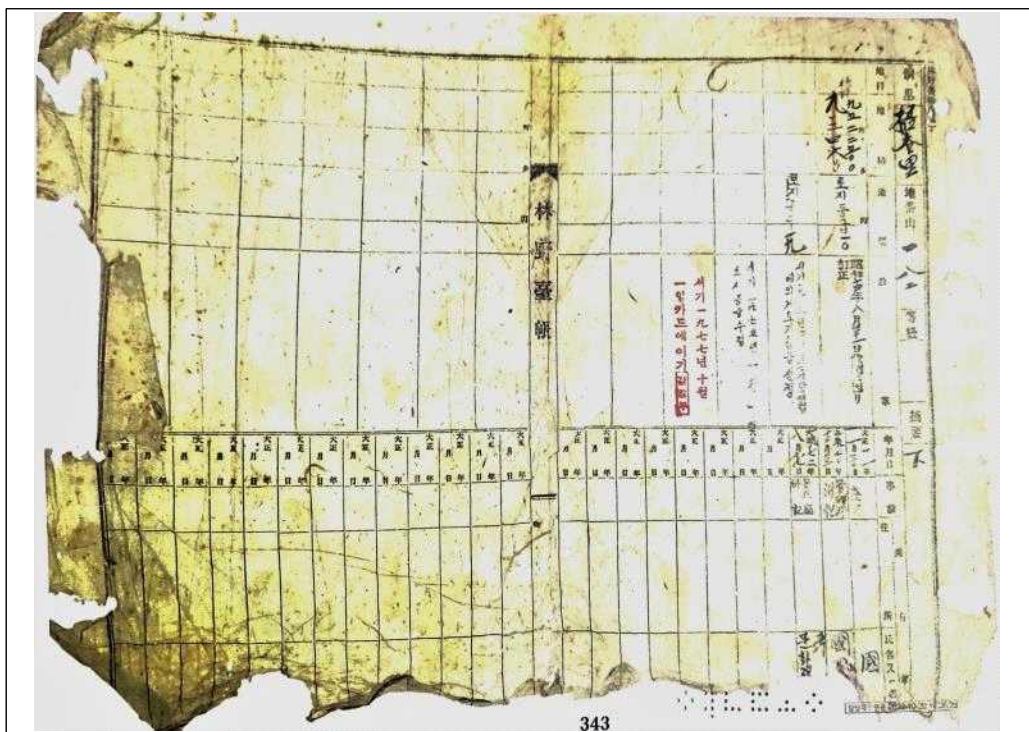
<표Ⅳ-1> 1922년 제주도 국유림과 민유림
현황

구분	면적
갑종 요존국유림	27,300정보
을종 요존국유림	125정보
제1종 불요존림	830정보
제2종 불요존림	26,300정보
소계(국유림)	54,500정보
민유림	28,300정보
총계	82,900정보

출처: 전라남도 제주도청, 1924.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제주도에서 국유림 구분조사를 공식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1910년 임적조사를 바탕으로 이미 한라산 일대 국유림에 대한 소유관련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제주시청에서 확인한 토지대장(그림Ⅳ-3)을 검토해본 결과 제주시 오등동 산 182번지는 1913년(대정 2년)에 사정(査定)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오등동 산 182번지는 현재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입구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영역으로 일제강점기 면적으로는 952정2500보로 적혔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국유림구분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이전인 1913년에 한라산 국유림 가운데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대장, 지적도 등이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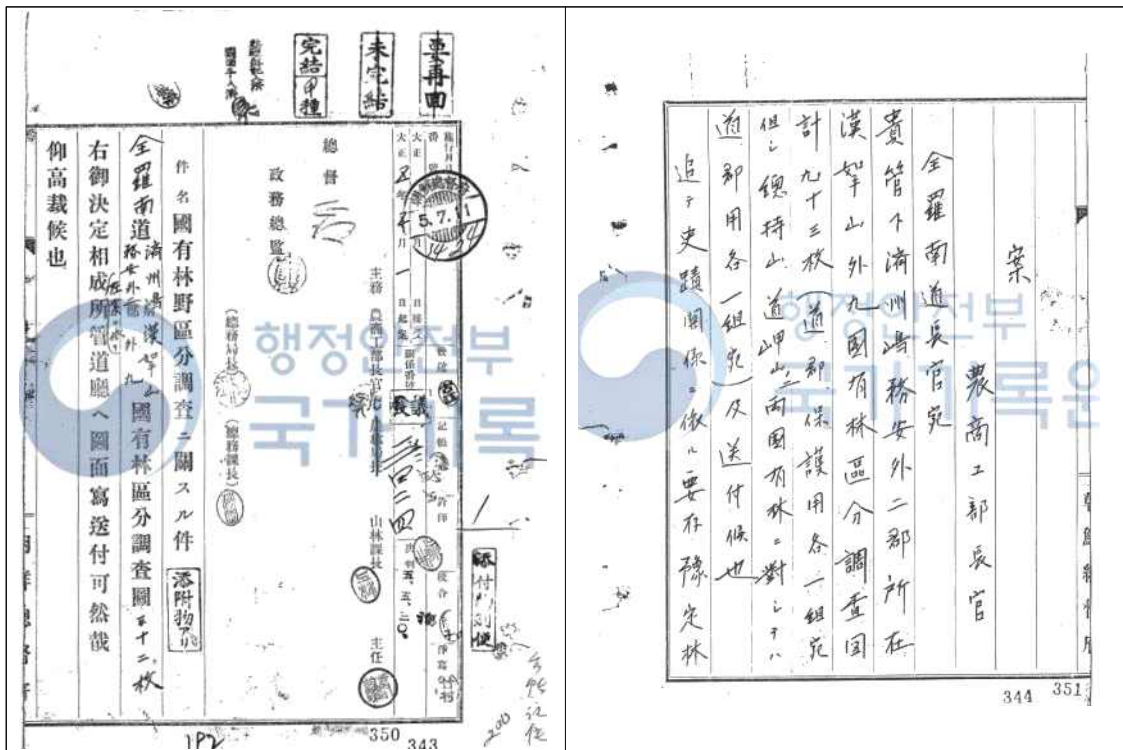


<그림Ⅳ-3> 제주시 오등동 산 182번지 토지대장
출처: 제주시.

한라산에 대한 국유림 조사와 사정을 거쳐 지적대장을 작성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라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인 문건으로 확립한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한라산에 국마장이 조성되면서 개략적으로 만들어진 국유지가 근대적 측량을 통해 지적(地籍) 소유문서로 확립된 것으로 한라산 소유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점으로 볼 수 있다.

1913년 오등동 산 182번지를 비롯해서 한라산 국유림에 대해 지번을 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3년 후인 1916년 한라산 국유림 구분조사를 마치고 관련 도면을 송부했다는 문서를 <그림IV-4>와 같이 확인했다. 이 부분은 한라산 국유림 구분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술한 전라남도 제주도청(1924) 기록과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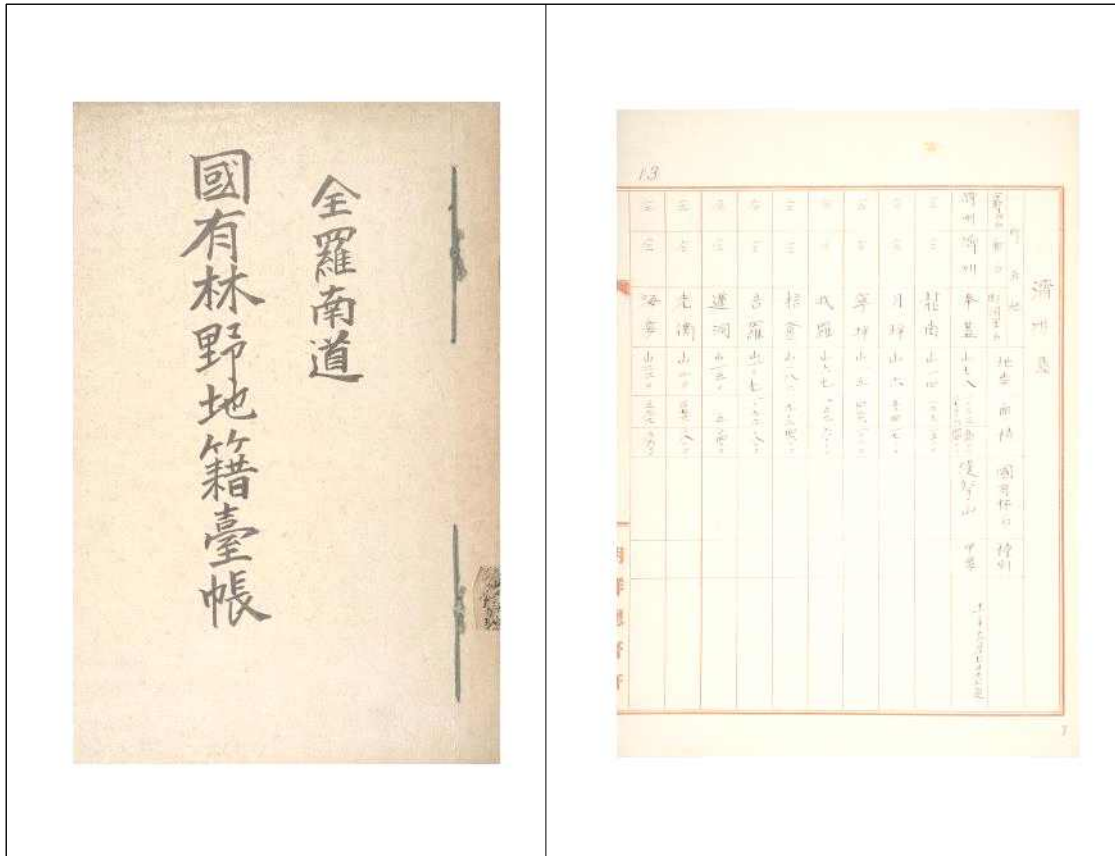
이 문서는 「국유림구분조사에 관한 건」으로 한라산국유림구분조사도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송부한 도면수는 한라산 국유림 24장, 효돈천 21장, 평대리(비자림지역으로 추정) 3장, 문섬 3장, 싯섬 3장 등으로 기재됐다.



<그림IV-4> 1916년 한라산 국유림 구분조사 문서
출처: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는 1916년 한라산 국유림에 대한 경계와 소유를 확정된 가운데 1922년에는 임야조사까지 모두 마치면서 제주도에서의 산림 소유권을 확정,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건 가운데 연구자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확보한 자료

는 1922년(대정 11년) 12월 7일 한라산 국유림에 대한 것으로 조선총독부의 「전라남도 국유임야지적대장」(그림Ⅳ-5)에 수록된 것이다.



<그림Ⅳ-5> 국유임야지적대장 표지(좌)와 지적대장 속지(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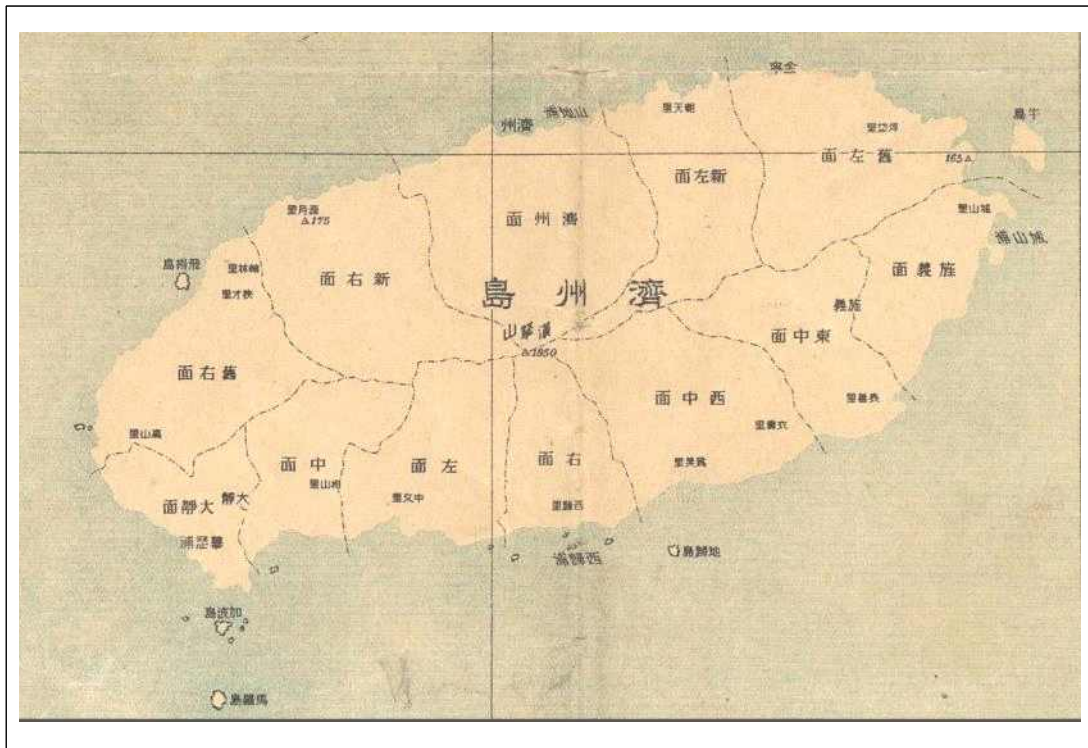
이 지적대장에 표기된 한라산 국유림은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갑종 요존 국유림으로 구분했다. 임적조사에서 개략적인 국유지 경계와 주요 지번을 부여한 뒤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지적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라산 국유임야지적대장에 수록된 지번과 면적을 발췌해 아래 <표Ⅳ-2>로 정리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지번에 포함된 대표적인 현재 영역을 첨부했다. 지번과 행정구역(그림Ⅳ-6)은 일제강점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표IV-2> 1922년 한라산 국유림 지적대장

행정구역	지번	면적(정보)	비고
제주면	봉개 산 78	1,034 27,306	절물휴양림 일대
	용강 산 14	199	한라생태숲, 마방목지
	월평 산 6	504	쌀손장오리 서쪽
	영평 산 15	436	불칸디오름 서쪽
	아라산 67	860	관음사 남쪽
	오등 산 182	902	관음사코스 백록담
	오라 산 107	1,099	능화오름 남쪽
	연동 산 150	5	걸쇠오름 남쪽
	노형 산 20	373	석굴암 일대
해안 산 220	600	어승생악 북쪽 일대	
신우면	광령 산 183	2,364	챗망오름 서쪽
	고성 산 145	209	노로오름 북쪽
	금덕 산 139	348	
	소길 산 259	181	족은바리메 동쪽
	상가 산 124	368	족은바리메, 안천이오름 일대
	어음 산 25	164	한대오름 북쪽
	어도 산 1	827	한대오름 다래오름 일대
중면	광평 산 1	77	나인브릿지골프장 동쪽
	상천 산 1	199	돌오름 일대
좌면	색달 산 1	570	1100습지 일대
	중문 산 1	908	거린사슴 남쪽
	대포 산 1	76	서귀포휴양림 북쪽
	하원 산 1	991	서귀포휴양림 블래오름 일대
	도순 산 1	590	영실휴게소 일대
	영남 산 1	1,472	어점이오름 일대
우면	서호 산 1	292	시오름 일대
	호근 산 1	45	시오름 동쪽
	서홍 산 1	514	미악산 서쪽
	동홍 산 1	473	미악산 북쪽
	토평 산 15	297	미악산 북쪽
	상효 산 1	1,782	돈내코 탐방코스
서중면	하례 산 1	1,237	보리오름 서쪽
	신례 산 2	1,688	논고악 성널오름
	위미 산 1	346	사려니숲길 서쪽
	한남 산 2	1,487	시험림, 사려니오름
	수망 산 203	660	마호니오름
동중면	가시 산 158	971	붉은오름휴양림
신좌면	교래 산 137	2,155	사려니숲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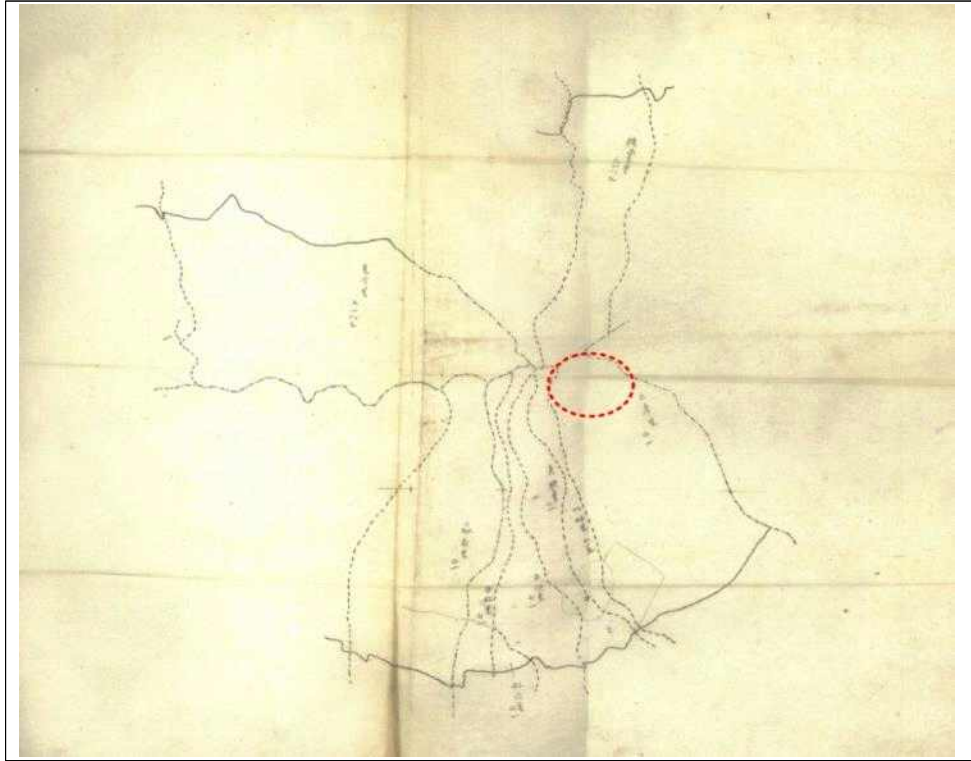
출처: 국립중앙박물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그림 IV-6>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의 1918년 제주도 지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는 1914년 4월 7일 관보를 통해 면(面)의 명칭을 제주면, 구좌면, 신좌면, 구우면, 신우면, 정의면, 동중면, 서중면, 우면, 대정면, 중면, 좌면, 추자면 등으로 조정해 임야 및 토지조사를 시행했으며 1935년에 면의 명칭을 소재지 마을이름을 따서 신좌면을 조천면, 신우면은 애월면, 구우면은 한림면, 좌면을 중문면, 정의면을 성산면, 동중면을 표선면, 중면을 남원면, 동면을 안덕면으로 각각 개칭했다(김봉옥, 1995).

조선총독부는 이처럼 근대적 측량을 거쳐서 한라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했으며, 이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총독부는 근대적 측량과 지번 부여를 하면서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도 분할해서 행정구역별로 나누었다. 백록담 전체를 한 지번으로 부여하지 않고 쪼개서 지번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백록담을 행정구역별로 나눈 것으로 보이는 1930년대 도면은 아래 <그림 IV-7>과 같다.



<그림 IV-7> 한라산 백록담(점선) 정상과 주변에 부여한 지번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이 도면은 조선총독부가 천연기념물 대장에 수록한 것으로 한라산 난대림과 관목림 지대를 표시하면서 첨부한 것이다. 이를 보면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능선과 내부는 서귀포시 토평동(현재)에 속하도록 지정했으며 나머지 분화구 외벽을 각각 나눠서 지번을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한라산 국유림 경계 확정과 문서를 통한 소유권 확정으로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통제정책을 펼치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선시대부터 국마장으로 쓰였기 때문에 한라산 산림지대에 대한 국유지 지정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한라산 국유림에 대한 조사와 소유권 확립은 한반도와 제주전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 및 임야조사 이전에 이미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한라산의 신(神)적 정체성을 배제했다.

2. 한라산 이용·관리

1) 자원남벌과 조림갱신

제주도 임야조사를 마친 조선총독부는 한라산 산림자원에 대해 벌목과 자원채취를 허가하며 처분행위를 이어갔다. 한라산 산림자원에 대한 수탈구조는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진 듯하다.

조선총독부는 서구의 자연과학을 수용하면서 한반도의 산을 대상으로 식물, 광물, 지형, 기상관측 등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다(김지영, 2021). 식물분야에서 中井猛之進은 1909년 1940년까지 직접 한반도의 식물연구를 진행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배후에는 조선총독부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석곤·김영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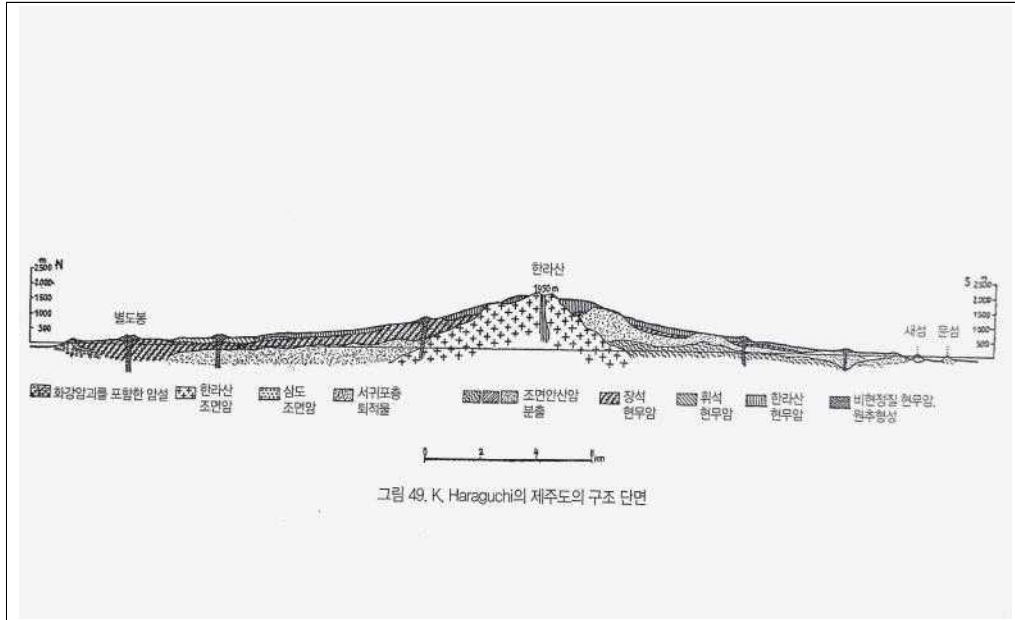
中井猛之進은 1913년 한라산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1914년 「제주도 완도 보고서」를 냈다(김휘 외, 2006). 이 보고서는 한라산의 종합적인 식물상을 처음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며 조선총독부의 한라산 삼림자원 이용에 기초 자료가 됐다.

中井猛之進은 조선에서 신종과 미기록을 찾는데 주력했으며 교토제국대학 연습보고서(1928)에는 “조선 전 국토가 산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의 금강산, 남한의 지리산, 제주도의 한라산 즉 소위 조선의 3대 명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기록했다(박석곤·김영찬, 2021). 한라산의 식물자원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는 지질연구 역시 관심사였다. 자원으로써 활용할만한 광물을 찾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는 일본인 학자 原口九萬이 지질조사 활동을 벌여서 1929년 「제주도 별도봉 서북해안이 화산암설층 중에 포획된 화강암에 대하여」를 발표하고, 1931년에는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의 지원을 받아 전역을 조사한 끝에 「제주도의 지질」를 발표했다. 제주의 지질에 대해 처음으로 화산층서를 밝혔다(고기원 외, 2017).

Hermann Lautensach(1886-1971)는 1933년부터 8개월 동안 한국을 연구한 결과로 『코리아: 저자의 여행과 문헌에 기초한 지지』를 펴냈는데, 제주도 부분에서 原口九萬의 연구를 인용해 한라산 형성과정을 적었다(김종규 외, 2014). 여기

에 原口九萬의 제주도 구조단면(그림IV-8)을 실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라산 지질을 파악한 것이다. 原口九萬은 제주도 화산활동의 마그마분화과정과 화산층서, 화산구조선 등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0만의 1축적의 제주도지질도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림IV-8> 原口九萬이 그린 제주도 지질 구조단면
출처: 김종규 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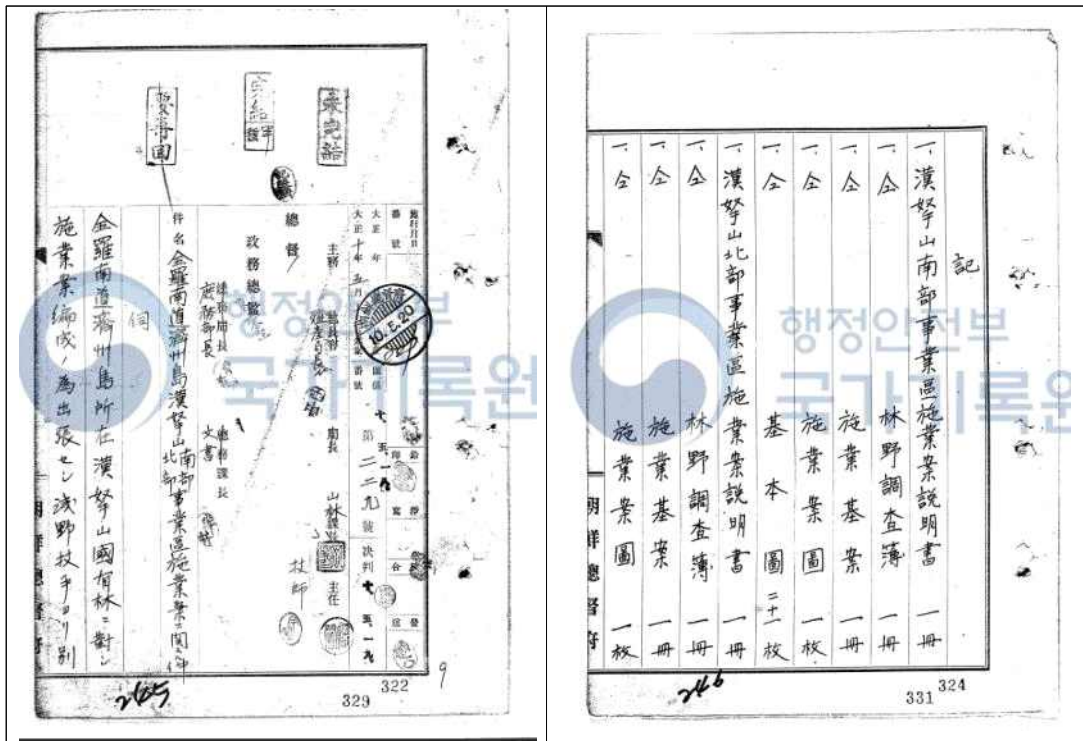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는 또한 1911년부터 1917년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100만분의 1축적의 조선지질광상분포도를 조선광업회 이름으로 제작했는데 공식적인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반도 지질분포도를 만든 것이다. 이 분포도는 영국지질조사소(BIS)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2018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반환됐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조선지질광상분포도와 이 분포도의 제주도 부분은 <그림IV-9>이다. 한반도의 지질자원을 암석별로 자세하게 기재했으며 한라산을 비롯해 제주도 대부분 화산암인 현무암으로 표시했다. 한라산 백록담, 산방산, 서귀포해안 일대 등의 일부를 조면암으로 기재했다. 석탄 등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자원적 가치가 있는 암석이 없는 것을 파악하고 지질분포를 다소 간략하게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Ⅳ-9> 조선지질광상분포도(좌)와 제주도(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총독부는 한라산에서 광물자원으로 확보할 만한 암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림자원 이용에 집중했다.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한라산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산림자원에 대해 특별 관리를 주문했으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웠다.

연구자가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또 다른 자료는 조선총독부가 발송한 「제주도 한라산 남부·북부 사업구 시업관계」 문서(그림Ⅳ-10)이다. 이 자료에는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한라산을 북부와 남부로 나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주도청의 일본인 직원이 작성한 의견서가 들어있다. 1921년(대정 10년)으로 적힌 이 문서에서 제주도는 보호림 단속 및 통제, 연료문제, 버섯자목, 화전, 초생지조림, 방목, 민유림 조성 장려 등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그림Ⅳ-10> 한라산 남·북구 사업안 문서
출처: 국가기록원.

이 문서에서 제주도청 일본인 직원의 의견서를 남부, 북구 별로 첨부했는데 도벌(盜伐)로 보호림이 훼손되고 있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유림) 경계선 20리(里) 주위 20만 명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보면 조선총독부에서는 시업계획안에서 국유림 주변 민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유림 벌목 피해는 최근 20년 동안 1만 정보에 이르고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서쪽이 가장 심하고 남쪽일대 피해가 덜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지편찬위원회(2006)는 조선총독부가 1933년부터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했고 매년 인원을 증원, 한라산에서 민간인 무단 벌채를 금했다고 파악했지만 이 문서에 따르면 이미 1921년에 주사 2명, 감독원 4명을 임명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원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국유림 보호를 위해 교래리 2명, 명도암 1명, 관음사 2명, 법정동 2명, 생수동 1명 등 12개소에 지역주민 18명을 배치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료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온돌에 말뚝과 마른 풀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연료로 대부분 숯에 의존하는 만큼 허가를 거쳐서 숯 제조를 위한 목재 채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화전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화전이 상당히 이뤄졌으나 금지조치가 이뤄진 후로는 국유림 지대에서 화전은 없다고 보고했다. 화전민에 대해서는 국유림 경계 밖 불요존(不要存) 임야 등지로 이전하도록 했으며 불가피하게 국유림 지대에 남을 경우 표고버섯(推茸) 재배장 등의 노동력으로 흡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문서는 또 방목에 대해서는 우마 방목으로 국유림의 산림이 일부 훼손되고 있으며 ‘해발 1800m 중앙 화구’(백록담으로 보임-연구자 추정)에도 소떼가 확인된다는 내용을 올렸다. 우마는 축산행정에 따라 계획을 세우되 국유림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석축(돌담)을 쌓아 우마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섯자목 항목에서는 버섯이 소득을 위한 주요 자원인 만큼 자목(資木)을 위한 벌채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자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림이 풍부한 한라산 남측 지대를 활용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표고버섯 재배지가 이 일대에 집중적으로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서는 한라산 국유림을 확정된 후 사업계획을 세운 기초자료로 볼 수 있는데, 조선총독부의 한라산 이용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관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제주도 보고에 따라 한라산 자원을 남획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보면 한라산 임산물 관련 내용이 1921년부터 상당량이 허가된 양상을 보였다. 제주도가 한라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시기부터이다. 특히 한라산에서의 임산물 처분은 처분 전에 원서를 첨부해서 상부에 품신해서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한라산 임산물 관리를 중시한 정황도 보인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한라산 임산물 허가는 김봉옥(1995)의 『조선총독부 관보 중 제주록』에서 확인된다. 여기에 실린 허가건수를 확인한 결과 1915년부터 1930년까지 1927건으로 정리됐다. 1915년 임산물취득허가 양도양수 4건을 제

외하면 1921년부터 1930년까지 매년 평균 191건이 허가됐다. 이는 1.9일당 1건의 허가 수준으로 한라산 임산물 남획이 광범위하게, 자주 이뤄진 것을 반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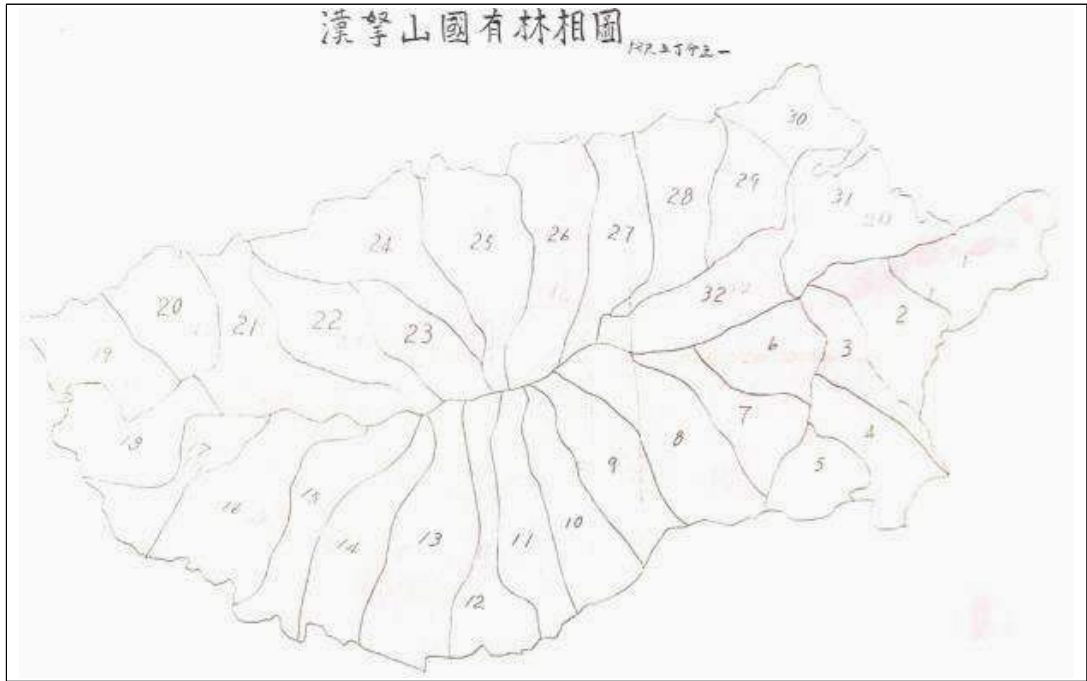
<표Ⅳ-3> 일제강점기 한라산 임산물 허가건수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계
허가 건수	227	259	257	228	213	205	149	180	203	2	1,923

출처: 김봉옥, 1995.

조선총독부가 1930년까지 한라산 원시림에서 벌목 처분한 수종은 때죽나무·졸참나무·서어나무·종가시나무·구상나무·비자나무·주목·회나무·두릅나무·사스레피나무·적송 등이다. 일본인은 허가를 받아 주로 주목·진달래·단풍나무·눈향나무 등 고산지대에 자라는 희귀나무를 정원수·분재용 등으로 채취했다(김봉옥, 1997). 조선총독부 관보의 임산물 허가를 보면, 일본인의 표고버섯 사업에 대량으로 벌목 허가가 나간 사례가 많고 한국인들에게 내준 허가는 숲 생산을 위한 목재채취 허가가 많았다. 낙엽활엽수를 이용하여 숲을 만들어 일본으로 반출시킬 것을 계획하는 등 관 주도의 벌채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이다(제주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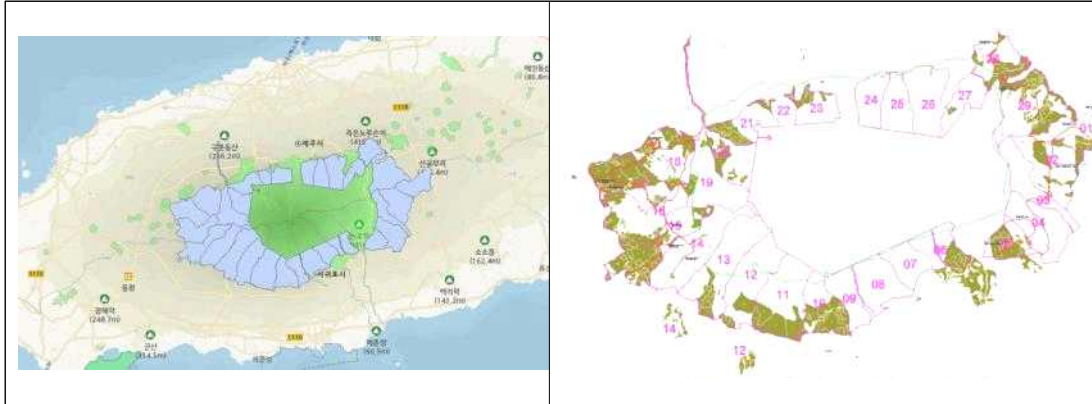
또한 조선총독부 영림서(營林署)는 한라산 임산물을 효과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한라산을 남북으로 나누어 사업구를 설치하고 지역별로 31개 임반으로 나눴다. 일제강점기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라산국유임상도(漢拏山國有林相圖)」(그림Ⅳ-11)를 보면 국유림을 나눈 임반을 확인할 수 있다. 1 임반은 현재 서귀포시 표선면 붉은오름휴양림 일대로, 이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한라산 허리를 둘러서 번호를 매겼다. 마지막인 31임반은 현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지역으로 ‘사려니숲길’ 일대이다.



<그림 IV-11> 한라산국유임상도
출처: 제주대학교 박물관, 2020.

이런 임반 구분은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한라산 국유림을 관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2013) 『국유림 경영계획서』를 보면 6차기 국유림경영계획(2003-2012년)의 30개 임반(그림 IV-12)을 제7차기 국유림경영계획(2013-2022년)에서 25개 임반으로 조정했으며 면적은 1만5,782ha이다. 일제강점기 국유임반은 한라산 정상까지 포함해서 구획한 것이었고 해방이후에는 한라산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임반 구분을 했다. 『국유림 경영계획서』의 임반구분에서 1임반은 서귀포시 표선면과 성산읍 482.29ha, 2임반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995.48ha 등과 같이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시계방향으로 임반 구분을 했으며 한라산국립공원 구역과 생태보전 1등급 지역을 제외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했다.

<그림 IV-13>은 한라산 성관악탐방로 주차장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바라본 국유 임반 모습이다. 주차장 맞은편은 물오름이고 멀리 서귀포쪽으로 논고악과 동수악이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일대에 대해 표고버섯 재배를 허가해 원시림이 별목으로 상당량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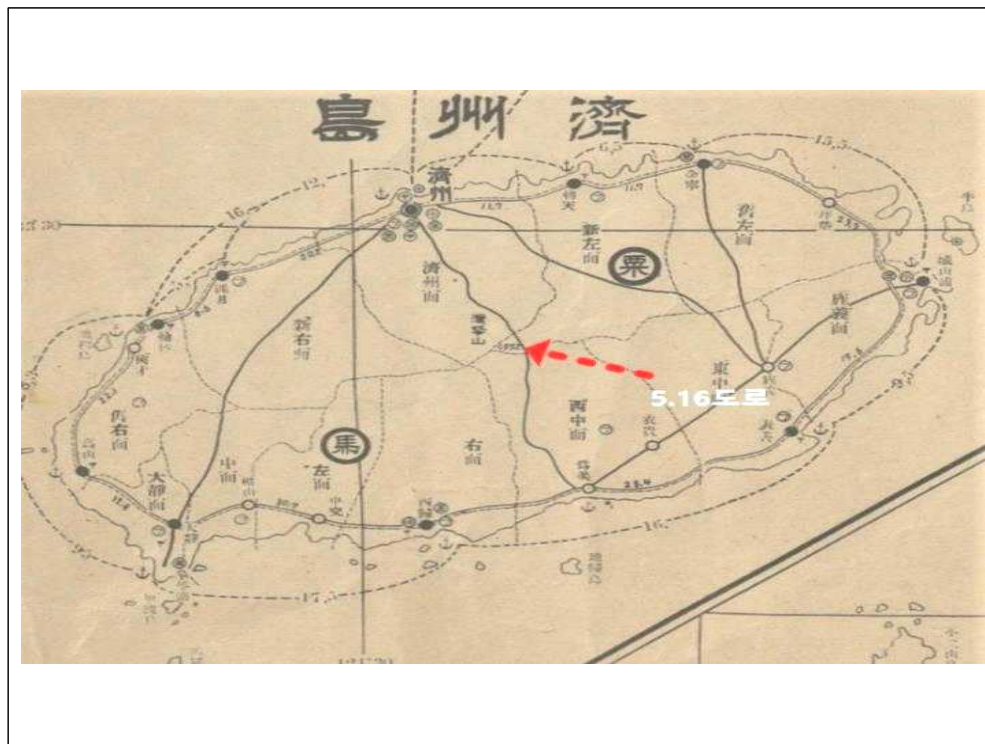
<그림 IV-12> 한라산 국유림을 구분한 임반
출처: 제주도공간포털(좌), 제주도 내부자료(우).



<그림 IV-13> 제주 서귀포지역 국유임반
출처: 연구자 촬영.

조선총독부는 한라산에서의 임산물 확보와 처분을 위해 제주에서 서귀포를 잇는 임도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1937년과 1939년에 발간한 「제주도세요람」의 기록을 보면 한라산 국유림에 대한 횡단공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제주-서귀포간 임도 공사로 1932년에 13km, 1935년 17km, 읍면이 시공하는 접속공사로서 제주 6km, 서귀면 8km 합계 44km를 시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현재 5·16도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임도라고 볼 수 있다(김중근,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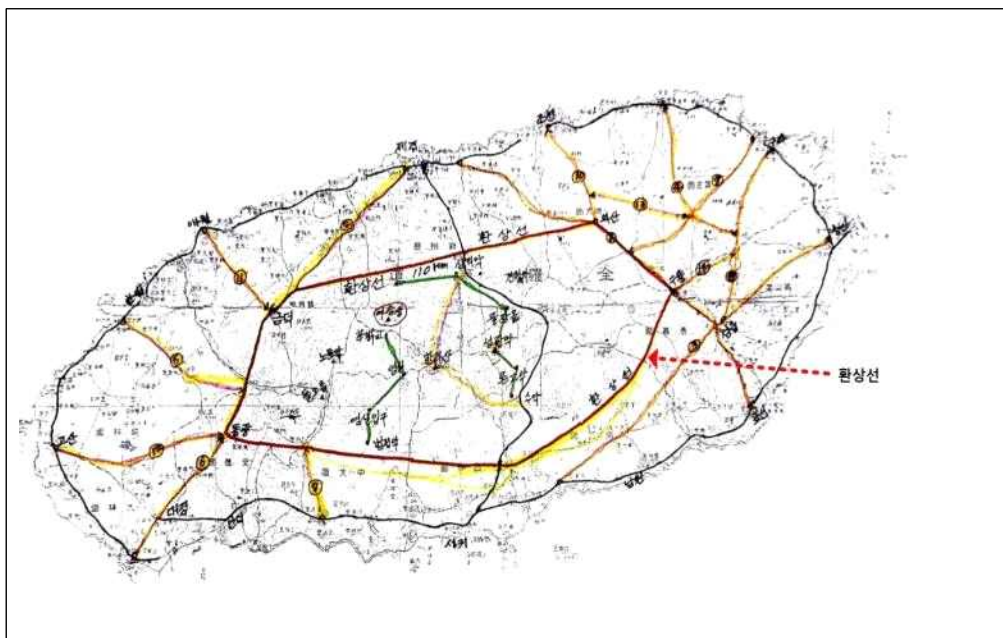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구자가 확보한 일제강점기 조선팔도 특산물 지도(그림 IV-14)에는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임도는 제주에서 위미 지경으로 이어졌다. 현재 5·16도로가 제주에서 서귀포시 토평동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 조선팔도 특산물 지도가 제작된 시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일제강점기에 한라산 이북, 이남을 연결하면서 임산물 수송과 약탈에 활용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림 IV-14> 5·16도로가 표시된 1933년 조선특산물지도의 제주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이와 더불어 조선총독부는 1937년 제주도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한라산 횡단도로에서 한라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도로를 계획했다(김한욱, 2022). 한라산 횡단도로 가운데 제주시 방면에서는 삼의악에서 정상으로, 서귀포방면에서는 수악에서 정상으로 가는 도로를 계획했던 것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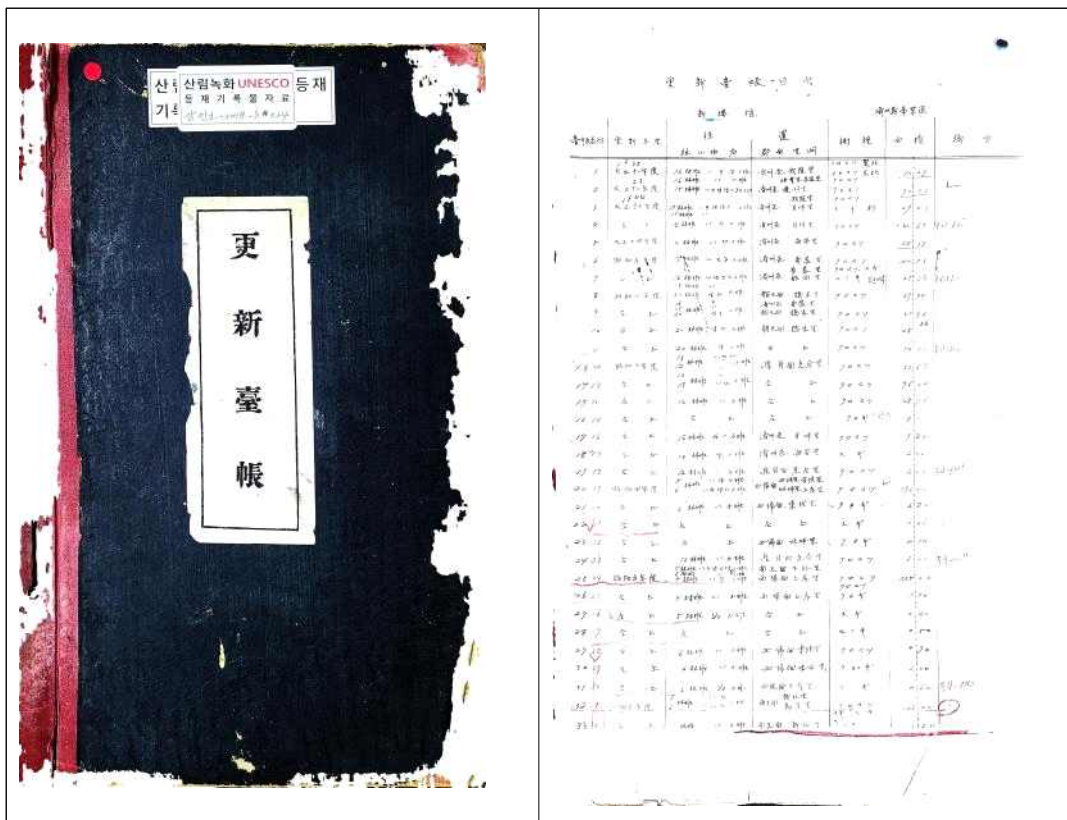
조선총독부 제주도개발계획의 도로개발에 따른 토목사업계획서에는 한라산 산간에 머리띠를 맨 것 같은 환상선(環狀線·일명 하치마키 도로) 110km를 계획했다. 환상선 도로개설계획(그림IV-15)은 한라산 북쪽 제주-대정선인 애월 금덕리에서 1100도로 축산개발사업소 남측을 경유하여 횡단도로(5.16도로) 산천단까지 직선으로 연결된다. 동쪽으로는 산천단에서 제주 표선선인 조천 와산리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후 제주-표선선인 성읍2리(구룡동)로 이어진다. 한라산 동쪽으로는 구룡동에서 따라비오름-5·16도로 영천악 북측으로 연결된다. 한라산 서쪽으로는 서귀포 영천악 북측에서 중문 법정악 남측의 법정동을 경유하여 1100도로 거린 사슴 남측을 경유하고 안덕 동광리, 애월 금덕리까지 이어진다. 10개년 계속사업인데 어느 정도 개발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김중근, 2017). 이 환상선 도로는 주민생활보다는 한라산 입산물 등의 자원을 확보하고 수송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IV-15> 1937년 도로개발 10개년 계획도의 환상선
출처: 김중근, 2017.

한라산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생산, 수확, 공급하려면 산림의 황폐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조림사업과 육묘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로 삼나무와 편백, 상수리나무의 조림을 실시하였고 기타 유용수의 조림도 병행하였다(제주도, 2006).

연구자는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조림내용을 제주도가 소장한 내부 자료에서 확인했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것으로 표지에 『갱신대장(更新臺帳)』(그림Ⅳ-16)이라고 제목이 적혔다. 1922년부터 1943년까지 갱신 위치, 수종, 면적, 육묘, 비용, 조림수종 조달처 등을 자세히 표기했다.



<그림Ⅳ-16> 제주도의 조림 갱신대장 표지(좌)와 내지(우)
출처: 제주도 내부자료.

이 갱신조림 대장을 보면 1922년 제주읍 아라리 한라산 국유림지대에 해송

10ha 인공조림이 시초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후 1924년에는 제주읍 월평지역에 삼나무 27ha, 1925년에는 봉개, 용강지역에 삼나무 27ha, 편백 15ha를 조림했다. 1936년 조림수종별 면적은 해송 252ha, 삼나무 2ha, 편백1ha, 상수리나무 239ha, 상수리나무 직과조림 100ha, 멸구슬나무 8ha, 밤나무 1ha 등 607ha이다.

조림수종은 삼나무와 편백나무로 외래수종으로 기재했고, 육지에서는 상수리나무와 잣나무 2개 수종을 들여왔다. 제주 자생수종으로는 곶솔, 소나무, 졸참나무, 비자나무, 느티나무, 황벽나무, 동백나무, 아왜나무 등 8개 수종을 조림수종으로 했다. 양묘는 개인업자를 중심으로 생산하여 공급한 기록이 있다.

이 대장은 가로 27cm, 세로 40cm의 크기로 모두 169회의 조림 내역을 기재하고 있다. 제주도가 소장한 대장에는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에서 대대적인 조림을 시작한 첫 사례로 조선총독부가 임산물 수탈과 조림사업을 병행한 산림정책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조림사업은 한라산 임산물 수탈에 대한 회복 차원도 있지만 폭풍 피해를 막기 위한 방풍림 사업과 토사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사림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주 방풍림 용지는 방풍림 설치 후 보호 관리를 위해 국유화 조치를 취했다(김한욱,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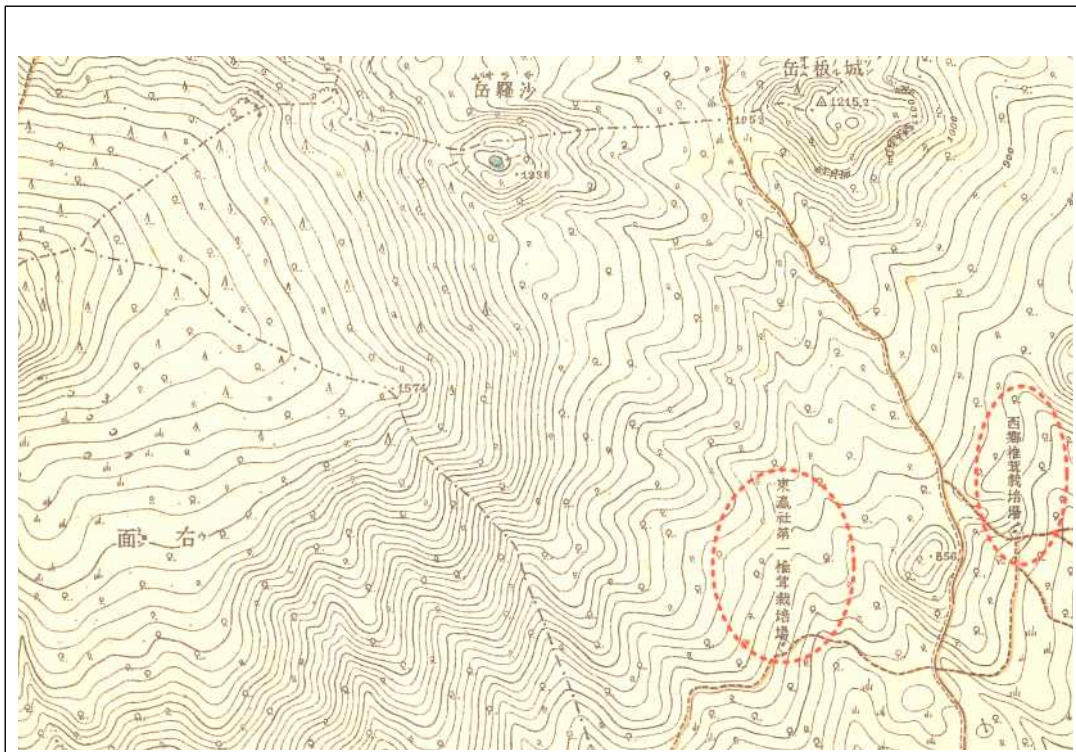
2) 인위적 개발, 표고버섯

일본인에 의한 표고버섯 재배는 한라산 이용에 있어서 새로운 자원확보 유형의 서막이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한라산 자원을 이용하다가 표고버섯을 인공적으로 재배, 수확하면서 인위적 개발, 이용이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표고버섯을 생산하기 위해 한라산의 자생 나무를 대량으로 벌목하면서 원시림 파괴가 수반됐다.

제주도의 표고버섯 재배와 관련해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제주도가 표고버섯 주산지의 하나로 나오는데 이때는 자연상태의 표고버섯을 수확하는 것이었다(제주도, 2006). 한라산에서의 표고버섯 인공재배는 일본인에 의해 시작됐다. 1905년 일본인 藤田寛二郎, 望月龍太郎, 神谷卓男 등 3명이 동영사(東瀛社) 회사를 설립해서 표고버섯 인공재배에 착수한 뒤 대부분 일본인들이 허가를 받고 사업을 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한라산 표고버섯을 1919년 조선의 특산물로 지정하면서

더욱 장려됐다(전라남도 제주도청, 1924).

표고버섯 재배에는 상당한 양의 나무가 소요되는데 한라산 이남의 원시림 시대는 주로 동영사 등 일본인 회사나 일본인이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8년 제작된 5만분이 1지도에서 제주도의 부분을 보면 한라산 이남에 동영사 표시(그림Ⅳ-17)가 선명하고 면적도 상당히 넓게 차지했다. 동영사 등이 허가받은 표고버섯 재배지는 논고약 주변인 해발 800m내외로 고산지대 원시림까지 점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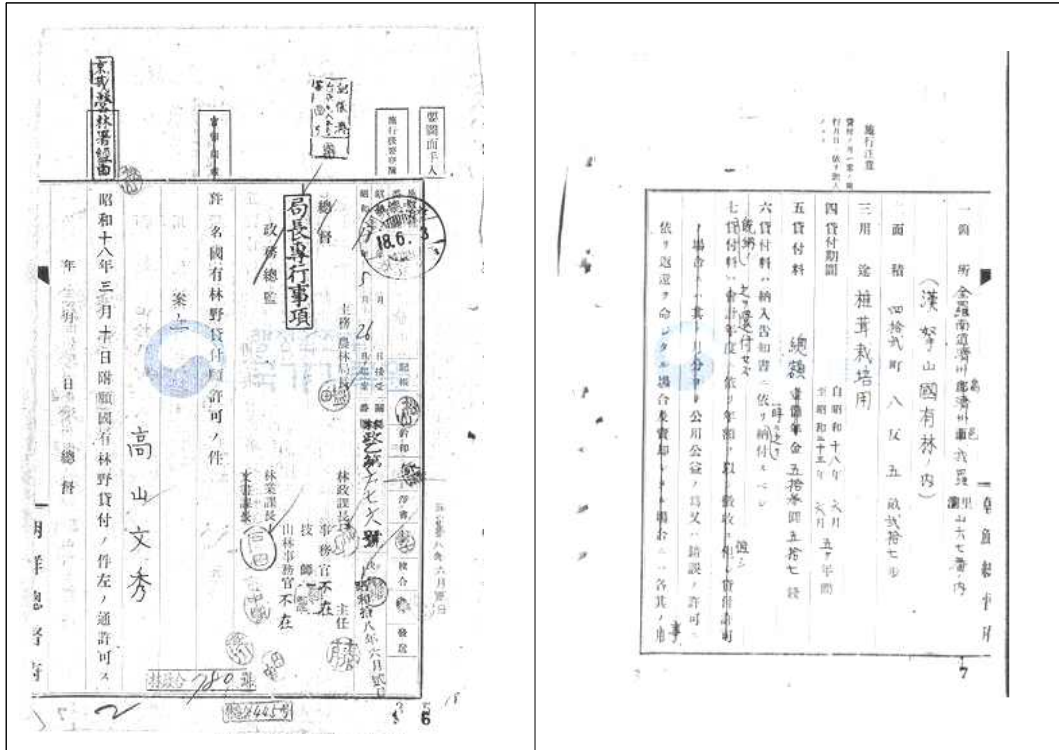


<그림Ⅳ-17> 1918년 제작된 지도의 한라산 표고버섯 재배지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한라산에서 표고 재배지로 임대하고 벌목을 허가한 지역은 총 3,255정보라는 기록도 있다(김봉옥, 1997). 수확한 표고버섯은 서귀포에서 기선(汽船)편으로 일본 오사카(大阪)로 이송되고, 일본에서 소비되거나 일부는 오사카 회사에서 중국으로 수출됐다. 일제강점기 제주도청에서는 해외수출 호조와 일본의 수요 등으로 표고버섯 가격이 높아졌으나 난벌의 결과로 표고버섯 자목이 결핍을 가져와 생산이 차츰 줄고 있다는 분석을 했다(전라남도 제주도청, 1924). 한라산 표고버섯

의 재배확대로 결국 원시림이 파괴됐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조선총독부 1943년 문서인 <그림Ⅳ-18>에서 알 수 있듯이 아라리 산 67번지의 한라산 국유림 면적 42정보에 대해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임대해주면서 53원 57전의 대부료를 받았다. 허가기간은 1943년부터 1948년까지 5년 동안으로 명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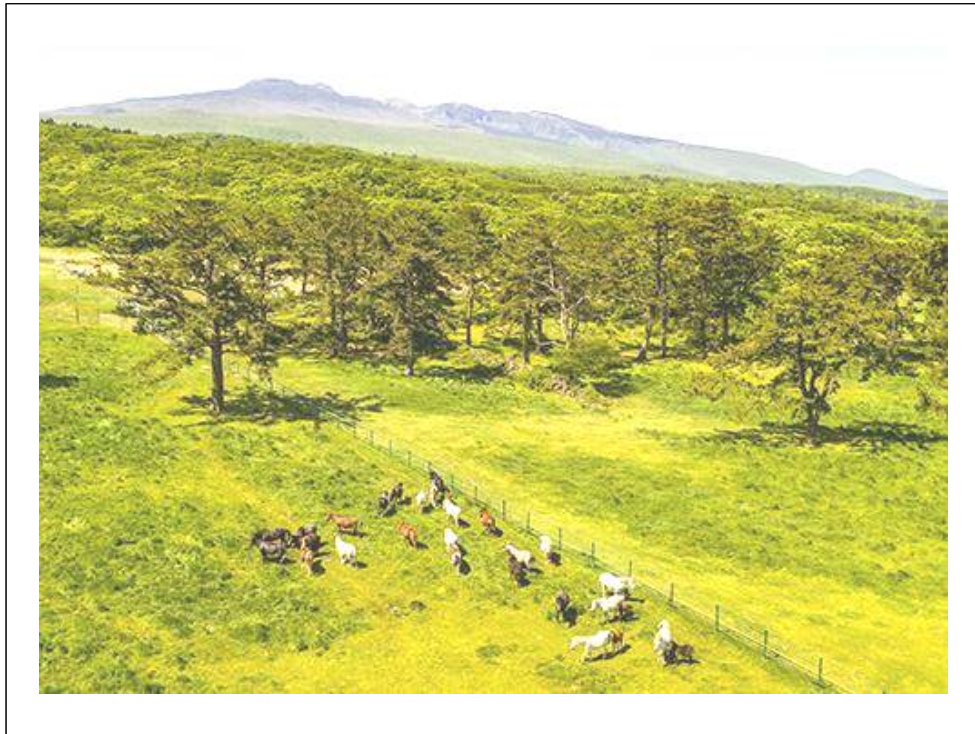


<그림Ⅳ-18> 한라산 국유림 대부 문서
출처: 국가기록원.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한라산 원시림에 대해 표고재배용으로 빌려주면서 임대 수익을 창출했다. 국유림 지대에서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자원 이용을 통제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한라산 원시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려고 겉으로는 보호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로써 한라산 원시림을 표고재배용으로 빌려줘서 임대수익을 창출했고, 또한 고산지대의 눈향나무 등 희귀수목을 분재용으로 채취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얻은 것이다.

3) 국영 목마장의 쇠퇴

조선시대 핵심 관리 대상이던 국마장은 일제강점기에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갑오개혁(1894-1896)을 통해 목장을 유지시켰던 마정제도, 공마제도, 점마제도가 폐지되어 국마장 운영이 막을 내리게 된 후 일제강점기에 불하, 매각, 매매 등을 통해 도유지, 읍유지, 면유지 그리고 리유지 등으로 변모되었다(강만익, 2013).



<그림Ⅳ-19> 조선시대 3소장 위치로 추정되는 제주시 마방목지
출처: 연구자 촬영.

1930년대 제주도에 설치된 공동목장들은 모두 116개로 확인된다. 조선시대와는 달리 일제강점기에 말보다 소 사육 두수가 더 많았는데 조선총독부가 내건 증우감마(增牛減馬)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고기에 대한 일본의 수요증대로 인해 압소 생산 장려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강만익, 2008). 1930년대 우마 사육에 대해서는 일본인 樫田一二의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가 참고가 된다(홍성목 역,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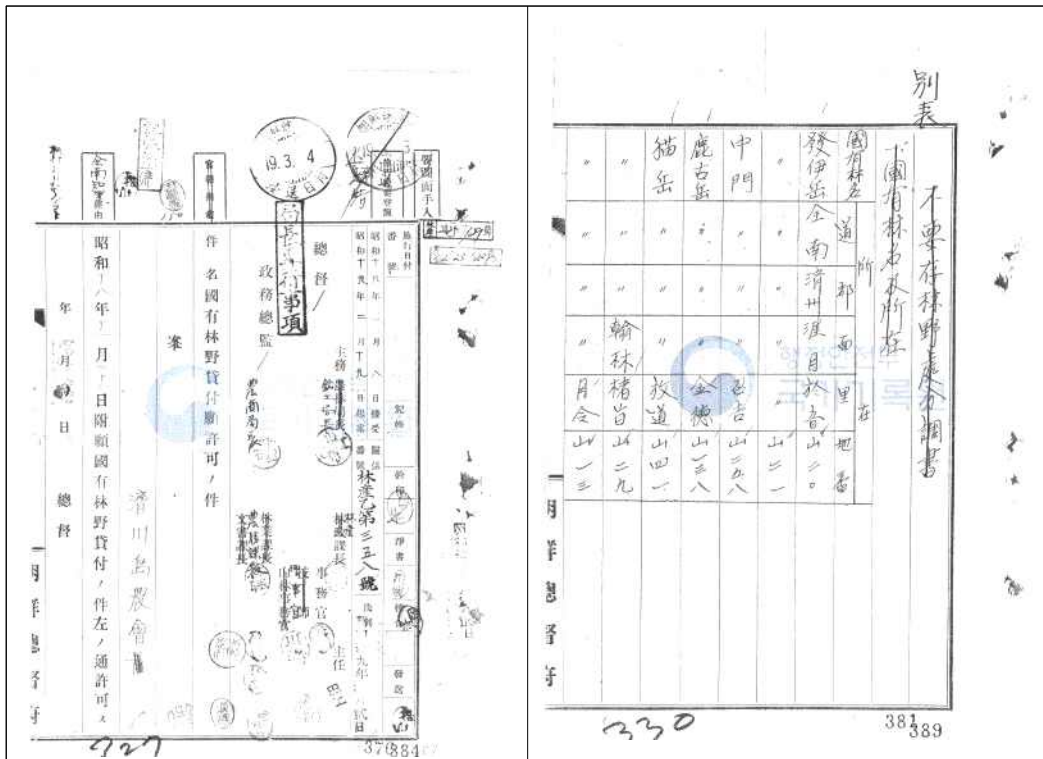
“섬에는 4만924두의 소와 22만2,500두(1931년 12월말 현재)의 말이 원시적인 연중방목으로 방사되고 있다. 당국은 축적수로 목우의 6만두, 목마 4만5,000두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수는 전조선 우마의 36% 가량이 된다. 우마소유자에 대해 제주도농회에서는 축산할(畜産割)로서 매년 1두에 대해 5전을 납부토록 하고 동시에 우마적의 등록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종래 두수할납금을 위해 허위의 보고를 하는 자가 많았다. 이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1932년부터 우마소유자로부터 축산할로써 마리 수에 관계없이 매년 55전을 납부토록 함과 동시에 소유의 전 우마를 등록하여 그 소유권이 공인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우마사육 호수가 종전보다 감소하는 일이 없어졌다.”

조선총독부는 한라산 원시림 지대의 국유림을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목마장이었던 국유지를 임대하거나 불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초지 등으로 조성된 터라 산림자원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조선총독부는 제주도축산동업조합과 제주도농회에 명하여 축산증산정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중산간지대 국유림을 대부받아 방목장 등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1933년에 「목야지정비계획」을 수립해 마을별로 공동목장조합을 설립하도록 명령했다. 새로운 목장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제주도 당국은 각종 공문서를 각 읍면과 제주도농회에 발송해 제주도농회 조직과 읍면장 등 행정력을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지역유지들도 목장조합 설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도 당국은 조합설립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각 읍면에 목장조합 설치계획수립, 마을공동목장 예정지조사, 마을공동목장 내 구획정리 사업 등을 지시했다(강만익, 2011). 이런 과정과 정책을 통해 조선총독부는 국마장 영역의 국유지를 처리했다.

연구자가 확보한 조선총독부 발행문서 자료(그림Ⅳ-20)에서도 조선총독부는 한라산 중산간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부 또는 매각한 사실이 보인다. 일제 폐망 직전인 1943년에도 밭이악, 녹고악, 묘악, 영위악, 민악산, 민악, 비치악, 부소악 등의 오름과 주변 일대를 제주도농회에 10년 동안 대부하기도 했다.



<그림 IV-20> 조선총독부 국유임야 대부 문서
출처: 국가기록원.

조선시대 말 사육 중심지에서 소 사육으로 비중이 달라졌고 조선총독부는 조선시대 국마장 지대에 대해 직접 경영, 관리를 하지 않고 임대형식 등으로 처리한 것이다. 간접 지배로 전환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변했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한라산 정책에 대해 연구자가 확보한 주요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 <표 IV-4>와 같다. 이 자료를 종합해보면 조선시대 국마장을 근거로 해서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에 한라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적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고하게 정립했으며 국유림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임산물 자원을 확보했다.

또한 한라산 국유림 보호라는 명목아래 도민들의 산림이용을 통제했으며, 이는 국유림 자체의 보호보다는 독점적으로 국유림을 관리한 것을 의미한다. 표고버섯을 인공적으로 재배하려면 상당한 양의 목재가 필요한데도 한라산 남측 원시림 지대에 대해 버섯재배를 집중적으로 허용한 점을 보면 독점적이면서도 약탈적인 이용을 반증하고 있으며 버섯재배를 허가하면서 조선총독부는 임대수익을 얻은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른 조림사업은 황폐화한 중산간 지대, 방풍이 필요한 곳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은 사실이지만 국유림 지대에 대한 조림사업은 천연림 보존과 후계림 조성보다는 임산물 처분 수익을 기대하는 경제림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조선총독부의 한라산 이용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임산물 확보’를 위한 독점적인 권리행사로 결론내릴 수 있다.

<표Ⅳ-4> 일제강점기 한라산 관련 주요 자료

자료 제목	제작년도	내용	비고
조선임야분포도	1910년	임적조사결과로 제작된 5만분의 1지도. 성립지, 무립목지, 수종 분포	제주도 부분은 조선시대 국마장 영역을 국유지로 간주한 것으로 추정
제주시 오등동산 182번지 토지대장	1913년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입구에서 한라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면적에 사정하고 지번을 부여	
한라산 국유림구분조사에 관한 건	1916년	한라산국유림구분조사 도면을 송부	한라산국유림 도면수 24장
한라산 5만분의 1 지도	1918년	조선총독부 제작으로 추정되는 지도의 한라산 영역으로 일본 버섯재배회사인 동영상 등이 표기	제주도 북부 8호로 기재
조선지질광상분포도	1920년	제주도 영역에서 현무암과 조면암 표기	
한라산 남·북구 사업사업에 관한 건	1921년	한라산에서의 보호림 단속과 통제, 연료, 버섯자목, 화전, 방목 등에 대한 의견	조선총독부의 한라산 국유림 사업계획의 기본적인 입장
전라남도 국유임야 지적대장	1922년	한라산 국유림 지번과 면적을 부여	한라산 국유림을 보존이 필요한 갑종 국유림으로 구분
조림 갱신대장	1922-1943년	국유림지대 조림위치, 수종, 면적, 육묘 등을 기재	

한라산 백록담 행정구역 도면	1930년대 추정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과 주변 일대에 대한 지번	백록담분화구는 대부분 토평리 영역으로 지정
조선특산물 지도	1933년	제주도 부분에서 한라산 국유림 지대를 지나는 산간 도로 표시	현재의 5·16도로 전신으로 보임
국유임야대부 건	1943년	제주도농회에 녹고약, 밭이악 등을 10년 동안 대부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국가기록원, 제주도, 제주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V. 해방이후 한라산 인식과 이용·관리

1. 한라산 인식

1) 산 인식

우리나라 국립공원 도입의 계기였던 자연환경보전은 산림녹화정책에서 시작됐다(문태훈, 2015). 1945년 해방 직후 대부분의 산림은 일제 식민지 말기의 황폐화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었다. 1940년대 일제는 조직적으로 산림을 수탈, 전국에서 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모조리 파헤치는 한편 송진을 채취하여 군사용 유류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등 전쟁물자 조달을 하면서 산림 훼손이 심각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산림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전쟁으로 인한 산림피해는 전체 산림면적의 70% 이상을 넘었으며, 1950년대 후반 남한의 산림은 절반 이상이 풀과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김수자, 2020).

1960년대의 산림관리는 자연환경보전 측면이 아니라 연료림 조성, 화전민 정리,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치산치수(治山治水)의 개념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특히 임목의 도벌과 남벌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 1961년에는 산림법이 제정되었는데 농촌연료를 해결하지 않으면 산림관리가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였다(문태훈, 2015).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경제적 자립을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의 길”이라며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라는 논리에 의거 산림정책도 추진되었다(김수자, 2020).

이에 따라 연료림 단기 조성계획(1966-1967)이 세워지고 1967년에 약 14억 그루 이상의 연료림 수종을 식재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조림사상 최고의 물량으로 기록된다. 이후에도 정부는 치산녹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제1차 치산

녹화 10개년계획(1973-1982),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9-1988)이 이 시기에 수립되어 추진됐다(문태훈, 2015).

1963년에는 「국토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학생, 단체직원 등 거의 전 국민이 나무심기에 동원됐다. 민동산을 ‘푸른 산’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조치 등이 내려졌고 나무를 몰래 베어내거나 운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졌다. 이 같은 치산녹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산림 보호, 산 보호의 의식이 형성됐고, 국립공원 제도 도입을 촉진시킨 배경이 된 것이다.

2) 인식의 표현: 보호구역 지정

(1) 국립공원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제도 도입의 가장 큰 계기는 1959년 UN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서의 결의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UN이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주도해 나가는 시점에서 미국 주도의 UN과 미국과 유럽의 민간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현병관, 2022).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0년에 들어서였다. 미국의 Harold J. Coolidge 박사와 Raymond W. Cleland 박사 등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관련된 국제교류 차원에서 방한해 비록 낙후되었지만 아름다운 자연자원이 있는 우리나라를 본 뒤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관광 진흥 정책의 하나로 삼으라고 조언하였다.

1961년 정부는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Coolidge 조언을 받아들여 지역개발 차원에서 국립공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당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가 1963년 10월 24일 세계국립공원대회에 파견된 미국의 국립공원 설계 전문가 William Hart가 세계 각국을 순방하던 중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약 2주 동안 우리나라의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등을 답사한 것이 또다시 국립공원 도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국립공원공단, 2019).

1967년 공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같은 해 12월 지리산국립공원이

국내 1호로 지정, 공고됐다. 당시 공원법의 국립공원 지정 첫째 요건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경관지”였다. 우리나라에서 수려한 자연경관지로는 남한에서는 설악산을 으뜸으로 꼽는데 이견이 없었지만, 당시 설악산은 수복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했다. 이것이 설악산보다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로 먼저 지정된 배경이었다(국립공원공단, 2019).

<표 V-1>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현황

구분	공원명	위치	지정일	면적(km ²)
1	지리산	전남 전북 경남	1967.12.29	483.022
2	한려해상	전남 경남	1968.12.31	535.676
3	경주	경북	1968.12.31	136.550
4	계룡산	충남 대전	1968.12.31	65.335
5	설악산	강원	1970.03.24	398.237
6	한라산	제주	1970.03.24	153.332
7	속리산	충북 경북	1970.03.24	274.766
8	내장산	전남 전북	1971.11.17	80.708
9	가야산	경남 전북	1972.10.13	76.256
10	덕유산	전북 경남	1975.02.01	229.430
11	오대산	강원	1975.02.01	326.348
12	주왕산	경북	1976.03.30	105.595
13	태안해안	충남	1978.10.20	377.019 (육상 24.233)
14	다도해해상	전남	1981.12.23	2,266.221 (육상 291.023)
15	북한산	서울 경기	1983.04.02	76.922
16	치악산	강원	1984.12.31	175.668
17	월악산	충북 경북	1984.12.31	287.571
18	소백산	충북 경북	1987.12.14	322.011
19	변산반도	전북	1988.06.11	153.934 (육상 136.707)
20	월출산	전남	1988.06.11	56.220
21	무등산	광주 전남	2013.03.04	75.425
22	태백산	강원 경북	2016.08.22	70.052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2019, 국립공원학 개론.

지리산을 시작으로 1968년에만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 등 3개소가 지정되었으며, 1970년대는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등 9개 국립공원이 탄생했다(표 V-1).

1970년대 9개 국립공원이 연거푸 지정된 것은 당시 박정희의 미국 방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미국 일정에서 요세미티국립공원¹⁴⁵⁾을 둘러봤는데 특이하고 기이한 경관에 감명을 받았고, 이런 강렬한 인상이 귀국 후 국립공원을 확산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현병관, 2022).

미국의 국립공원은 1872년 3월 1일에 옐로스톤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유형의 국가공원이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인들의 자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국립공원이 창설된 것은 변경(frontier) 개척에 따라 ‘야생지(野生地)’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것이 배경이다. 유럽에서 청교도 등이 신대륙으로 이주할 당시 야생지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금광, 산림 등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19세기 무서운 속도의 서부개척 등으로 야생지가 공포의 대상에서 극복이 되고, 약탈적 자원개발로 야생지가 사라져갈 즈음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미국을 건국하면서 유럽과 차별화한 이미지가 필요했다. 그것은 광활하고, 숭고하고, 순결한 자연이라는 야생지였다. 즉 야생지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신적인 실재였다(권영락, 2010).

미국의 건국이념과 신화의 기념물로서 남아 있는 야생지를 보존, 보호해야 했으며 이런 사상을 반영해서 국립공원으로 체현(體現)된 것이다. 즉 국립공원은 미국의 과거에 대한 야생지의 자유를 상징하였으며, 추한 인공적인 현대 문명에 대해 매력적인 자연적 대안을 표상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즉 숭고한 경관을 가진 장소인 옐로스톤, 요세미티, 그랜드 캐니언 등이 초기 국립공원으로 선택되었다(Cronon, 1998).

또한 이런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 생태학적 상징물들은 국가정체성을 형

145) 미국 2번째 국립공원이자 자연보호를 위해 법제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미국 국립공원의 아버지이자 환경운동가인 John Muir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곳으로 해발 3000m 위에 빙하가 녹아 빠져나가면서 생겨난 넓은 초지와 높은 성당 같은 웅장한 화강암 바위가 계곡을 치솟아 있다.

성하는데 기여하거나, 혹은 국가가 이용한 것도 사실이다.(Whitehead et al, 2007). 국립공원의 세계적 확산은 1969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0차 IUCN총회에서 국립공원에 관한 정의를 갖추고 126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으면서 급속히 번졌다. 이로써 국립공원에 대한 이념, 설립취지 등에 대한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국립공원의 개념은 경관의 아름다움과 생태적인 소중함이라는 고귀한 이상을 영원히 유지시켜 나가고, 공공적 이용이라는 국립공원 철학이 현재까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Hartzog, 1972; 조제중, 2006).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국립공원이 창설된 것은 보전주의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국립공원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이념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야생지에 대한 국립공원의 지정이 오늘날까지 야생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분명하다(권영락, 2010).

이처럼 국립공원에 깔린 자연관은 서구의 기계론적 자연관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완전히 자연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이분법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자연을 개발, 지배나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나 그 반대로 순수한 자연 그 자체를 보존의 대상으로 보는 두 견해 모두가 자연을 인간과 분리한 이분법적 자연관(진중헌, 2005)에 머물고 있으며, 이런 사상적 배경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수용과정과 운영에도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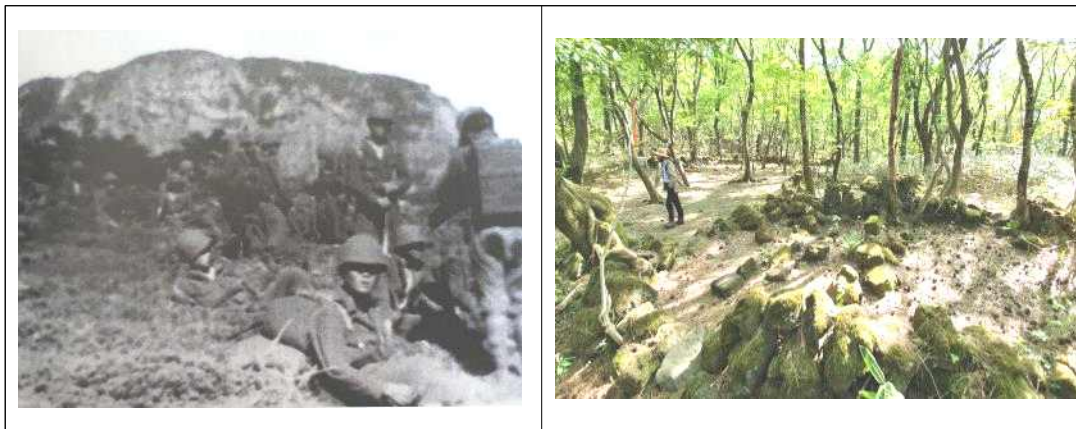
(2)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① 한라산 개방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해방을 맞은 제주도는 평온을 찾기도 전에 ‘제주4·3사건’이라는 격동에 휩싸였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4·3사건을 규정했다.

4·3사건 당시 한라산은 주민들에게는 피난처였고, 무장대에게는 훈련장이자 은신처이고, 군경에게는 토벌의 현장이었다. 1948년 11월부터 전개된 정부의 중산간 마을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한라산은 폐쇄의 공간이자 전투의 공간이 됐다.

토벌대와 무장대가 교전했던 제주시 아라동 관음사에는 토벌대 주둔소 흔적(그림 V-1)이 남아있다. 1949년 3월부터 잔여 무장대 토벌을 위한 2연대의 작전이 강화되면서 대대병력과 경찰 등이 주둔했던 곳이다. 2연대는 제주도의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토벌의 근거지로 삼았는데 관음사 주둔지 외에도 서귀포 수악교 인근에 1대대를, 교래리와 산굼부리 사이에 3대대를 배치하여 방어선을 구축했다. 관음사 일대는 4·3사건 발발 당시부터 무장대의 주요 길목이었고, 한 때 무장대의 본거지가 되었던 한라산 어승생악의 진지와 가까운 주요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벌대가 이곳에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그림 V-1> 한라산에서 토벌작전을 벌이는 군경(좌)과 관음사 주변 군경토벌대 주둔소 터(우)

출처: 제주4·3역사기록사진집(좌), 연구자 촬영(우).

4·3사건 과정에서 군경토벌대는 한라산 백록담 주변까지 올라가 수색작전(그림 V-1)을 벌였으며 무장대는 이에 대항해 한라산 공간에서 전투를 벌였다. 한라산 노로오름 일대에서 군경토벌대와 무장대의 충돌 또는 주둔 과정에서 나온 탄알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한라산 큰드레왓 일대에서는 난리를 피해 대피했던 주민들이 토벌작전에 희생되는 일도 발생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군경의 자료가 대부분으로 전투 내용에 대해 시각의 편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토벌 상황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V-2> 제주4·3사건 당시 한라산 지역 교전사항

날짜	장소	내용
1948년 12월 5일	관음사 인근	8명의 무장대를 사살
1949년 5월	관음사 인근	무장대 5명을 사살하고 20명을 생포
1949년 6월 7일	물장오리 동쪽	무장대 총책 이덕구 사살
1950년 2월 5-6일	돌오름 부근	수색작전을 벌여 무장대 8명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
1950년 3월 10일	중문면 해발 881m	무장대 야전병원을 기습해 병원장 등을 사살
1950년 3월 하순	한대오름 부근	무장대 회합장소 기습해 7명을 사살
1950년 3월 17일	해발 1394m에서	무장대 아지트 기습해 1명 사살하고 3명 생포
1950년 3월 17일	해발 1394m와 오백장군지역	무장대 아지트 기습해 2명 사살
1951년 1월 29일	사라오름 인근	식량 운반중인 무장대 30여명 기습, 3명 사살
1951년 2월 10일	사라오름과 명도암 사이	무장대 아지트에서 15명을 사살. 토벌대 10명 사상자 발생
1951년 2월 22일	북악 인근	무장대 40명과 조우하고 교전 끝에 5명을 사살
1952년 12월 3일	물장오리오름 인근	무장대 아지트 발견, M1소총과 99식 장총 노획
1952년 12월 24일	적악 서북쪽 말채오름	무장대 20여명과 교전 끝에 4명 사살
1953년 1월 26일	붉은오름과 새오름 사이	무장대 50여명과 교전을 벌여 9명 사살하고 1명 생포
1953년 3월 14일	성판악 인근	무장대 아지트 발견되자 무장대는 도주
1957년 3월 21일	견월악 지역	식량확보차 하산하는 여자무장대 한순에 생포
1957년 3월 27일	평안악 밀림지대	토벌대는 무장대 3명과 교전 끝에 총책 김성규 등 2명 사살

출처: 정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도 제주4·3유적 I,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등의 자료에서 내용을 추출해서 연구자 작성.

1954년 9월 21일 제주도 경찰국장인 신상묵은 한라산 금족지역을 해제하고 전면개방을 선언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됐던 마을 성곽의 보조임무도 철폐 했는데(제주도경찰국,1990), 이는 1948년 4·3사건 발생 후 6년 6개월 만의 일로 사실상 도 전역을 평시 체제로 환원시킨 것이다(강정효, 2006).

경찰은 한라산을 전면 개방하면서 1955년 9월21일 백록담 북벽 정상에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그림 V-2)를 세웠다(제주도경찰국, 1990). 높이 100cm, 너비 45cm 가량인 이 비석은 한반도 모양으로 오른쪽 상단에는 태극기가 그려졌고 뒷면에는 “영원히 빛나리라. 제주도경찰국장 신상묵 씨는 4·3사건으로 8년간 봉쇄되었던 한라 보고를 갑오년 9월 21일 개방하였으니 영웅적 처사가 아니리오(후략)”라고 쓰여 졌다.



<그림 V-2>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좌)와 기념비 위치(우)
출처: 연구자 촬영.

한라산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다시 등산의 발길이 이어지는데, 그 시작이 1954년 10월 5일 제주초급대학 학도호국단 주최로 120명 전원이 사각모 쓰고 한라산을 오르는 것이다. 이어 10월 10일에는 제주신보사가 주최한 한라산 개방기념 답사가 열려 길성운 도지사와 김창욱 검사장, 신상묵 경찰국장, 미 고문관 등 군경, 교육, 금융, 언론계 인사 66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또한 도청 산하 내무국, 산업국과 경찰국 합동으로 구성된 횡단도로 조사반이 한라산 횡단도로 공사를 위한 현지조사에 나서기도했다. 제주대학교 답사반은 한라산 전역에 대한 조사에 나서

는 등 한라산 개방에 따른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외에도 한라산 개방을 기념하는 등산대회가 기관, 직장, 단체별로 잇따라 열렸다(강정효, 2006).

② 국립공원 지정

1960년대 ‘민족의 명산’, ‘남한의 최고봉’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한라산 등산이 활성화될 즈음 정부에서는 국립공원 지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63년 10월 24일 세계국립공원대회에 파견된 미국의 국립공원 설계 전문가 William Hart가 세계 각국을 순방하던 중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약 2주 동안 우리나라의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등을 답사했고 정부는 1965년부터 국립공원 제도 도입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였는데 주무부처가 건설부였다(국립공원공단, 2019). 시설위주의 국립공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다.

William Hart는 한국을 답사하고 돌아간 후 보고서에서 원거리 관광가치, 유사 이래 역사적 가치, 특유한 과학적 가치 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보호를 위해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지역으로 한라산을 비롯해 몇 개 지역을 들었다. 이로써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지정에 앞선 조직적인 학술조사가 이뤄졌다(문화공보부, 1968).

한라산은 1966년 6월 22일 문교부에 의해 해발 700-1,000m 이상과 일부 계곡에 대해 천연보호구역으로 가(假)지정됐다. 문교부가 가지정을 서둘러 취한 것은 제주도가 추진하던 한라산 성판악에서 구상나무지대까지 8km의 관광도로 개설 계획과 수종갱신 사업을 벌이며 한라산을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주도와 일부에서 개발사업과 상충되니 재조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교부가 강행하여 결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1966년 10월 12일자로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됐다(강정효, 2006).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진 1966년에 IUCN의 요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 과학사절단 소속의 미국 국립공원청 George C. Ruhle 국장은 전국의 명승지를 둘러보고 나서 설악산 또는 한라산을 1호 국립공원으로 제안했으나(현병관, 2022) 정부는 1967년 지리산을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George C. Ruhle은 IUCN에 제출한 특별보고서에서 한라산의 보호문제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핵심사항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제주도, 1970).

“학자나 학생, 보이스카우트 기타 젊은 층에 의한 공원의 이용은 자연과 역사적 성질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권장되어야 하며 국제관광사업을 위한 관광지의 개발은 그것이 지방이나 국가경제개발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2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라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서, 그 구역은 한라산 산정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상외 분화구는 물론이요 북부의 아한대성 관목림대를 비롯하여 표고 1,200m 내지 1500m 사이에 있는 상록침엽수림지대의 상부한계와, 분화구 북쪽의 침식된 곳, 산정부근의 돌출된 자연풍경 및 교목과 관목이 산재해있는 하부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공원 내에서의 사람의 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며 또 감독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이나 기념건조물, 캠프장소, 피크닉 장소는 물론, 이와 유사한 시설등도 산정이나 그 부근 혹은 분화구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등산로는 관광이나 학술 및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정상지역과 분화구까지의 접근은 이 등산로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등산로를 넓힌다던가 그 외 필요이상으로 손질해서는 안 된다.

공원 안이나 공원부근의 숙박시설은 수림대 하부한계 이하의 단순한 등산로변 또는 횡단도로 부근의 캠프 장소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안지대에는 호텔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공원내의 야생동물과 식물상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시초부터 강력한 시행규칙이 채택되어야 한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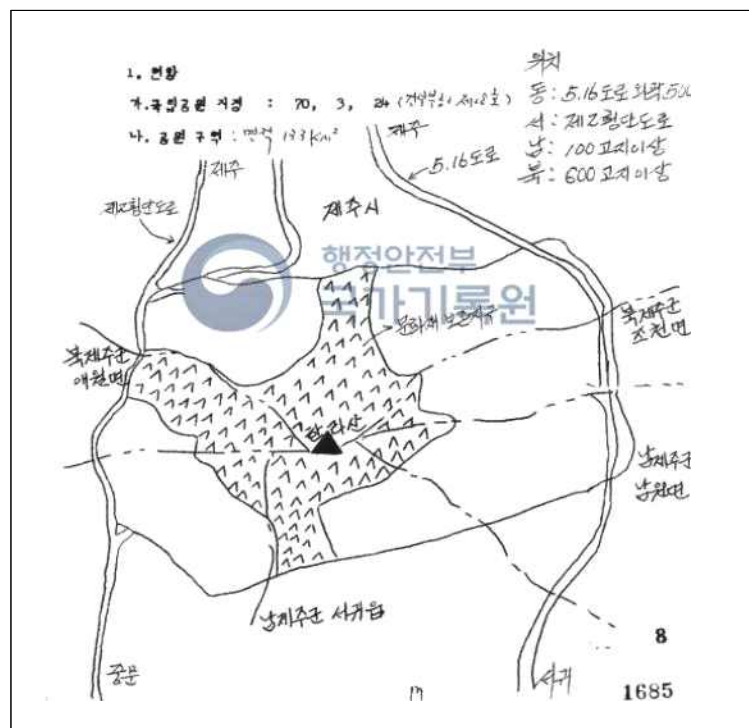
관광해설, 프로그램 등은 관광객은 물론이요 지방주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공원내에서는 해설을 위한 시설과 봉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한 두개정도의 박물관과 관광객 방문 센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박물관학자의 강의, 야외답사, 정보(안내)봉사, 등산로의 표지판 및 전시와 대중문고도 마련되어야 한다.”

George C. Ruhle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자연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피력했다. 등산로 역시 개발

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해설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립공원의 관리지침이라고 여겨질 만큼 세부적이다.

정부가 국립공원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1967년 1월24일 열린 제1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한려해상, 설악산, 한라산을 1968년에 국립공원 후보지로 조사할 것을 결의했는데, 1968년 제2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제1차 국립공원위원회 결의와는 달리 경주와 계룡산,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그해 12월 31일 각각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했던 한라산과 설악산은 1968년 9월 열렸던 제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970년 3월 속리산과 함께 국립공원에 지정되었다(헌병관, 2022).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은 동쪽이 5·16도로 외곽 500m고지 이상, 서쪽은 제2횡단도로 1100m고지에서 서귀포 돈내코 상류를 거쳐 수악교간, 북쪽은 어승생에서 관음사, 물장울을 거쳐 5·16도로 600m고지 이상으로 총 133km²가 해당된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당연히 포함됐다. 아래 <그림 V-3>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 실린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이다.



<그림 V-3> 1972년 한라산국립공원 조례의 국립공원 약도
출처: 국가기록원.

1970년 제주도지 44호에 실린 김학소(당시 건설부 주택도시국장)의 기고문인 「한라산국립공원 지정의 배경」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정부의 시각을 알 수 있는데 기고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의 지정의 목적은 공원 내 자연경관의 보호 및 시설물의 이용 증진에 있고 여가공간의 제공에 있다. 공원구역내에는 1481종의 식물과 683종의 곤충류와 백록담을 비롯한 특수 자연환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자연보존지역, 넓은 초원 등의 전개 등은 국립공원으로서 좋은 전망을 지니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아열대성 식물의 서식과 동물류의 분포등 다방면의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원지정으로서의 의의는 더욱 큰 것이다. 국립공원의 지정은 자연의 보호보존 외에 이용 면에서는 관광의 대상지역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세계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올 경우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어떤 것인가 알고싶어 할 것이다.

이는 세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널리 세계 각국에 P. R하기 때문에 선전의 효과도 얻게 된다. 국립공원이 가지는 근본적인 의의를 말한다면 자연 즉 지정된 공원구역내의 모든 경관을 원형 또는 순수한 그대로를 보호 보존하는 것이다. 이 공원구역 주변지역에는 이미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연보존지역은 국립공원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립공원과 같은 기능과 동등한 지역으로 자연을 보호 보존하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자연보존지역의 지정, 국립공원의 지정은 지역주민의 산림업에 대해서는 다소의 불편을 두게 될 것이나,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본다.

국립공원의 지정은 자못 지정으로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용개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지고 자연의 보호보존에 대해서도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용과 보존의 양면을 잘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그 지역을 관광산업을 위한 입지적 충족요소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 기고문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주요 내용은 동식물 등 자연을 보호, 보전하자는 자연경관적 측면에 국한됐다. 한라산을 신들의 거처인 신산, 제주를 수호하는 진산, 전설의 명산 등의 개념은 소

거된 채 오로지 자연경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국립공원의 창설 배경인 미국의 자연관이 유입된 데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인식에서는 천-지-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통적 자연관은 배제된 채 자연을 객체화, 사물화한 사고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국가차원의 제사는 일제강점기에 끊겼으며 해방이후 국립공원 지정에 이르기까지 행해지지 않았다. 영험한 존재이자 신적 개념으로 인지한 산 숭배 의례는 민간에서 이어받아 ‘한라산 영산대제’¹⁴⁶⁾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림 V-4>와 같이 한라산 관음사에서 매년 봉행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2600여년 전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에서 설법을 하던 영산회상을 재현하는데 봉안 위패에는 한라산신을 비롯해 탐라바다 해신, 천신, 설문대할망, 영등할망, 탐라개국 시조신, 4·3사건 희생 영가를 모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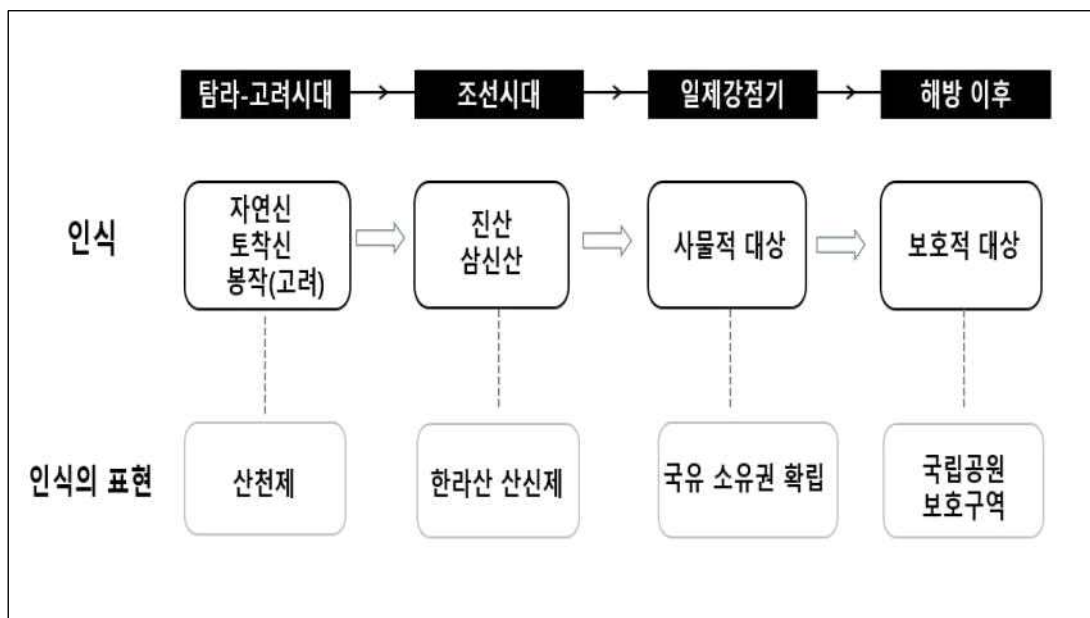


<그림 V-4> 관음사의 한라산 영산대제
출처: BBS

이처럼 한라산에 대한 국가의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진행됐으며 그에 따른 인식의 표현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V-5>에서 보듯이 한라산에

146) 2000년 제주시 관음사에서 처음 거행한 한라산 영산대제는 탐라국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풍운뇌우제와 제주 지역 각지에서 행해졌던 각종 제례를 현대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참가한 사람들의 부모, 조상 등의 영가는 물론, 4·3사건 원혼들의 영가를 천도시키고, 기원제 및 경신 공양제를 베푼다.

대한 인식은 토착신, 자연신에서 시작해 진산, 삼신산으로 전개됐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신(神)이 사라진 채 사물적 존재였다가 해방이후에는 보호, 보존적 대상으로 변했다. 인식의 표현은 산을 경외의 대상으로 섬기는 제사에서 국유권 강화로 진행됐으며 현재에 와서는 국립공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발현됐다. 이는 국가의 운영주체가 어떤 관점으로 한라산을 바라보는가에 따른 변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V-5> 한라산 인식과 그 표현의 변천 흐름도

출처: 연구자 작성

2. 한라산 이용·관리

1) 자연경관의 상품화

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충적 가치에 대한 갈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는 공원자원의 보호와 적절한 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하고, 경관감상이나 트레킹 등

휴양활동을 위한 이용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보존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조제중, 2006).

이 같은 경관감상이나 휴양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의 관광이라는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즉 자연경관의 상품화는 곧 자연 관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관광이 한국사회에서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주도하에 진행된 금강산 관광개발은 금강산 국립공원화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공원화계획은 비록 중일전쟁의 발발로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조선총독부는 국립공원법의 제정을 통해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조성운, 2016). 이때 지리산과 한라산도 국립공원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국립공원지정은 1960년대로 넘어가는데 국립공원지정과 관련된 주요한 사회적 움직임은 관광산업육성이었다.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1967년 공원법이 차례로 제정됐다. 이러한 법제화는 국립공원 및 관광지 조성, 온천장, 해수욕장의 개발, 산야개발과 여가이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졌다(오세숙·김중순, 2013).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 초기 국립공원 지정 사례는 자연보호보다는 국토개발과 관광산업육성이라는 개발논리가 지배적이었다. 건설부가 확정된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관광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도립공원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될수록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려는 여행자의 요구에 맞춘 도로의 개설과 숙박시설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였다(오세숙·김중순, 2013).

1969년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는 로키산맥의 계곡을 따라 요세미티까지 오는 동안의 장엄한 경치에 대해 “이곳은 도로 또는 관광시설이 잘 돼있을 뿐이며, 우리나라도 설악산, 지리산과 같은 곳에 도로와 관광시설을 갖추면 이곳 못지않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소감(현병관, 2022)은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974년에 지정 공원이 늘어나면서 공원관리 방침 정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는데 정부는 국립공원의 개발 및 관리 방침을 “자연자원을 보호, 보전하여 국민 보건휴양과 학술연구 활동에 기여하면서, 분산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동시에 외

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거점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파급 효과를 제고시키며, 진입도로와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민간투자의 유치를 촉진한다”는데 뒀다(이연우, 1998).

결국 국립공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지역일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보고이고 또한 각종 문화재와 관광, 휴양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잘 가꿀 필요가 있고(박장근·유영규, 2012) 대표적인 관광지로써의 기능에 따른 개발논리가 공존하게 된다(오세숙·김중순, 2013).

IUCN의 국립공원 제도의 주요 목적에서도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IUCN의 국제보호구역 범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육지 및 해양경관 보호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 보호지역의 기준에도 “일반적 생활양식과 경제활동 속에서 관광, 휴양을 통한 대중의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정 지침이 있다(권영락, 2010).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세계유산센터의 역할은 “한국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했고, 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연탐방의 거점이자 제주관광의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¹⁴⁷⁾ 이 세계자연유산의 핵심은 한라산국립공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용의 핵심이 보전과 관광의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정목적에서도 자연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관광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배경에서 공원내 자연경관의 보호 및 시설물의 이용 증진에 있고 여가공간 제공에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은 자연의 보호, 보존 외에 이용 면에서는 관광의 대상지역이 되는 것이다.

전술한 George C. Ruhle 보고서에서도 “등산로는 관광이나 학술 및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천연보호구역은 관광객의 지방 유치와 장래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보여 자연보전과 관광의 양립을 밝힌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관광 활성화는 1975년 정부가 확정된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도 드러난다. 이 계획의 산악관광지구 현황과 개발 기본방침을

147)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홈페이지(jeju.go.kr/wnhcenter/center/info.htm).

보면 다음과 같다(김한욱, 2022).

“한라산은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내 토지이용에 대한 법적 행위는 제한이 되고 있으나 그 관리는 충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내는 무질서한 등산코스 15개가 있고 등산객이 편익시설은 전무이며, 대피시설 13개소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산악 관광지의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관광객유치가 부진되고 있으며 때로는 피난 등의 불상사가 발생한다. 한라산은 자연경관의 보호, 보전을 우선하고 영실, 어승생, 관음사, 성판악지구에 한하여 관광시설을 허용하며 등산코스도 5개 코스만을 개설한다. 산악관광지구 관광사업은 국립공원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 운영한다.”

정부는 한라산 보호와 관광의 양면을 모두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세부계획을 보면 한라산 영실지구에 공공시설로 전망대, 야영장 등을 설치하고 하부에서 상부까지 케이블카를 계획하고 민자를 유치해 건립하도록 한 내용이 나온다.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케이블카 건립을 추진하다 2005년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논의를 종결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탐방, 관광에 결정적인 역할은 한 부분 중 하나는 도로의 개설이었다. 5·16도로인 한라산 제1횡단도로는 제주시를 출발해 한라산 정상 동쪽 해발 750m에 위치한 성판악휴게소를 경유하여 서귀포까지 이르는 40km로 1956년 포장공사를 시작해 1969년 개통했다(강만익, 2006). 이 도로의 개통으로 한라산 관음사를 거쳐 정상에 이르는 전래의 등산코스는 물론이고 성판악휴게소에서 정상에 이르는 성판악코스가 새로 생겨났다.

1100도로인 한라산 제2횡단도로는 대표적인 산악도로이며 제주시 오라로터리에서 출발해 해발 1,100m 휴게소를 경유해 서귀포시 중문동 일주도로에 이르는 총연장 35km의 도로로서(강만익, 2006), 1968년 착수해 1973년 완공됐다(황경수, 2006). 이 도로의 개통으로 어리목, 영실코스를 통한 한라산 등산인구가 증가했고 도로에서의 겨울철 눈꽃관광을 촉진시켰다.

2개의 한라산 횡단도로의 개통으로 1974년 한라산 등산객은 2만3,000여명을 기록했고, 1981년에는 10만 명을 넘었다. 등산인구의 증가는 한라산 훼손으로 이어졌다. 한라산의 훼손지 복구 및 자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용역은 1985년

「한라산천연보호구역학술조사보고서」를 시작으로 2004년 「한라산 백록담 담수보전 및 암벽붕괴방지방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런 과정에서 한라산 훼손지에 대한 적절한 공법제시 미흡 등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훼손지 복구작업이 진행됐다(고정균, 2006).

김상우(1999)는 한라산 등산로와 주변, 고산지대 황폐화현상으로 자연보호를 위해서 한라산을 폐쇄해서 방문객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는 있지만 관광욕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서 자연환경보호와 국민관광진흥 차원의 관광개발이라는 과제를 함께 실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정호(2008)는 보전을 전제로 관광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관광매력을 증진하는, 즉 관광과 환경이 조화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안으로서 생태관광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자연보전과 관광이라는 배경을 갖고 탄생한 뒤 접근성을 위한 도로개설,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등산객이 늘었다. 이는 한라산 훼손으로 나타났다. 경관보호를 위해 훼손지 복구작업, 출입통제 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면 자연을 경험해야하고 산에서 얻는 심미적, 교훈적, 학술적 기능도 있기에 관광과 자연보전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2) 국토 및 통일의 상징이미지

‘가자 한라에서, 오라 백두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다’. 학생운동의 구호로 주로 쓰이던 이런 용어가 정부 행사에서 등장하는 등 어느새 일상적으로 쓰이게 됐다. 이는 한라산과 백두산이 국토의 영역과 통일을 암시하고, 표현하는 상징이 된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8년 9월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남측 대통령 문재인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겨레의 하나됨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건배했다. 건배사에 나선 문재인은 “김 위원장 내외의 건강과,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북 8천만 겨레 모두의 하나됨을 위하여”라고 외쳤고, 참석자들은 “위하여”라고 화답했다(연합뉴스 2018. 09. 19.).

문재인과 부인 김정숙은 이어서 9월 20일 김정은 부부와 함께 백두산 천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군봉에 올라 김정숙은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을 꺼내며 “한라산 물을 갖고 왔어요. 천지에 가서 반은 붓고 반은 백두산 물을 담아갈 겁니다.” 이에 화답하듯 김정은 부인 리설주는 “우리나라 옛말에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로 내려간 문재인 부부는 생수병에 담긴 한라산 물을 천지에 조금 부었다. 백두와 한라의 ‘합수’였다(연합뉴스 2018. 09. 20).

한라산과 백두산이 나타나는 장면은 또 있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2018년 4월 27일 관문점 소떼길 옆에서 남북기념 식수를 하면서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과 대동강과 한강수를 ‘합토 합수’ 하며 남북 평화와 화합의 의지를 다졌다(연합뉴스 2018. 04. 27.).

남북정상행사에 한라산과 백두산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국가의 통일의 상징이미지로 쓰인 것은 2007년 대통령 노무현 때인 듯하다. 정부는 2007년 10월 4일 국정브리핑에서 노무현은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에 평양 중앙식물원에서 대전 산림청 식물원에서 가져와 이틀 전 심어놓은 반송(盤松) 한 그루에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가져온 흙을 합치고, 백록담과 천지의 물을 뿌렸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런 합토(合土), 합수(合水) 행사는 국토의 강역(疆域)을 뜻하면서 동시에 통일의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의 남쪽 끝 한라산, 북쪽 끝 백두산이 만나 화합하는 이미지는 문서로 드러내기 힘든 내면적 의지를 밝힌 상징화 작업이다. 한라산과 백두산이 의인화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상징적인 기호로서, 새로운 위상을 공식적으로 보인 것이다. 그리고 상징적 구절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로 표상화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구절이 언제 처음부터 나왔는지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신동엽(1930-1969)이 1967년 발표한 시 「깎데기는 가라」의 마지막 연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깎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여기서는 통일보다는 강역을 뜻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1980년대 학생운동권에서 보다 선명하게 표출이 된다.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에 실린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통일 운동은 1988년 3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선 김종기가 남북한 대학생 체육 대회와 국토 종단 순례 대행진을 제안하면서 폭발하듯 불이 붙었다. 김종기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에서 민족 화해를 위한 남북한 청년 학생 국토 종단 순례 대행진을 1988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북한 청년 학생은 백두에서 판문점까지, 남한 청년 학생은 한라에서 판문점까지 하고 8월 15일 판문점에서 만나 한판 대동제를 하자고 제안했다(2017. 04. 16.).”

한겨레신문에 실린 박경신 고려대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는 명확하게 한라산과 백두산의 상징 이미지가 전달이 된다. 기사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88년 여름 전대협은 “가자 한라에서, 오라 백두에서, 남북은 통일로, 양키는 아메리카로”를 외치며 북한 쪽과 8·15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연세대에서 전대협 의장 오영식과 남쪽 대표 김종기 등이 온몸에 태극기를 감싸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소원’을 불렀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2012. 04. 13.).“

단순히 강역의 의미로 전달됐던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용어는 통일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염원까지 내포하는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상징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 같은 상징이미지는 1989년 임수경 방북사건¹⁴⁸⁾이 촉진 기제(機制)가 되었고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국토강역, 통일을 의미하는 용어로 굳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48) 1989년 6월30일 전대협 대표 임수경(외국어대 불어과 4년)이 단신으로 평양에 도착,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뒤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온 사건이다. 당초 평양축전 참가를 허용할 것처럼 보이던 정부가 문목사 방북사건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꿔 참가봉쇄방침으로 돌아서자 전대협은 극비리에 임수경 대표를 제3국을 통해 평양축전에 파견했다. 평양에 도착한 임수경은 평양축전에 참가하는 동안 북한학생 위원회의 위원장 김창룡과 함께 8개항의 남북 청년학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백두산을 출발, 한라산을 향해 국토를 종단하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 축전이 끝나자 임수경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와 함께 8월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임수경 방북사건은 북한에서도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그려진 대형 다부작 작품인 ‘범민족대회’(총 6편)에서 제1편의 제목은 ‘조국통일촉진 백두한라 대행진 출정’으로 백두산이 배경이다. 임수경을 통해 남한에서 사용하던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구호가 백두산을 배경으로 사용되면서 ‘통일’이라는 새로운 상징이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박계리, 2011).

임수경에 앞서 1989년 3월에 방북한 문익환 목사의 붓글씨인 ‘백두에서 한라까지 조국은 하나다’도 익히 알려진 작품(황진태, 2018)인데 이런 상징이 운동권에서 쓰이다가 정부가 홍보하는 상징이미지로 전화(轉化)한 것이다.

백두산과 한라산이 국토통일의 상징이미지로 뿌리내리기 이전에 국토의 북단과 남단의 대표 장소라는 관점은 존재했다. 국토를 지맥의 흐름으로 연결하면서 강역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백두산을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의 신성화화 함께 시작된 개념이었다.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설화부터 백두산은 신성한 산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백두산이 현실적으로 국토의 머리로서 역할을 한 것은 조선초기이다. 조선 건국 후 세종대에 이르러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을 확보함에 따라 백두산은 민족의 산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았다(양보경, 2012).

백두대간은 산을 개별적,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지맥으로 연결된 생명체, 유기체로 인식했는데 바다 밖의 한라산과도 지맥으로 잇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수광(李睟光·1563-1628)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은 다 그 근본이 백두산에서 나왔다. 마천령, 칠령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이 되고 지리산에 이르러 그쳤다. 남사고(南師古)가 항상 이르기를 ‘백두산맥이 응당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다. 마땅히 바다 속에 숨어 뻗어서 일본의 여러 섬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 말에 이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제주의 한라산도 또한 태백산맥이 바다 속에 숨어 뻗어서 된 것의 하나일 것이다.”¹⁴⁹⁾

149) 『芝峯類說』, “我國諸山 皆發源於白頭山 自磨天鐵嶺而南 爲金剛五臺太白 至智異而盡焉 南師古常言白頭山脈 不應到此而止 當是隱伏海中 爲日本諸島云 其說有理 今濟州漢學 亦其一也.”

백두산과 한라산의 연결성은 조선시대 백두대간의 흐름과 풍수지리적 해석에 기초해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양난을 거치면서 제주가 국토 영역의 남단으로서 요충지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전쟁에 필수적이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말의 최대 생산지라는 점에서 제주의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육지와 제주를 잇는 인식이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두대간 인식과 풍수지리적 요소가 더해지면서 한라산은 육지와 연결된 국토 장역의 이미지를 갖췄고 해방이후 국가의 상징화 과정에서는 한라산을 제주도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보다 더 큰 규모의 특별한 심상으로 끌어올림으로서 영토적 통일성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황진태·박배균, 2013). 이런 상징화는 자연이 본래 갖고 있었던 생태적 맥락이 제거됨으로서 추상화된 자연을 의미한다(Whitehead et al, 2007).

국토인 한반도 남북의 끝을 따진다면 북한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¹⁵⁰⁾이고 남쪽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가 될 것이다. 실제 한반도의 남북 강역과 달리 백두산과 한라산을 남과 북의 끝단으로 설정하고,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이런 인식 확산된 것은 ‘산’이 다층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구의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보면 산은 객관화되고 타자화되지만, 동양적 관점에서 본다면 산은 개인의 심성, 공동체 의식과 일체화가 가능하다. 산은 숭배의 대상이자 신의 거처이고, 생활의 공간이자 득도의 현장이기도 하다. 또한 산에서 좋은 기(氣)를 받으려고 등산을 하고, 산을 ‘어머니 품속’으로 여기는 정서는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가 ‘한라산에서 백두까지’를 국토영역과 통일의 상징이미지로 이용이 가능한 것은 이처럼 산에 대한 인식이 공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3) 관리의 체계화, 세계화

1987년 7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맡게

150) 북한의 지역적 경계선은 북쪽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각각 1,353.2km, 16.2km를 접경하고 있다. 북단은 북위 43°00' 36" 인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이다.

되지만, 한라산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관리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건설부가 받아들여 제주도가 관리하게 됐다. 행정조직으로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를 맡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전개과정 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주요 일지를 아래 <표 V-3>과 같이 주로 국가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했다.

<표 V-3> 한라산국립공원 주요 일지

- 1946년: 한국산악회 ‘한라산 종합 학술조사 등반’
- 1948년 10월: 제주4·3사건으로 한라산 금족령
- 1955년 9월: 한라산 개방
- 1961년: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 조직
- 1966년 10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지정
- 1967년 5월: 제1회 한라산철쭉제 개최
- 1969년 10월: 5·16도로(제1횡단도로) 개통식 개최
- 1970년 3월: 한라산국립공원 지정(133km²)
- 1969년 1월: 제1회 전국대학생 적설기 한라산등반대회
- 1973년 9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개소
- 1973년 12월: 1100도로(제2횡단도로) 개통
- 1974년 1월: 제1회 만설제 개최
- 1974년 12월: 어리목-정상(6.1km), 성판악-정상(9.6km), 관음사-정상(9.3km), 영실-정상(6.8km) 등산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
- 1982년 2월: 대통령 경호 군용기 관음사탐방로 계곡 추락, 특전사대원 등 53명 사망
- 1986년 5월: 윗세오름-서북벽-정상(2.0km) 자연휴식년제 실시
- 1986년 8월: 윗세오름-남벽-정상(2.8km) 등산로 개설
- 1990년 11월: 국립공원 내 야영, 취사 전면 금지
- 1991년 11월: 어승생악 등산로(1.3km) 개설
- 1994년 7월: 윗세오름-남벽-정상 구간 자연휴식년제 실시
- 1996년 4월: 관음사 야영장 개장
- 1997년 1월: 제1회 한라산눈꽃축제 개최
- 2003년 3월: 성판악·관음사코스 정상구간 전면 개방
- 2008년: 물장오리오름 산정화구호 람사르 습지 등재
- 2009년: 1100고지 습지 람사르습지 등재
- 2010년: 한라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153km²)
- 2015년: 숨은물벙디 람사르습지 등재

출처: 『한라산총서』와 제주도 내부 자료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연구자 작성.

2022년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은 153.332km²로 소유자별로는 국유지 149.257 km²(97.4%), 공유지 2.341km²(1.5%), 사유지 1.734km²(1.1%)이다. 국립공원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5개 지구 5동), 대피소(5개 지구 5동), 화장실(5개 지구 14동), 주차장(6개소 819면), 탐방로(5개 지구 45km)m, 야영장(1개소 67면) 등을 갖추고 있다.¹⁵¹⁾

한라산국립공원 구역(그림 V-6)은 법률적으로 국내법이 정하는 보호·관리구역으로 통제를 받는데 자연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습지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모두 6개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제주도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18).



<그림 V-6> 한라산국립공원 구역과 탐방로
출처: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홈페이지.

15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발췌했다.

이들 법률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서 보존과 통제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시설허가를 하고 있다. 국내 법과 제도로 관리하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은 <표 V-4>과 같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의 핵심지역으로 등재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 국내법과 함께 국제보호지역으로 등재되면서 관리 및 감독이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해졌다.

<표 V-4> 유네스코(UNESCO) 등재현황

구분	명칭	등재시기	면적	비고
생물권보전지역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2002. 12. 16.	3,871.94km ²	-핵심구역: 한라산국립공원, 영천, 호둔천, 문섬 -완충구역: 핵심구역을 제외한 국내법 보호지역, 핵심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협력구역: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지역, 해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5.5km이내 지역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2007. 07. 02.	188.45km ²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세계지질공원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Jeju Island Global Geopark)	2010. 10. 01.	1,849km ²	-제주도 전지역 -대표명소(13개소):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서귀포 패류화석층, 천지연폭포, 대포동 주상절리대,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우도, 비양도, 선홍곶자왓, 교래삼다수마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22년도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내용을 추출해서 연구자 작성.

국제보호지역은 국립공원과 같이 한 나라의 정부가 아니라 지역이나 국제기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곳을 뜻한다. 산업 발전과 도시의 확장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자연 환경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의 활동으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1971년에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되고, 유네스코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이 국제 정부 간 사업으로 설립되었다. 이어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이 1972년에 채택되어 자연과 문화를 연계한 보전이 시작되었다. 또한 2015년에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공식 프로그램으로 승인되었다(김은영 외, 2019).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은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지난 2002년 12월에 지정된 단계와 2019년 6월에 제주도 육상전역과 해양까지 확대되어 지정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초의 논의는 1999년 3월에 개최된 MAB 한국위원회 의에서 시작되었고, 1999년 11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을 합의하고 12월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추진협의회 및 추진단을 출범해서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한라산국립공원, 영천 및 효돈천 등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하는데 협의했으며 2002년 12월 16일에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지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정균,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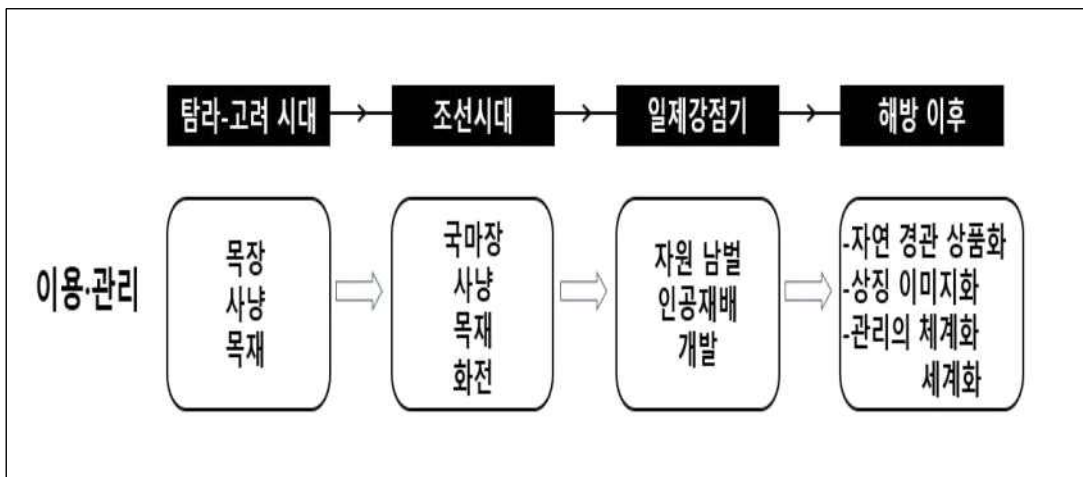
제주도에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문제가 처음 거론되었던 1999년부터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던 2006년까지 정책의 주도자는 중앙정부인 문화재청이었다(김효선·진상현, 2018.). 2006년에는 제주도민과 내·외국인 150여만 명이 참가한 등재 기원 서명 캠페인이 뜨겁게 펼쳐진 가운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주 실사 이후 수차례의 심의와 패널회의를 거쳐 4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해 등재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2007년 6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강경민·강시영, 2021).

2007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화산섬 제주야말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에 최적지라는 긍정적인 권고를 하기에 이

른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기관 등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세계지오파크 인증에 필요한 활동을 본격 시작했으며. 마침내 2010년 10월 그리스의 레스보스 세계지질공원에서 열린 제9차 총회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화산섬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지정 프로그램 3관왕을 달성하였다(김범훈, 2021).

제주도가 국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3관왕의 핵심지역인 한라산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보호 프로그램에 편입됐다. 이는 재인증 절차를 밟아야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통합적이고 일괄적인 기준을 따라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라산에 대한 이용·관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자연경관의 상품화, 상징이 미지화가 굳어진 것은 현재에 와서 도드라진 현상이고 이전에는 <그림 V-7>과 같이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이는 국가 운영 주체의 성격과 당시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했으며 숲, 말, 목재 등의 자원 가치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반영됐다.



<그림 V-7> 한라산 이용·관리 흐름도

출처: 연구자 작성.

VI.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국가의 관점에서 한라산을 인식한 내용을 분석하고 한라산의 공간과 자원을 어떻게 이용·관리했는지를 고찰했다.

탐라시대 5세기에는 불평등사회로 진입해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확연히 구분되고, 정치집단이 출현한 ‘국’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탐라의 지배층이 한라산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 인식의 표현으로 제사를 지낸 양상에 대해서는 고문헌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활발한 대외교류 등으로 동시대에 타국에서 행해진 제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유사한 제사 의식을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고대 탐라의 한라산 인식은 신비스럽고 경외한 산 자체를 신격화한,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자연신을 추앙했을 것이다. 한라산은 중요한 삶의 거점으로서 생존에 필요한 일체의 것을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인식되어 그 자체로 숭배적인 요소를 지녔다.

특히 한라산에 대한 제사는 당시 농경, 선박항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농경, 항해에 필요한 기상의 변화가 하늘의 조화에 달려있고 산천의 신을 통해 하늘과 통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비바람을 관장한다고 여기는 한라산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거나, 아니면 한라산 정상에서 산신, 천신을 향해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자연신에서 산 숭배의 산신으로 인식된 한라산은 고려부터 진산의 의미가 싹트기 시작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적 제례를 통해 진산으로서의 성격이 굳어졌다. 진산은 제사의 대상이자, 방어기지로서의 기능, 그리고 풍수지리설에서 나타나는 주산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정에서는 홍수와 가뭄, 전염병 등 민생과 관련된 재앙을 막고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진산에 제사를 지냈다.

한라산은 진산의 역할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라는 의미가 더해졌다. 중국에서 삼신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다 삼신산이 우리나라 세 개 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변했다. 한라산을 삼신산의 하나로 인정한 시기를 특정하기 힘들지만 삼신산으로 인정한 내용이 유포되면서 조정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제례에 반영될 만큼 특징적인 요소가 됐다.

고려에도 제례의 등급을 구분해서 유교식 제사를 지냈는데 불교, 도교 등과 서로 뒤섞이면서 혼재된 면이 있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유교이념을 기반으로 사전을 재편성하고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시행하게 된다.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물론이고 제사를 지내는 주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구분을 했고 지방에서는 수령이 왕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제주 역시 조선의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에서 빗겨갈 수 없었다.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유교적 의식을 지키지 않은 제사를 음사로 규정했다. 다만 제주에서는 명산대천 제사 대상이 한라산인 점은 분명한데 조선 초기에 이유를 알 수 없이 드문드문 거행된 것이다. 그러다 조선 중기를 지나 한라산 산신제가 보다 비중 있게 치러졌다. 이는 한라산이 지역을 진호하는 진산에서 명산, 삼신산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국가적 관심이 점차 증대된 것과 맥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라산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자연에서 신비적 힘을 제거하고 단순한 물질로 전락시킴으로써 자연을 인간의 번영을 위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 유럽의 기계적 자연관을 수용한 제국주의적 시선이 한라산에 투영된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상으로 무장한 조선총독부는 한라산의 신적 표상을 소거하고 자원의 개발과 독점적 이용, 국유권의 강화와 통제 등을 통한 이익추구 대상으로 객체화, 타자화한 것이다.

식민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주인이 없거나 미개간지라고 여기는 땅에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숲, 방목지, 수자원, 그리고 다른 공유지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면서 토지와 임야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하게 추진했고 한라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공식 소유절차인 지적등록을 거쳐 한라산을 국유화하는 조치로 표현됐다.

해방을 맞았지만 한라산은 제주4·3사건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금단의 영역이었다가 전면 개방된 후에는 등산의 발길이 붓물처럼 이어졌다.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훼손지가 증가하는 동시에 수익과 편의성 차원의 개발 압력도 높아졌다. 하지만 한라산의 자연경관과 독특한 생태계를 인정받아 핵심지역에 대해 천연보호구역 지정이 먼저 이뤄졌다.

일제강점기 당시 개발해야 할 자원의 저장고라는 한라산 인식이 해방이후에는 비록 한정된 영역이지만 ‘보호’, ‘보존’의 대상으로 전이가 이뤄졌다. 이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표현됐으며 법률적, 제도적 관리시스템이 적용됐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에 등재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관리를 받게 됐다.

한라산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그 표현양상의 변화와 함께 한라산 이용·관리에 서도 시대 흐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탐라시대에 전통적인 수렵채취의 공간이었던 한라산은 중국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목장 제도가 도입됐으며 일본정벌 등을 위한 선박건조를 위해 한라산 중산간 산림이 대대적으로 벌채됐다. 또한 목장운영이나 화전을 위해 인위적인 방화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산림이 초지로 탈바꿈했다.

중국 원나라, 고려의 목마장은 조선시대에도 승계됐다. 제주도 마정은 당시 제주목사의 핵심 업무였으며 조선 조정의 관심도 지대했다. 세종시기에는 한라산 공간구조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전개됐다. 목장의 경계를 축조함으로써 한라산의 공간을 분리해 국유지의 경계를 설정했다. 보편적인 공간이 특수한 장소로 변한 것이고 시각적인 경계인 돌담이 생성되면서 국가 소유 영역이라는 인식도 동반해서 발생했다, 목장 축조는 또한 이동, 출입의 자유가 통제되고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같은 구획획정은 일제강점기로 이어져 한라산 국유지를 확정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조선시대에 한라산은 공물 진상을 위한 사냥터이기도 했는데, 이는 군사훈련을 겸한 성격이었다. 고정적인 사냥터를 운영함으로써 한라산 공간을 점유하면서 자원을 획득하는 형태를 보였다. 한라산에서 회귀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 구역을 통제했으며, 화전을 일부 허용해 세금을 매기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국유림 사업계획을 세워 산림자원을 확보했다. 한라

산 국유림 보호라는 명목아래 도민들의 산림이용을 통제했으며, 이는 국유림 자체의 보호보다는 독점적으로 국유림을 관리한 것을 의미했다. 한라산 희귀수목 채취는 물론이고 남측 원시림 지대에 대해 버섯채배를 집중적으로 허용해 임대 수익을 얻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임산물 확보를 위한 독점적인 권리행사를 보여준 것이다.

해방이후 한라산 이용·관리는 개발과 보호·보존이 공존하는 양상을 띠었다. 정부는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할 초기에 자연자원을 보호하여 국민 보건휴양과 학술연구 활동에 기여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이었다. 국립공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설정해 관광, 휴양의 공간으로 개발하는 자연경관의 상품화를 지향한 것이다.

한라산은 백두산과 더불어 국토 통일의 상징 이미지로 확산된 것은 한라산에 대한 국가의 이용·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양상이다. 한라산과 백두산의 물과 흙을 하나로 합치는 남·북 정상외 정치이벤트는 한라산을 국토 강역의 대표적인 이미지이자 통일의 상징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국가는 산신, 진산, 명산, 삼신산으로 이어져 내려온 한라산의 상징에 통일 이미지를 더한 것이다. 과거 국가가 한라산에 대한 제사 의식을 통해 중앙집권, 위계질서를 강화시켰다면, 지금은 통일의 상징 이미지로 민족공동체 결속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축약한다면 국가의 한라산 인식은 토착신, 자연신에서 출발해 진산, 삼신산의 의미가 더해졌으며 일제강점기를 맞아서는 신(神)격이 제거되고 사물적 대상으로 인식됐으며 해방이후에는 보호, 보존적 대상이 됐다. 인식의 표현으로는 국가 제사로 모셔지다가 개발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유화 정립을 거쳐 제도적인 보호구역으로 전개됐다. 한라산 이용·관리는 국가 운용을 위한 자원채취와 개발양상에서 통일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2. 제언

이 연구는 국가의 관점에서 한라산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시기별로 인식이 달리 나타나는 부분을 추적한 결과 유의미한 결론을 얻었지만 국가의 관점이라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한라산을 종합적으로 통찰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민초(民草), 제주도민, 국민의 관점과 인식도 논의돼야 한다. 그래야 한라산 정체성이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의 한라산 군사요새화, 제주4·3사건 시기 국가의 한라산 통제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한라산을 둘러싼 국가와 지역공동체, 국민과의 갈등에 대한 연구역시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한라산에 대한 연구 주제와 범위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라산과 국가는 물론이고 한라산과 사람과의 관계 설정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천(天)-지(地)-인(人) 합일의 자연관이 우리에게 내재됐다고 여겨지지만 서구의 이분법적 자연관 역시 사고의 일정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환경위기, 생태계위기가 이분법적 자연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비등한 점을 감안하면 한라산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탐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한라산을 수동적, 피동적인 타자(他者)적 존재로 고찰했다. 시대별 흐름을 보면 한라산 인식, 위상이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기에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 나무, 하천, 동물 등에 법인격 부여를 논의하거나,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해외의 환경관련 흐름이 있다. 한라산 역시 그 자체가 주체적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정책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라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보다 다양해지고 ‘산 연구’가 더욱 지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기원·박준범·문덕철, 2017, 화산섬 제주도의 지질과 지하수, 제주도개발공사.
- 고창석(편), 1995, 탐라국사료집, 신아문화사.
- 국립공원공단, 2019, 국립공원학개론, 연두출판사.
- 국립제주박물관, 2013, 한라산, 기획특별전 자료집.
- 국립제주박물관, 2018, 탐라, 기획특별전 자료집.
- 김공철, 1997, 탐라어연구, 한국문화사.
- 김광언, 2007, 한·일·동시베리아의 사냥, 민속원.
- 김봉옥, 1995, 조선총독부관보 중 제주록, 제주도.
- 김은영·문경오·정수정·유완상·서승오, 2019, 국제보호지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 김종규·강경원·손명철(역), 2014, 코리아: 일제강점기의 한국지리, 푸른길
(Hermann Lautensach, 1945, Korea: Eine Landeskunde auf
Grund eigener Reisen und der Literatur).
- 김중근, 2017, 증보 제주건설사, 반석인쇄사.
- 김철웅, 2007, 한국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 김한옥, 2022, 제주개발100년사, 디자인케이.
- 남도영, 1996,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데이비드 메이슨, 2003, 산신: 한국의 산신과 산악 숭배의 전통, 한림출판사.
- 문화공보부, 1968, 한라산 및 홍도 학술조사보고서.
- 배재수·강영심·노병완·주련원, 2001, 한국의 근·현대 산림소유권 변천사, 임업연구
원.
- 신용하, 2001, 한국민족의 형성과 민족사회학, 지식산업사.
- 전라남도 제주도청, 1924, 미개의 보고 제주도.
- 제주고고학연구소, 2019, 제주의도동 유적 IV 보고서, 디자인이야기.
- 제주대학교 박물관, 2020, 제주고지도, 제주대학교 박물관.
- 제주대학교 박물관·제주시, 1993, 제주시용담동유적-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서

제11집, 제주시.

제주도, 1970, 제주도지 44호, 제주도.

_____, 1994, 한국의 영산 한라산, 일신인쇄사.

_____, 2006, 제주산림60년사,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_____, 2007, 제주축산사,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_____, 2013, 국유림 경영계획서.

제주도경찰국, 1990, 제주경찰사, 일신옵셋인쇄사.

제주도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18, 한라산가치보전천년대계수
 립보고서.

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제주4·3유적 I -제주시 북제주군-, 도서출판 각.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6a, 제주도지 2권 역사, 제주도.

제주도 한라산연구소, 2013,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제주도.

제주시, 1999, 탐라순력도 영인본,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진교훈, 1998, 환경윤리,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100, 민음사.

최원석, 2014a,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한길사.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 민음사.

한국문화재단, 2014,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II, 영성기획인쇄사.

한국문화재단, 2015,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제주3-, 서재문화사.

홍성목(역), 2005,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 제주시 우당도서관.

2. 논문

강경민·강시영, 2021,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총서 16,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강만익, 2006, “한라산의 촌락과 교통로”, 한라산총서 IV 한라산의 인문지리,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_____, 2008, “1930년대 제주도 공동목장 설치과정 연구”, 탐라문화 32,
 75-136.

_____, 2011, 일제시기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3), 93-112.
- 강영심, 1997, “1905-1910년 일제의 대한 삼림정책형성과 삼림침탈”, 이화사학연구 23·24, 141-169.
- 강정원, 2020, “일제강점기의 산림법과 산림조사”, 산림문화전집 13, 숲과문화연구회.
- 강정화, 2014, “유산기로 본 조선조 지식인의 지리산과 한라산 인식”, 남도문화연구, 26, 141-167.
- _____, 2016, “지리산 연구의 동향과 과제-지리산권문화연구단의 성과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1, 9-34.
- 강정효, 2006, “한라산 등산 및 개발사”, 한라산총서VI 한라산의 등반·개발사,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_____, 2008, 제주세계자연유산의 생태관광자원화방안 연구-한라산국립공원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창화, 2014, “제주도 고고학 30년, 발굴조사와 그 성과”, 제주고고 1호, 11-51, 제주고고학연구소.
- _____, 2015, “제주읍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I)”, 제주고고 2호, 81-119, 제주고고학연구소.
- 고기원·박준범·박원배, 2021, “제주도의 지하지질구조와 지하수 부존특성”, 제주학회 53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29-245.
- 고수미, 2021, “10-12세기 탐라의 대외교류”, 동국사학 70집, 43-84.
- 고윤정·오상학, 2021, “조선시대 유산기에 나타난 한라산 등람배경과 관행”, 제주도연구, 56, 45-76.
- 고정균, 2006, “한라산의 훼손·복구 및 자연보호”, 한라산총서VI 한라산의 등반·개발사,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_____, 2021, “생물권보전지역”, 한라산총서 16,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고지희, 2017, 산악형 국립공원 환경 해설 프로그램 개발: 한라산 영실 탐방로를 사례로,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고창석, 1998, “원탐라기사 탐라관계 기사의 검토-13세기 탐라와 원과의 관

- 계”, 복현사림 21, 445-476.
- 권영락, 2010, “국립공원의 창설과 자연보전운동”, 신문수(편), 미국의 자연관 변천과 생태의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갑동, 2008, “지방의 신앙생활”, 역사문화학회(편), 지방사연구입문, 민속원.
- 김경옥, 2001,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탐라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1), 43-81.
- 김경주, 2012, “용담동 철기부장묘와 그 피장자의 성격”,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40주년기념논총, 385-419.
- _____, 2013, “고고유물을 통해 본 탐라의 대외교역”,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 _____, 2019, “V. 종합고찰”, 제주 화순리유적, 제주문화예술재단.
- 김동전, 2006, “제4장 조선시대 전기”, 제주도지 2권 역사, 제주도.
- 김범훈, 2021, “세계지질공원”, 한라산총서 16,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 김봉옥, 1997, “일제하 제주에서 탄압 착취상황”, 제주도사연구 6, 129-139.
- 김상우, 1999,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광자원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성덕·남정호, 2017, “서양 과학의 자연관이 한국사회의 변동에 미친 영향-서양과학과 동양 유교의 자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1), 59-74.
- 김성환, 2007, “삼신산 판타지와 동아시아 고대의 문화교류”, 중국학보 56, 443-468.
- 김수자, 2020,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푸른 산’ 조성과 경제·생태 인식:<대한뉴스>의 ‘식목일’, ‘산림녹화’ 행사를 중심으로”, 탈경제인문학 13(2) 91-112.
- 김영진, 1987, “한국선교의 역사적 고찰-신격을 중심으로”, 송순강교수 화갑기념논총, 599-624.
- 김용민, 2001, “유럽의 생태주의 사유의 전통”, 독일언어문학 15, 409-426.
- 김일우, 2005, “고려시대 탐라 지역의 우마사육”, 사학연구 제78.
- 김정아, 2020, 일제강점기(1916-1937)의 화전민 문제와 조선총독부의 산농지

- 도정책,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21, “일본제국의 ‘국가풍경’으로서의 금강산 생산-금강산국립공원 지정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3(1), 106-133.
- 김진영, 2002, “조선초기 제주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 한국사론 48, 55-108.
- 김창현, 1998, “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1(5), 309-345.
- 김학소, 1970, “한라산국립공원 지정의 배경”, 제주도지 44, 304-309.
- 김효선·진상현, 2018, “제주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에 대한 의제설정 및 규제장치 분석”, 환경정책, 26(4), 147-179.
- 김휘·장계선·장진성·최병희, 2006, “외국인의 한반도 식물 채집행적과 지명 재고 (II)Takenoshin Nakai(中井猛之進)”. 식물분류학회지 36(3), 227-255.
- 도광순, 1992, “신선사상과 삼신산”, 도교학연구 10(1), 3-32.
- 劉均國, 2015, “한라산의 몽골어 기원설: 방대하고 위엄있는 산의 이야기”,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2), 173-197.
- 류제현, 2022, “제주 명승의 인문적 가치해석 시론-유산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승용역 학술회의 자료집.
- 문경현·이완재·신종원·김태중·최광식, 1991. “신라인의 산악숭배와 산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5-40.
- 문태훈, 2015,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0-2013”, 환경정책 23-2, 57-95.
- 박계리, 2011, “백두산: 만들어진 전통과 표상”, 미술사학보 36, 43-74.
- 박석곤·김영찬, 2021, “일제강점기 문헌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국립공원의 시대적 상황고찰”, 국립공원연구지 12(1), 159-171.
- 박장근·유영규, 2012, “국립공원 관리원들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7, 457-466.
- 박정재·진종현, 2019, “제주 중산간 지역의 과거 경건 변화와 인간 그리고 오름의 환경사적 의미”, 대한지리학회지 54(2), 153-163.
- 박호원, 2013, 한국마을신앙의 탄생, 민속원.
- 배재수, 2002, “조선후기 송정의 체계와 변천과정”, 산림경제연구 10(2),

22-50.

- 배재수·김은숙, 2019, “1910년 한반도 산림의 이해: 조선임야분포도의 수치화를 중심으로”, 한국산림과학학회 108, 418-428.
- 변동명, 2020, “한국 전통시기의 산악신앙·성황신앙과 지역사회: 역사상 인물의 산신 성황신 추앙을 중심으로”, 호남학 67, 109-147.
- 손오규, 2015, “한라산 산수유기의 산수문학적 연구”, 퇴계학논총, 26, 315-347.
- 송성대·강만익, 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영목장의 범위와 경관”, 문화역사지리 13(2), 143-162.
- 矢野尊義, 2012, “평화를 위한 일본인의 자연에 대한 태도- 일본문학에서 본 자연관의 변천과정”, 평화학연구 13(4), 27-41.
- 신익철, 2001, “대사·중사·소사의 실증적연구-천제와 산천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31, 509-542.
- 양보경, 2012, “백두산과 백두대간 개념형성과 식민지적 변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심포지엄.
- 오상학, 2004,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24, 1-18.
- _____, 2006, “조선시대 한라산의 인식과 그 표현”, 지리학연구 40(1), 127-140.
- _____, 2019, “한라산 존자암지의 풍수지리적 특성”, 존자암지 및 세존사리탑의 국가지정 문화재 타당성 조사연구보고서, 제주고고학연구소.
- 오세숙·김종순, 2013, “한국 국립공원 형성과정과 환경주의에 관한 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1), 75-88.
- 오수경, 2013, “중국의 ‘오악’: 지리적 표상에서 문화적 표상으로-유네스코 세유산 신청을 계기로 다시 본 오악 담론”, 동아시아문화연구 55, 93-123.
- 오수정, 2018, “조선 초기 제주 토치 체제 고찰”, 제주도연구 50, 257-284.
- 오영석·최병석, 2000, “조선시대 자연자원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4(1), 327-345.
- 윤명철, 2013, “해양교류로 본 탐라사”,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 윤미란, 2008, 조선시대 한라산 유기 연구, 고려대학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는

문.

- 이동관, 2018, “남해안지역 늪도와 탐라의 해양교류”, 국립제주박물관 특별기념전 탐라, 50-55.
- 이바른, 2022, “고려후기 원 목호의 제주 이주와 마정운영”,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원·한국중세사학회 제주학술대회 자료집.
- 이서행, 2000, “자연환경보전과 생태윤리정립의 방향”, 국민윤리연구 44, 65-82.
- 이연우, 1998,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도시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육, 2002, “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161-193.
- 임재영, 2020,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경관자원별 특성과 활용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채우, 2008, “한국선도와 한국도교 : 두 개념의 보편성과 특수성”, 도교문화연구 29, 251-272.
- 장제근, 2002, “마형토기출토 제사유적”, 고대의 말, 국립제주박물관, 114-121.
- 정광중, 2006, “한라산과 제주도민의 문화”,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6(1), 29-46.
- 정광중·강창화·김일우·김종찬, 2004,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33, 67-106.
- 정의, 2014, “근대 일본의 서구송배와 국수주의-메이지유신부터 청일전쟁 까지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27, 277-301.
- 정재현, 2006, “동아시아 자연관의 몇 가지 특성들”, 동서철학연구 41, 5-23.
- 정치영, 2011, “조선시대 지리지에 수록된 진산의 특징”, 문화역사지리 23(1), 78-90.
- 조성운, 2016,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금강산 관광개발”, 한일민족문제연구 30, 5-54.
- 조제중, 2006, “국립공원의 이념과 이용자들에 의한 훼손 그리고 보존: 보존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해설 모델적용”,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0(4), 51-66.

- 조태섭, 2017, “제주 광지 사람들의 동물 이용에 대하여”, 인문과학 110, 105-131.
- 진관훈, 2022, “제주지역 화전과 화전세 연구”, 제주도연구 57, 19-47.
- 진영일, 1994, “고대탐라의 교역과 국 형성고”, 제주도연구 3, 9-40.
- 진중헌, 2005, “금강산 관광의 경험과 담론분석 : 관광객의 시선과 자연의 사회적 구성”, 문화역사지리 17(1), 31-46.
- 최원석, 2003, “경상도 읍치경관의 진산에 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15(3), 119-136.
- _____, 2014b, “지리산과 한라산의 명산문화 요소의 역사지리적 특징 비교 고찰”, 남명학연구 42, 231-270.
- 최중석, 2008, “조선시대 진산의 특징과 그 의미 - 읍치공간 구조의 전환의 관점에서-”, 조선시대사학보 45, 5-52.
- 한우근, 1976, “조선왕조초기에 있어서의 유교이념의 실천과 신앙·종교-제사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3, 147-228.
- 현병관, 2022, 한국 국립공원 제도 도입과 초기 공원지정 과정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국립공원학과 석사학위 논문.
- 현원학, 2004,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기표, 2021, “우리나라 옛 문헌 소재 한라산 인식”, 한국고지도연구 13(2), 5-32.
- 홍순만, 1991, “제주목사에 관한 서설”, 제주도사연구 1, 35-44.
- 황경수, 2006, “도로·교통”, 제주도지 제4권, 제주도.
- 황진태, 2018,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스펙터클 정치와 새로운 ‘국가-자연’의 생산”, 대한지리학회지 53(5), 589-604.
- 황진태·박배균, 2013,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지리학회지 48(3), 348-365.

3. 외국 문헌

- Cronon, W., 1998, “The Trouble with wilderness; or, getting back to the wrong nature,” Cronon, W.(Ed.), Uncommon Ground: Rethinking the

- Human Place in Nature, New York: W.W. Norton & Co.
- Hartzog, George B. Jr., 1972, The Next 100 Years: A Master Plan for Yellowstone, National Geographic, May 1972.
- Neumann, R. P., 1996, "Nature-State-Territory: Toward a critical theorization of conservation enclosures," Peet, R. & Watts, M.(ed.), Liberation Ecologies: Environment, Development, Social Movements, London: Routledge.
- Whitehead, M., Jones, R., Jones, M., 2007, The Nature of the State: Excavating the Political Ecologies of the Modern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 고문헌

南槎錄
 南槎日錄
 南宦博物
 東國輿地誌
 篠叢遺稿
 濟州邑誌
 增補耽羅誌
 芝峰類說
 知瀛錄
 耽羅錄
 耽羅誌草本

5. 인터넷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국립산림과학원
 (<https://know.nifos.go.kr/know/service/chosunforest/chosunforestMap.do>)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main.d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https://jeju.go.kr/hallasan/index.htm>)
제주도공간포털 <https://gis.jeju.go.kr/bm/index.do>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6. 언론

연합뉴스, 남북정상 하나됨을 위해 건배, 2018년 9월 19일.
연합뉴스, 한라산과 백두산 물 반반 담아, 2018년 9월 20일.
청와대 국정브리핑, 한라와 백두 흠이 한 뿌리에: 북에 심은 남쪽 소나무, 2007년
10월 4일.
프레시안,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6월 항쟁, 2017년 4월 16일.
한겨레신문, 저항하는 김열자 박경신 고려대 교수, 2012년. 4월 13일.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State's Perception and Management of Halla Mountain

Halla Mountain is recognized as a famous mountain and a spiritual mountain, but research activities to identify values, give meanings, and present theoretical grounds have been lacking. In particular, as research on Halla Mountain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Joseon Dynasty, discussions on the status and role of Halla Mountain in other periods, such as the Tamra period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ve been rare.

In order to find the value and identity of Halla Mountain, this study examined Halla Mountain's perception and management aspects from the State perspective from the Tamra era to the present. This is to seek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Halla Mountain and the Stat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hange in perception of Halla Mountain was as follows. During the Tamra era, Halla Mountain was worshiped as a supernatural god. As an important base of life, the mountain was provided with everything necessary for survival. In addition, ancestral rites were held for the mountain god and heavenly god of Halla Mountain, who oversee rain and wind, which are most important for farming and ship navig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Halla Mountain was characterized as Jinsan: a mountain that protected the region. Halla Mountain performed the function as an object and place of ancestral rites, as a defense base, and as a key mountain in feng shui theory. In the royal court, ancestral rites were held on the guardian mountain to prevent disasters such as floods, droughts, and epidemics, or to pray for fertility. In the Joseon Dynasty, Halla Mountain influenced perception as it added the meaning of being one of Samsinsan;

three divine mountains in the legend where immortals live, along with the role of Jinsan, and it became a characteristic element enough to be reflected in ancestral rites.

These ancestral rites were held sparsel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ut after the middle period, the Halla Mountain ancestral rites became more important and held on a regular basis. This can be seen as the fact that the national interest in Halla Mountain gradually increased as the meaning of Halla Mountai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Halla Mountain's divine representation was removed, and it was objectified as a target for profit pursuit through resource development, exclusive use, and strengthening and control of national ownership.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olon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trongly promoted the nationalization of Halla Mountain, and ownership was firmly established.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Halla Mountain was transformed from a closed space to an open space, and development pressures such as cable car construction and road construction increased for profit and convenience.

However, Halla Mountain was designated as a protected area first in recognition of its beautiful natural scenery and unique ecosystem. The perception of Halla Mountai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anged from 'a material object' to 'an object of protection and preservation' after the liberation. This change in perception was expressed in the designation of a national park.

In the State's management of Halla Mountain, different aspects were shown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s as follows. Halla Mountain, which had been a traditional hunting and gathering place in the Tamra era, was under the rule of the Chinese Yuan Dynasty, and the ranch system was imported, and the forest was extensively cut down for shipbuilding.

During the Joseon Dynasty, great changes occurred in the spatial structure of Halla Mountain. A universal space was transformed into a special place by building stones on the border of the state-run horse ranch. With the creation of the stone wall, a visual boundary, the perception that it is a state-owned territory also occurred. Building a ranch also meant that freedom of movement, entry and exit was controlled and restricted. This division of land continu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served as the basis to determine Halla Mountain's state-owned land.

During the Joseon Dynasty, Halla Mountain was also a hunting ground to secure tributes to the court, which also served as military training. The Dynasty could occupy the space and acquire the resources at the same time by operating a fixed hunting ground. In Halla Mountain, certain areas were controlled to secure rare forest resources, and slash-and-burn fields were allowed in some areas to be used as a means for securing revenu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xclusively secured forest resources by establishing a national forest business plan.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the Halla Mountain National Forest, the use of the forest by provincial residents was controlled, which meant that the national forest was exclusively used and managed rather than protected. In addition to collecting rare trees in Halla Mountain, the Dynasty earned rental income by intensively allowing cultivation of mushrooms in the primeval forest.

After the liberation, the management of Halla Mountain aimed to commercialize the natural landscape by designating as a national park representing natural landscape of the country and utilizing it as a space for tourism and recreation. In addition, the spread of Halla Mountain and Baekdu Mountain as a symbol image of national territorial unification is a new aspect in the State's management. The political event of the summits of South and North Korea, which merged the water and soil of Halla Mountain and Baekdu

Mountain into one, regarded Halla Mountain as a representative image of national territory and a symbol of unification.

In conclusion, the national perception of Halla Mountain started from an indigenous god and nature god, and added the meaning of Jinsan and Samshinsan. After the liberation, it became an object of protection and preservation. As for the expression of perception, Halla Mountain was enshrined as a national ancestral rite, then became a target for development, and after nationalization was established, it was designated as a protected area after the liberation. The management of Halla Mountain has changed from resource collection and development for the state to a symbolic representative place for unification.

This study considered Halla Mountain as a passive and passive other being in relation to the state. Looking at the flow of each era, we can see that the status of Halla Mountain is not fixed and unchanging, so we can predic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future. In times to come, research and policies that analyze Halla Mountain itself as a subjective entity should be conducted, an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humanities approach to Halla Mountain will become more diverse and the horizon of mountain research will be further expanded.

Key words: Halla Mountain, State, perception, management, Jinsan, Samsinsan, mountain god ritual, state ranch, national park, unification symbol

감사의 글

논문의 탄생은 마치 집을 짓는 일이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평생 살아가야 할 터 (전공,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였고, 어떤(목적) 집을 설계(주제, 목차)할 지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맞게 재료(선행연구)를 모았고, 목적과 주제에 따라 열기설기 꿰맞추면서 뼈대를 갖추었습니다. 남의 재료만으로는 참신하고 독특한 집이 될 수 없기에 나름의 재료(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여기저기 발품, 인터넷 품을 팔았습니다.

집은 겉모습과 더불어 속내도 중요했습니다. 인테리어(질적 가치)에 공을 들였고, 부수었다가 다시 짓는(수정, 보완)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두드리고, 쪼개고, 다듬고, 뒤섞고, 펼쳐놓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제 한 채의 집을 지어 내어놓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이 새는 곳은 어딘지, 물과 전기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계속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결코, 결단코 혼자서 진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상학 지도교수님은 선행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논문 주제를 잡는데 결정적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자신감이 떨어질 때 손명철 교수님은 “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울림이 큰 말로 다독이고 응원해주셨습니다. 환경, 생태분야에서 번개처럼 빛나는 깨달음을 안겨준 권상철 교수님의 “박사, 완성이 아니라 혼자서 연구할 수 있다는 자격을 주는 의미”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정광중 교수님, 혹독하지만 디테일이 최고인 가르침이 없었다면 논문의 완성도를 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야 할 입지를 인도해 준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 전공이 아니어서, 낯설고 생소한데도 지형분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주신 김태호 교수님, 기후와 GIS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신 최광용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자료 수집과 확인은 논문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귀찮게 여겨질 정도로 부탁을 드렸는데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김경주 부원장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김완병 박사님,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고정균 박사님과 안웅산 박사님, 한문이 막힐 때마다 길을 열어주신 홍기표 선생

님과 제주문화원 백종진 사무국장님, 자료를 지원해주신 국립제주박물관 송호연 연구사님께 너무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제주도청 강승훈 님에게는 오래오래 갚아야할 빚을 졌고, 번거로움을 감내해준 김은실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정 작업을 흔쾌히 맡아준 오재용·문정임 기자, 그리고 응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허호준 선배와 동료 기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지만 50대 후반의 나이에 도전한 학업의 길을 격려해준 지인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무한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혹독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라산을 다니면서 알고자했던 궁금증과 호기심을 풀어가는 과정이었기에, 고통스러웠지만 즐거웠습니다. 연구자의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현장과 학문에서 '또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공부가 평생의 한(恨)이었던 어머니, 그리고 막내 누나. 그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린다면, 이 역시 보람입니다.